

최종보고서

미래유권자 선거학교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공동연구원	송현정 (서울대학교)
	김명정 (강원대학교)
	심소현 (창동중학교)
	강은진 (세화중학교)

2021년 12월

선거연수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2
4.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
II. 선거·정치교육의 의의와 동향	4
1. 선거·정치교육의 의미와 특징	4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선거·정치교육	4
2)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선거와 정치	4
2. 18세 유권자 시대의 학교 선거·정치교육의 방향	7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선거·정치교육의 원칙 정립	7
3) 논쟁수업의 강화	8
3) 학교 밖 선거·정치교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	11
3. 국내외 선거·정치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2
1) 국내 동향과 사례	2
(1) 국내 선거·정치교육 동향	2
(2) 국내 선거·정치교육 사례	4
2) 해외 동향과 사례	6
(1) 독일	6
(2) 미국	9
(3) 캐나다	2
3) 시사점	25
III. 선거·정치교육과 학교교육	7
1. 학교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	7
1) 현행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선거·정치교육	72
2) 역대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정치교육 내용 분석	92
(1) 교수요목기	0
(2) 제1차 교육과정기	3
(3) 제2차 교육과정기	3
(4) 제3차 교육과정기	2
(5) 제4차 교육과정기	3

(6) 제5차 교육과정기	3
(7) 제6차 교육과정기	3
(8) 제7차 교육과정기	4
(9) 2007/2009 개정 교육과정기	4
(10)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기	53
3) 학교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의 특징	5
2.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속 선거·정치교육	5
1) 선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6
2) 모의선거교육	7
3. 시사점	40
IV. 중학생용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1
1. 선거·정치교육의 내용 체계	4
1) 내용체계표 (초안)	11
2) 내용체계표 (최종)	21
2.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와 예시	4
1) 지도서 체계	4
2) 지도서 예시: 1주제 1단원 <정치와 민주주의>	4 4
3) PPT 예시: 1주제 1차시 <정치와 민주주의>	6 5
3. 프로그램의 특징과 활용법	6
1) 특징	6
(1) 내용 측면	6
(2) 형식(구성) 측면	76
2) 효과적인 활용법	6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7
(2)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연계	8
(3) 범교과 수업과 연계	7
4. 현장 적용 결과	72
1) 현장 적용 수업 실시	2
2) 현장 적용 의견 반영	2
3) 현장 적용 결과 및 시사점	3
V. 결론	75
참고문헌	76
<부록>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8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약 54만 명의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었고 이 중에는 고등학생도 약 14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18세 청소년의 수(54만)는 4,40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유권자의 1.2%에 불과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추진해 온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따른 첫 투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새내기 유권자의 첫 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부 부처와 교육청 등에서는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선거연수원에서는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내놓았고 여러 교육청에서는 선거교육 학습지, 온라인 선거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선거교육 계획은 아쉽게도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선거권 연령 인하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일로부터 실제 선거에 이르기까지 100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다는 점, 둘째, 그마저 대부분 겨울방학이었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선거교육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 셋째, 일부 교육청 등이 계획했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수 속에서 실시된 18세 유권자의 첫 투표는 우리 사회의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진전을 위한 상징적인 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제 그 이후, 즉 18세 유권자의 투표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 될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선거 관련 정치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고서 선거 및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선거·정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유권자이자 오늘의 주권자인 중학생이 민주주의, 선거, 정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2020년에 개발된 각종 선거교육 자료는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고려하여 대체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중고 학생 모두를 위한 자료도 일부 개발되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기존의 선거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학교 교사가 주체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차조일 외, 2020; 선거연수원, 2020).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중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한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12차시 분량의 체계적인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둘째, 선거 자체만이 아니라 선거를 민주주의,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맥락적으로 살펴보는 선거·정치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수업 담당 주체를 선거연수원에 소속된 강사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강사가 선거 관련,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고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지향한다.

2. 연구 내용

1) 선거·정치교육의 의의와 동향

- 선거·정치교육의 의미와 특징
- 국내외 선거·정치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 학교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의 특징

2) 중학생용 선거·정치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 선거·정치교육을 위한 내용체계표 구성 (6개 주제, 총 12차시)
-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과 연계 수업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도안 및 PPT 구성
- 수업에 사용할 활동지 개발
-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심화·보충용 읽기 자료 개발

3. 연구 방법

1) 선거·정치교육 관련 문헌 연구

- 기존 선거교육 자료 및 관련 문헌 분석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2) 전문가 협의회

- 선거·정치교육을 위한 내용체계표 및 개발틀 검토 자문 1회
- 교사용 지도서 및 PPT 내용 검토 자문 2회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인(중학교 교사 역임),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2인(중학교 교사 역임), 고등학교 사회 교사 1인 (2020 선거교육 자료집 개발 참여)

3) 프로그램 현장 적용

- 지도서 및 활동지 시안을 중학교 교사 또는 선거연수원 전문 강사를 통해 현장 적용
- 현장 적용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4.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 효과

- 체험형, 활동형 교수기법 적용을 통해 중학생 학습자의 선거·정치 관련 흥미와 참여도 제고
- 선거연수원 강사의 선거·정치교육 관련 역량과 전문성 향상

2) 활용 방안

-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용 맞춤형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선거·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제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활용

II. 선거·정치교육의 의의와 동향

1. 선거·정치교육의 의미와 특징¹⁾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선거·정치교육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와 함께 ‘선거교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 이 용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학교교육에서도 ‘선거’ 관련 내용이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히 조명을 많이 받았다.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에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학계나 정치권 너머의 대중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선거교육은 좁게는 선거에 대한 교육(홍주석, 최근원, 2012: 365)이지만, 이를 확장하면 선거 참여 의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투표 이외의 다양한 정치 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교육(곽한영, 2017: 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선거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인식되는 ‘선거’를 기초로 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정치 참여까지를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교육은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 정치 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교육을 가리킨다(신두철, 2012: 7). 정치교육은 좁게는 정치 체제의 안정을, 넓게는 그 정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시민 자질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신두철, 2012: 8). 이러한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대륙에서 정치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미권에서는 시민(성)교육으로 부른다.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정치 참여 교육이나 정치 과정에 관한 교육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가리킨다(김미란, 1998; 성낙돈,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형식적인(범위) 차원의 것이므로 최근의 선행연구(정문성 외, 2018: 20; 정원규 외, 2019: 14; 이쌍철 외, 2019: 22)를 참고하여 여기에 좀 더 규범적인 의미를 담아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도를 이해하고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과 사회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실 넓은 의미의 목표나 내용 측면을 보면 선거교육이나 정치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민주시민교육의 그것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선거교육, 정치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나 이미지는 그 범위가 민주시민교육보다 좁을 수 있다. 선거교육은 말 그대로 선거 관련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치교육은 선거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정치 문화 등에 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교육을 강조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거·정치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선거와 정치

1) 설규주(2020)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주제는 다양하다. 그 중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 정치 참여, 시민의 권리, 의사결정, 갈등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정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도 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 선거나 정치 관련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선거, 정치 등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서울시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제시된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 조례	민주시민교육 내용
서울시 (2014. 1.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체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 3. <u>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u>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경기도 (2015. 10. 13.) 2017. 4.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 3. <u>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u>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인권, 환경, 성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신설 2017. 4. 12.]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도 선거나 정치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초중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대단원명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기도 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대단원명과 주요 내용

학교	단원	대단원명	주요 내용
초	12)	함께 결정해요	<u>민주적 의사결정</u>
	1	모두가 참여해요	
	2	누구를 뽑을까요	<u>선거</u>
	2	내 힘으로 뽑아요	
	3	평화를 꿈꾸어요	갈등해결, 환경, 남북 평화
	3	평화롭게 살아요	
	4	나는 소중해요	인권
	4	우리는 소중해요	
	5	우리는 모두 달라요	차별, 다문화, 성 평등
	5	차이가 차별이 될 수는 없어요	
	6	즐겁게 일해요	노동
	6	사람들은 일을 해요	
	7	생각을 전해요	미디어

	7	민을 위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8	우리 함께해요	공동체, 연대	
	8	우리 함께해요		
중	1	청소년은 성장하는 시민입니다	시민, 사회참여	
	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민주, 공화	
	3	시민은 선거로 말합니다	선거, 선거권	
	4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요	자유, 자유의 실현	
	5	평등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평등, 평등한 세상	
	6	연대는 실천입니다	연대, 사회복지, 국제 지원	
	7	더 나은 삶을 상상합니다	인간다운 생활, 사회권	
	8	사람과 노동은 하나입니다	노동, 일자리	
	9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생각합니다	윤리적 경제, 공유 경제	
	10	미디어,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미디어 비평, 소셜 미디어	
	11	다양하니까 더 좋아요	다문화, 이주민	
	12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평화, 환경, 남북통일	
고	1부	1	인권과 시민	청소년 인권, 기본권 , 법, 시민의 의무
		2	다양성과 차이	가족 형태 변화, 장애인, 다문화
		3	공감과 연대	공감, 윤리적 소비, 기부, 복지, 연대
		4	자연과 환경	에너지 위기, 유전자 식품, 환경
		5	평화와 공존	학교 폭력, 남북 평화, 갈등 해결
	2부	1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투표, 시민참여, 의사결정
		2	노동과 경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기업의 책임
		3	언론과 미디어	미디어 비평, 언론 윤리, 뉴미디어

민주시민교육 조례나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살펴보면 선거 관련, 정치 관련 내용이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 선거 등을 다루는 부분이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다룰 때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선거교육만을 부각하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로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선거교육의 실질적인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선거교육이라는 명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마치 특정 시기의 실제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기라도 하는 교육으로 생각하는 일각의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교육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법령이나 교육과정 문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 내용 측면에서는 선거 관련 사항을 강조해서 다루어 보자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범교과 학습 주제 등으로 제시되는 각종 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현장에는 너무 많은 ‘○○교육’이 존재한다. 예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10개로 축소되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9개에 이를 정도였다. 그동안 그리 많이 다루지 않았던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이 아니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민

2) 초등학교 부분에서 일반 숫자는 3-4학년용, 이텔릭체 숫자는 5-6학년용 교과서의 대단원(주제)명을 가리킨다.

주시민교육의 한 주제로서 선거교육을 강조해 보자는 것이다.

2 18세 유권자 시대의 학교 선거·정치교육의 방향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선거·정치교육의 원칙 정립: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명료화

설규주, 정원규(2020)는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수학습 원칙이라는 점에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배타적으로 각각 교육 목표, 내용, 방법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요소와의 관련성은 높다. 반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한 평가는 모든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 원칙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에도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원칙(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이 추가되었다.

<표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관련 교육과정 요소, 정당 근거 개요³⁾

보이텔스바흐 합의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안)	관련되는 교육과정 요소	정당 근거
교화 금지	학습자 자율성 제고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목표로서 주권자 교육 이념 반영
논쟁성 재현	논쟁성 재현	내용	기계적 중립이나 균형으로 인한 중요한 쟁점 배제 및 학습 공백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역량 제고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방법	학습자가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기회와 공동체에 관여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공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평가	입시나 점수화로 연결되는 평가로 인해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옹골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이러한 교육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관련이 깊다. 중립성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간적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당적이지 않아야 하고 국가나 교육청, 교사 등이 학생의 자유로운 판단을 막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곧 학습자 자율성 제고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 자체를 교육에서 회피한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사항의 교육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주제나 쟁점을 회피하는 대신 논쟁의 형태로 제시하면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면서 교육적

3) <표 7>에 세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원칙과 교육과정 요소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 자율성 제고 원칙은 교육과정 목표로만, 논쟁성 재현 원칙은 교육과정 내용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교육현상은 매우 종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경계를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

공백도 막을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원칙을 통해 스스로를 주권자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원칙에 따라 학습자가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와 다른 견해도 부담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교육원칙은 학교와 교사, 학생을 논란이나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2019년 인헌고 사건 등을 비롯하여 2020년 선거교육 등과 같이 교육청, 단위 학교 혹은 개별 교사가 특정한 주제나 쟁점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 7>에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학교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강제 또는 주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교화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자의 자율성 확보, 모든 학습자의 구조적 참여, 학습자의 가치·태도에 대한 제한적 평가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논쟁적인 사안을 학교에서 다루는 것 자체는 논란이 될 필요조차 없도록 하고 이 원칙을 근거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쟁점 중심 민주시민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또한,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에 의해 어떤 강제나 교화, 억압 등이 발생한다면 역시 이와 같은 교육원칙을 통해 그것을 제어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논쟁수업의 강화: 교육과정을 통한 논쟁성 재현 보장

TV, 라디오 등 각종 미디어에서는 시사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 이외의 시사적 쟁점 토론이 쉽지 않다. 이는 실제로 우리 삶과 학문 세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학교 현장에서도 논쟁거리로서 다루어 보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해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정 시기에 이른바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쟁점을 다루기도 한다. 그런데 것처럼 시사적인 쟁점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시선이 있다. 세월호나 촛불집회 등을 소재로 한 계기 수업 논란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조선일보, 2017. 4. 7.; 오마이뉴스, 2016. 4. 19.).

학교에서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어떤 교사나 학생은 주저하고 또 어떤 교사는 홀로 전투하듯이 해내기도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에 논쟁성 재현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쟁점과 주제의 교육적 공백, 논쟁의 공백 상황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시사적 쟁점 토론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역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교육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 자체는 기존 교육과정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논쟁이 되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적 쟁점을 굳이 다루지 않고도 교육과정상의 요구를 일정 부분 이행할 수 있었다.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그동안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쟁점을 소재화하도록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쟁점을 교육내용으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⁴⁾

<표 4> 논쟁수업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예시

항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향후 교육과정 총론 (예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되, 실제로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문제를 학습 내용에 포함한다. 이 경우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교수·학습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7) 학생이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회적 쟁점과 연관 지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한편, 각론 중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을 예로 들어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에서 쟁점을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하거나 쟁점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표현을 고쳐 ‘쟁점’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거나 관련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향에 제시된 쟁점 관련 진술을 좀 더 명료화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논쟁수업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각론 개정 예시 (사회과)

항목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향후 사회과 교육과정 (예시)
성취기준	(2)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제와 쟁점(상업성 논란, 가짜 뉴스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6) 인권과 헌법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6) 인권과 헌법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인권 침해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구제 방법을 모색한다.
교수·학습 방향	1) 교수·학습의 원칙 (4)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한 탐구, 가치 분석, 의사 결정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1) 교수·학습의 원칙 (4)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실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탐구, 가치 분석, 의사 결정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한편, 현재 초중고 대부분의 교과서 발행 형태가 검인정인데 교과서 집필 및 검인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인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성 재현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편찬상의 유의점이나 검인정 기준에는 “일상생활과 연계”되거나 “실생활과 관련”되는 소재를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표현은 가리키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예컨대 ‘실생활의 쟁점’과 같은 표현을 통해 명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참신한”이라는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새로운’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시사적인’

4) <표 8>, <표 9>, <표 10>은 설규주 외(2020)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라는 표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논쟁성 재현 원칙의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적용

항목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향후 교육과정 (예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과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과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단, 정치적, 과당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곧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회피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3. 내용의 선정과 조직 (6) 실생활과 관련된 참신하고 시사성 있는 학습 자료나 소재를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3. 내용의 선정과 조직 (6) 실생활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소재나 쟁점 등을 선정·조직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검정 기준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1.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참신한 소재 및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제재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1.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의 쟁점이나 사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적인 소재 및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제재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위와 같이 각론의 성취기준과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쟁점’ 관련 표현을 넣게 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쟁점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종속되는 문서이고, 검정 교과서의 경우 검정 기준 등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쟁거리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을 수업이나 활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논쟁수업은 구현되기 어렵다. 반면, 교과서 속에 제시된 사회적 쟁점의 사례가 다소 낡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노력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논쟁거리를 다룰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쟁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 또는 학교의 교사 공동체(동학년 모임, 교과 협의회 등)가 쟁점 중심의 수업을 권장하는 교육과정의 우산 아래에서, 그리고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적 판단 하에서 사회적 쟁점을 수업이나 활동에 도입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을 쟁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노경주·강대현(2018: 66-67)이 제안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쟁점 중심 성취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참고하여 <표 7>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대단원별(또는 대주제별)로 3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3개 모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과학에서 강조하는 개념, 이론 등과 같은 내용 지식이 많은 편이다. <표 7>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대단원의 현행 성취기준과, 대안적인 쟁점 중심 성취기준을 대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7>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쟁점 중심 성취기준 반영 방안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예시
[9사(일사)04-01] 정치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9사(일사)04-01] 정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u>다양한 양상과 쟁점을 분석하고,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 방안</u> 에 대해 토론한다.
[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9사(일사)04-0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와 비교하고, <u>공정한 선거와 관련한 쟁점 및 개선 방안</u> 에 대해 토론한다.
[9사(일사)04-03]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조사한다.	[9사(일사)04-03]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고, 지역 시민으로서 <u>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u> 에 대해 토론한다.

3) 학교 밖 선거·정치교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 생활 속의 정치 체험 확장

여기서 ‘학교 밖’이란 ‘물리적 장소’로서의 학교 바깥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주체’로서의 학교가 아닌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학교 밖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례로는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프랑스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기간 중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담당하는 공교육 체계 내부의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공공성을 띤다. 이들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외양적으로 문화예술, 취미 활동 등의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시민성, 사회성,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정문성 외, 2018). 이러한 활동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중시해 온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체는 고유한 활동 분야와 대상, 목표 등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성 함양, 더불어 살아가기 등과 같은 민주시민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프랑스 교육부, 2012; 이기라, 2018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협력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와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을 소개한다(굿네이버스, 2019). 이 사업은 2018년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Action+ in seoul로 출발하였다. 서울특별시를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권리의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권리 침해, 권리 보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내는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2018년에 서울시 초중고 학생 98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부터는 Good Motion(good motion and action)으로 명칭을 바꾸고 참여한 초중고 학생도 155명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주로 놀이 환경, 통학로 안전 등을 주제로 하여 실태 조사, 공약 개발 등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서울시-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도 있다. 2019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는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높이가 일부 아동·청소년에게는 맞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

여 아동·청소년용 공용 자전거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새싹 따릉이’라는 이름의 공용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굿네이버스와 서울시 협력 사례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교 밖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도 “교육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계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교육청과 민간단체의 연계 속에서 아동·청소년권리 증진과 관련된 정치참여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학교 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컨대 서울시와 굿네이버스의 경우 학교 밖 놀이시설, 학교 밖 통행로 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조사할 수 있지만, 학교 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다. 교육청이 이러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한다면 청소년의 정치참여 적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그 양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

3. 국내외 선거·정치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1) 국내 동향과 사례

(1) 국내 선거·정치교육 동향

선거·정치교육과 관련된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논의와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선거·정치교육을 살펴보는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논의는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사고에 기반하여 문제를 발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후자의 논의는 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정치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며, 특히 최근 선거 연령이 하향화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일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과 정치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양측의 논의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로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 선거·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김태준 외(2011), 강현미 외(2014), 이지혜(2017), 이경윤(2017), 조의호(2018) 연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태준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수준에 대해 비교하면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과 공동체에 대한 ‘참여’ 수준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있어 인지와 행동 영역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

고 향후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실천적 체험활동의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참여와 표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태준 외, 2011: 5~6, 173~176; 김명정·송성민, 2014에서 재인용).

강현미 외(2014)의 연구는 다섯 명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협력적 실험연구로서 학생 자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거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수업 실행을 바탕으로 상호 토의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들은 학급임원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형식적인 공약 제시 및 투표의 수준을 넘어 학생 자치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세 단계의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지혜(2017)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 선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 중심의 선거교육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선거교육은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식 위주의 학습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함양하여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 중심 선거교육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참여 중심 선거교육은 아동·청소년 참여이론 행위성향 중심 접근 상황 학습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여 중심 선거교육에서 선거의 기능 원칙 제도 등과 같은 지식 영역은 선거의 중요성 인식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해 자발적이고 능동적 선거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탐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가치 분석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가치와 능동적 참여 태도는 실제적인 선거 참여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선거 참여 경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알고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 중심 선거교육은 사회과의 선거 관련 단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경윤(2017)은 활동형·참여형 선거교육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사회과 선거교육이 보다 실질적인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으며(이경윤, 2017: 596),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의호(2018)는 모의선거 수업이 비판적 민주시민성(CDC: Critical Democratic Citizenship)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실험연구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선거에 대한 이해, 정치효능감, 선거 참여 의지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조의호, 2018: 144; 송성민 외, 2020: 70에서 재인용).

둘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정치교육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김명정·송성민(2014), 서현진(2015), 송성민 외(2020) 등을 들 수 있다. 김명정과 송성민(2014)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선거교육 내용을 분석하면서 선거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학습목표도 과도하게 지식 전달에 치중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명정·송성민, 2014: 221).

선거교육이 지식 위주로 경도되었다는 지적은 서현진(2012, 2015)의 두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서현진(2015)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 및 <법과 정치> 교과서의 활동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 참여 관련 비중이 적고 내용 구성에서도 정치 현상과 같은 역동적 과정을 담아내기보다 이론과 제도 위주임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활동과 사고력을 담보해야 할 활동자료에서조차 본문 내용에 대한 지식 보충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밝혀냈다(서현진, 2015: 137-138). 이보다 앞서 서현진(2012)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과목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선거교육 내용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

성을 습득하거나 정치참여 능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서현진, 2012: 133-134; 송성민 외, 2020: 69에서 재인용).

송성민 외(2020) 연구에서는 선거교육 실태를 종합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거교육 학습 내용은 지식 전수에 경도되어 있다. 선거 관련 개념, 용어 습득에 머물러 있다 보니, 선거 관련 기능과 태도 측면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지향점을 상기해 볼 때, 목표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셈이다. 둘째, 선거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이나 성찰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지식 위주의 내용 구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선거교육에 대한 도전적 교수-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교사들의 수업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쟁점 중심 수업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원인이 된다(김명정·송성민, 2014: 221; 박남수, 2016: 65; 배영민, 2018: 76-79; 서현진, 2012: 133-134; 서현진, 2015: 137-138; 송성민 외, 2020: 69-70에서 재인용).

(2) 국내 선거·정치교육 사례

강현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 단계의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내가 원하는 우리 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나의 공약 만들기’, ‘입후보자의 공약 평가하기’가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1차 실행 결과 연구자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수학습방법과 학습지의 형식 및 내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업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부분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학급 자치를 위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은 <표 8>과 같다.

<표 8> 학급 자치를 위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수업단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시간(분)	40	40~80	40
주요 학습내용	자기가 원하는 우리 반의 모습 적기	모둠별로 의견 모으기	선거 공약 제시하기 선거 직전 청문회 하기 반장 선거 투표 참여
교수 학습활동	내가 원하는 우리 반의 모습 203가지를 포스트잇에 적고, 모둠별로 103순위 정하고 발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학급의 학생들이 바라는 우리 반의 모습 순위 정하기	개별 선거 공약 글쓰기 후 발표, 발표를 들으며 선거 지표 분석 학습지 해결하기, 선거 공약 글쓰기 자료 교실 게시 반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투표 참여하고 결과 발표하기 선거 전 반장 후보자 청문회 하기
교수기법	개별, 모둠별 발표와 토론 - 포 스트잇을 활용한 브레인 스토밍	강의법	개별 학습지 해결 개별 학습지 해결 강의법
교수 학습자료	포스트잇	-	학습지 ② - 선거 지표 분석 학습지 ③ - 의사결정 트리 학습지 투표용지

*출처: 강현미 외, 2014: 84

이지혜(2017)는 참여 중심 선거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참여 중심 선거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과 선거교육의 연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26).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급 임원 선거나 학급회의 등과 같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 및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45).

중학교의 경우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에서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 설명,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 이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조사,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 이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 조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81).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사회 과목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의 '정치과정과 참여' 단원에서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시민 참여의 의의와 유형 분석, 선거의 중요성 인식과 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바람직한 선거제도 방향 탐색 등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235).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 임원 선거가 실시되는 학기 초에 사회과 선거 관련 단원과 연계하여 선거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선거 참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간에 모의투표와 같은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선거교육이 연계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7: 11).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중심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자율활동의 자치활동 영역이다. 이 영역은 학급,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교육부, 2017: 23).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된 활동은 이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급 임원 선거, 전교 임원 선거와 같은 학교 선거를 자율활동 시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선거교육과 관련된 시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해외 동향과 사례

젊은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의 독일과 북미 지역의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선거·정치교육의 동향과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1) 독일

독일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 여러 주의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이해의 정신을 갖추고, 자유민주적 가치·태도를 갖추며, 정치적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연방주로는 대표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주를 들 수 있다. 이 주의 헌법은 제21조제2항에서 “모든 학교에서는 공동사회(Gemeinschaftskunde)가 정규교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확고하게 수립된 학교교육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허영식, 2020: 2).

독일에서는 주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용어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교육도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범주 안에서 포괄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선거·정치교육의 동향 및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⁵⁾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lpb)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새로운 교육계획’(lpb-bw, 2017/2018)이라는 표제 하에 사회과를 위한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업모형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사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제를 다룬다. 즉,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쟁점 사안을 주제화하면서 그 논쟁적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점은 학습자의 자주적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전략에 놓여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다원주의의 요구를 고려할 때, 국가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가는 사회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어떤 문제·질문과 관련하여 학교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시각과 관점을 선전해서는 안 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사회과 수업모형에 반영할 때 유의해야 할 가장 최고의 준칙은 관점의 다양성(diversity of perspectives) 혹은 다중관점(multiple perspective)이다. 즉, 학교와 수업의 장(場)에서 학습자는 관점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것을 연습하거나 습득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관점의 다양성을 결코 가치중립성 혹은 가치상대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비평적으로 다루는 일은 수업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세계관적·종교적 근본주의나 다른 교조주의적이고 편협한 가치설정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lpb-bw, 2017: 3-4; 허영식, 2019b: 99-100).

여기서 소개하는 수업모형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교수학습원칙(사례학습, 논쟁점 반영, 문제지향, 학습자 지향, 시사성 지향, 활동지향의 6가지)을 고려하면서 개발되었다. 이 여섯 가지 원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이 지닌 함축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5) 독일 선거·정치교육의 동향과 사례는 허영식(2019, 2020)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9>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원칙

사례 학습	선택한 사례는 사회정치현상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각 문제의 상태와 갈등을 비평적으로 다루며, 서로 다른 수준에서 역량을 갖추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갈등의 심층적인 구조에 대한 통찰을 습득하게 된다.
논쟁점 반영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수업에서 다룰 때에는 다중관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한다. 이때 각 관점에 대한 판단 및 평가와 그 기준을 파악하는 일이 역량강화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문제 지향	수업에서 학습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으며, 이때 서로 다른 행위의 대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학습자 지향	사례학습의 틀 속에서 선택한 사태는 학습자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지향을 두어야 하며, 또한 언제나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先)개념에 지향을 두어야 한다. 사회과 학과 관련된 교과수업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핵심적인 지향이 되어야 한다.
시사성 지향	학습대상(내용과 주제)의 시사성에 대한 지향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 시사적인 사건(사태)이 지닌 객관적인 의미와 중요성, 일반성과 미래를 위해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체제적 수준에서의 문제제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활동 지향	학교의 맥락에서는 대개 현실적인 정치행위보다는 모의적인 것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문제에 지향을 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체계적으로 수업에 통합해야 한다. 즉, 가능하면 민주적인 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lpb-bw, 2017: 4; 허영식, 2019: 10

교과교육의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수준에서 민주적 행위역량의 함양과 신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에 기초하고 지속가능한 학교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와 동시에 학습자 개개인을 위해 중요한 학습목표로 간주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적실성은 또한 간문화적 포용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공간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갈등해소문화를 보여주고, 참여에 입각하여 학습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pb-bw, 2017: 6; 허영식, 2019b: 101). 이를 정리하면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반영한 수업모형 주제의 사례(7-8학년)

① 학교에서의 휴대폰 이용 - 민주적인 교육과 학교
②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정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③ 정치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④ 국가는 에너지드링크의 구입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⑤ 빠른 유행과 느린 유행 - 청소년 소비자의 의사결정
⑥ 돈의 기능, 투자대상과 부채

*출처: lpb-bw, 2017: 1; 허영식, 2019: 102

<표 11>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반영한 수업모형 주제의 사례(9-10학급)

① 젊은이의 정치참여가 위기에 놓여 있는가?
②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③ 대연정은 민주주의에 대해 독으로 작용하는가?
④ 국가는 임금책정에 개입해야 하는가?
⑤ 변동과정에 놓여 있는 상점 - 상실상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⑥ 국가부채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출처: lpb-bw, 2017: 1; 허영식, 2019: 102

위의 표에서 열거한 수업모형의 주제목록 중 ‘정치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수업개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 주제의 수업 개요와 관련하여, 형법적 조치와 교육적 조치를 비교하는 논쟁적 토론과 여기서 작용하는 판단기준을 예시적으로 도식화한 그림을 첨부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2> 주제 ‘정치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수업개요

단계	내용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1. 계획시간 주제(정치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개요	-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 - 세 가지 분석단계: (1) 현황파악 (2) 가능한 대안 (3) 정책과 조치	- 개인적 수준: 선(先)개념(네 가지 사례) - 정치적 수준: 정치 분야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포함한 콜라주 - 수업계열의 문제파악 - 기본질문에 기초하여 수업계열의 계획
2. 현황파악 청소년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숫자·데이터·사실)	- 형법상의 성년(수형연령), 소년형법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청소년 범죄의 원인 - 청소년 형사소송절차, 처벌의 목적	- 모둠퍼즐 - 개념적 기본지식의 파악 - 분석역량
3. 가능한 대안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의 비교	- 형법상의 전략 - 교육적 전략 - 형법상의 조치와 교육적 조치의 비교	- 법치국가의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전략에 관한 해설 및 비교
4. 정책과 조치	- 정치 혹은 입법자에 대한 요구사항	판단기준에 의거한 학습활동 - 토크쇼: 다중관점을 고려한 판단 - 말풍선: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에 입각한 판단 - 판단역량 - 추상적인 일반화 도출

*출처: lpb-bw, 2017: 37; 허영식, 2019: 103

<표 13> 수업개요와 관련된 논쟁적 토론과 판단기준 예시

가능한 조치			
형법적 조치 - 형법상의 성년 연령 하향 - 교화캠프 -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조정) - 더 엄격한 처벌 - 소년법정 등	⇐ 논쟁적 토론 ⇐	교육적 조치 - 예방조치를 위한 예산 증액 - 청소년정을 위해 더 많은 인적자원 확보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원 확충 등	
↑ 판단기준			
안전	효과성	지속가능성	정의

*출처: lpb-bw, 2017: 37; 허영식, 2019: 103

(2) 미국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무관심이 주로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 흥미 부족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반면 미국은 정치체도와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차원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98년 미국에서 행해진 국가교육성취도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결과에서는 18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세대가 앞선 세대들에 비해 정치적 지식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utkus et al, 1999), 1999년 주정부장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NASS) 보고서에서는 미국 청년들의 정치적 무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하여 “시민성에, 민주정치 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NASS, 1999; 곽한영, 2017: 10에서 재인용). 하이만과 시슬리(Hyman & Sheatsley) 같은 학자는 미국 시민들의 정치적 지식 수준을 ‘심각하고 만성적인 무지(hard core of chronic Know-Nothings)’라고 칭한다(Junn, 1998: 5; 곽한영, 2017: 10에서 재인용).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여서 이들의 국가적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로 투표제도가 복잡하다는 점도 체계적인 선거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인종적 소수자 그룹과 이민자 가족들은 미국 정치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고국과 현재 살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부가 이민자 및 소수자 집단을 동등하게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 상원과 하원의 특징, 주마다 각기 다른 선거제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투표 전에 미리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주마다 다른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방식, 여기서 일정 수 이상의 선거인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역시 주마다 선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도 코커스나 오픈 프라이머리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동원되는 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정치의 독특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당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의 개인적 프로필을 바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

는데 많은 학생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가족의 선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Journell, 2011: 234). 또한 미국은 영토가 매우 넓다보니 선거캠페인 기간도 길고 캠페인을 위해 후보자들이 돌아다니는 동선도 복잡한 편인데 이러한 선거운동 캠페인의 방식과 루트에 대한 내용들도 선거교육에서 주요한 소재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곽한영, 2017: 10-11)

선거교육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요소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스와 러플린(Hass & Laughlin)이 전미사회과교사협회(NCSS)의 교사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제시한 선거교육의 내용들이다(Hass & Laughlin, 2002: 29-30; 곽한영, 2017: 11에서 재인용).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미국 선거교육의 내용 예시

선거교육의 내용요소	선거인단의 역할, 미디어의 역할, 투표방법, 정당의 역할, 선거광고, 후보자 지명절차, 개표방송, 이익단체의 역할, 여론조사의 역할, 정책 쟁점, 국제정세, 주별 선거법, 주별 투표제도
선거교육의 수업자료	전국 TV뉴스, 지역 단위 신문, 시사잡지, 후보 토론회, 정당 홈페이지, 공영방송, 전국 단위 신문, 국정방송, 여성유권자연맹, 라디오, 심층분석자료, 이익단체, 국제언론보도

*출처: 곽한영, 2017: 12

학생을 통해 부모의 선거참여까지 높이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크게 성공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이 ‘투표하는 아이들’(Kids Voting USA, KV) 프로그램이다.⁶⁾ 아리조나 변호사협회에서 처음 계획되어 6년 간의 실험과 매뉴얼 개발을 통해 199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선거 직전인 가을 학기에 6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투표방법과 선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을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지를 높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26년 간 꾸준히 시행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총 45개 주에서 참여했으며 1994년의 경우 약 230만 명이 참여했고 2016년 현재 29개 주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K-12의 각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의투표 과정을 진행하며, 수업 과정에서 가족들을 참여시켜서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교사 재교육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섯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Kids Voting, 2016).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의 선거참여율이 다른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그 외에도 학생들이 뉴스에 더 관심을 갖고, 가족과 친구들과 공공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빈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Simon & Merrill, 1998:29).

청소년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등장했다. 선거기간동안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음악케이블방송인 MTV에서 지속적인 투표장려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보다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는 ‘Rock the Vote’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90년 음반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6) 미국의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곽한영(2017)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중음악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거나 선거관련 자원봉사활동 등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온라인사이트(www.rockthevote.org)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면대면으로 만나 선거에 대해 배우고 함께 참여하는 'meetups' 프로그램(www.Meetup.com)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세계프로레슬링 협회(The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 WWE)에서 장래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투표 메어치기!(Smackdown Your Vote!)' 프로그램이나 힙합뮤지션들이 만든 'Hip-Hop Summit Action Network'의 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Donovan, 2004: 9).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역시 모의투표(mock election)다. 전통적인 방식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집대성하는 차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엔 교실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의투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되었던 '투표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히 부모님이 투표하러 가시도록 청소년들이 재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성인들의 투표소 한 칸에 청소년들의 모의투표소를 설치하여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모의투표를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이 여러가지 제도적 한계와 시간,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우회하기 위해 온라인 모의투표를 하는 방법들도 제시되었다. '청소년 리더십 계획'(Youth Leadership Initiatives, YLI)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국 단위의 모의투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2003년의 경우 67,0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Donovan, 2004: 8). 이와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에서 2015년 실시된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 프로그램에는 6,662개 학교에서 92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거교육 방법으로는 패트릭(Patrick, 1976: 370-372)의 후보 평정 카드 수업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패트릭은 후보자별로 평정카드를 만들어 Part A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Part B에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 어떠한지를 목록화하여 체크한 후 Part C에서 이를 종합평정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간의 평정을 비교하여 '비교평정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었다. CNN의 사이트는 이와 같은 비교평정 수업을 온라인으로 간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치의 특성 상 후보자에 대한 선택은 또한 양당정치에서 어떤 정당의 정책에 동의하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각 정당의 정치적 배경과 정책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프로필이나 도덕성만을 문제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판단능력 향상 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학생들은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방향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의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외부의 단체가 객관적 입장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하거나 각 정당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사이트가 '벤의 미국 정부 가이드'(Ben's Guide to the U.S. Government, bensguide.gpo.gov)다²⁾. 미연방기록보관소에서 만든 공식 사이트인 이곳에서는 정부의 구조, 기관의 구성과 역할, 선거제도 및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의 연령별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임이나 프로그램들도 담겨있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나 정부기구, 정당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도록 할때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이 사이트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민주당, 공화당의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정당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퀴즈를 던져서 이에 대한 대답을 종합하여 학생 본인의 입장이 어떤 정당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지 평정해보도록 하는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Journell, 2011: 237-238). 또한 양당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제3의 정당을 창당해보고 정당의 이름, 정강, 주요 정책, 슬로건이나 배너, 정책자료집 등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시도한 경우도 있다(Bardeen, 2008:30).

선거교육의 보다 심화된 형태로는 선거를 계기로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학생들이 깊이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토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선거제도와 참정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편견반대연합(Anti-Defamation League, ADL3))에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의 참정권을 보장한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민권법(Voting Rights Act) 통과 50주년을 기념하여 배포한 ‘참정권, 어제와 오늘’(Voting Rights Then and Now)는 참정권의 확대과정을 통해 참정권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선거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다(ADL, 2015). 이 수업에서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과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별도의 수업자료들을 통해 민권법의 의의를 인식하고 참정권이 민주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탐색해보는 한편, 현재 미국의 투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게 된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수업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보다 낮은 학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는 4-8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미들웹(Middle Web)에서 개발한 대통령 선거일 역사수업이 있다(Jody & Shara, 2016). 역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시된 이 수업안에서 특이한 점은 역사 수업과 선거교육을 결합시켰다는 것이다.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선거 시뮬레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역사 속에 이미 존재했던 대통령 후보들 중 한 사람이 되어 모의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역사적 배경과 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시의 역사와 사회상, 시대적 쟁점들을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선거 포스터나 연설문, 홍보자료들을 만들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 후 별다른 후속 수업과정이 없는 다른 시뮬레이션 수업과는 달리 이 수업은 투표 후 학생들의 선택과 실제 역사에서 당선된 사람을 비교해보고 어떤 후보가 왜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했는지 토론하는 과정이 수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역사를 통한 선거교육을 심도있게 시도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다.

토론수업을 통해 민주적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시카고 기본권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hicago),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스트리트 로(Street Law)에서 공동으로 만든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Deliberating in a Democracy) 프로그램에서도 선거 관련 이슈를 다룬 다양한 레슨 플랜들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최소투표연령’(Minimum Voting Age)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선거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투표연령제한의 기준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연령을 16세까지 낮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토론을 진행한 후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된 배경읽기자료, 워크시트, 오디오자료, 심화학습자료 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어서 교사가 상황에 따라 수업을 재구성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강제투표제가 필요한가의 문제(voting-Should voting be compulsory in

our democracy)를 다룬 레슨 플랜도 같은 형태로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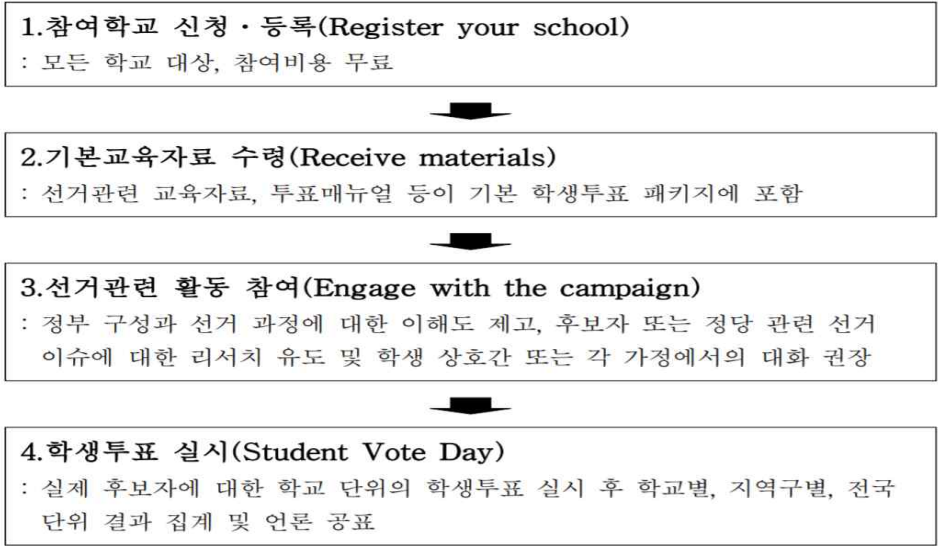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아이오와주에서 만들어진 ‘코커스101’(Caucus 101)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오와 주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0분, 60분, 90분짜리 수업들과 최대 7일차까지 구성된 수업계획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선거교육들과 비슷하지만 수업과정에서 SNS를 통한 학생들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수업커리큘럼 자체도 교사들 간의 SNS 토론을 통해 수정, 변형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확장된 형태의 가상투표(straw poll)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15년 대통령후보자당내경선과정은 물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이 실제 후보자들을 상대로 가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2016년의 경우 아이오와주 80개 카운티 280개 학교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부모님을 끌고 투표장에 나오는 수동적인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선호하는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사회적 반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6년의 가상투표도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학생들의 정당별 선택은 공화당 후보로는 실제로 후보로 선출되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로는 힐러리와 경쟁에서 밀렸던 버니 샌더스가 뽑혔다. 학생들의 최종 선택은 압도적으로 버니 샌더스 쪽이었는데 이는 청소년들과 선거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의 선택이 엇갈리는 부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케이블TV를 통한 교육’(Cable in the Classroom)에서 만든 ‘eLECTIONS:Your Adventure in Politics’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선거운동과 미국의 독특한 대의원제도에 대해 인터넷 기반의 게임을 통해 학습하도록 만들어져서 큰 호응을 받았다(Moore et al, 2014)⁴⁾. 최근에는 웹기반 게임을 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시뮬레이션 게임들도 등장하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미래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학생투표 프로그램(Student Vote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⁷⁾ 학생투표 프로그램(Student Vote program)은 각급 학교에서 선거연령(만 18세) 이하인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방선거, 주선거 등이 실시되는 실제 선거기간 동안 실제 지역구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는 시민단체 주도의 전국 단위 모의선거 프로그램(national parallel election)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 선거에서 투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투표습관(habit of voting)이 형성되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선거와 정치에 관한 내용을 상호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송수환, 2016: 4-5) 캐나다 학생투표 프로그램의 실시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7) 캐나다 학생투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송수환(2016)을 참고하였다.



[그림 1] 캐나다 학생투표 프로그램 실시 과정

*출처: 송수환(2016: 8)

2011년 연방선거에서 실시한 학생투표에 대한 Elections Canada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학생투표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에 의해 잘 인식되어 있으며 세 집단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총괄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보고서의 주요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정치와 선거과정에 대한 지식수준’ 제고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와 정치토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투표가 시민의 의무라는 인식’에 대해 강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상의 지표들은 이들의 향후 투표 참여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므로 학생투표 프로그램이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교사와 부모들의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부모와 교사에 관한 영향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학생투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시민교육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었다고 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아주 높아서 95%의 교사가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킨 부모의 경우, 60%의 부모가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부모 자신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투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정치에 관해 배우고 토론을 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부모 중 20%는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부모 자신의 투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투표 프로그램의 미래유권자 시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Elections Canada의 평가보고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연방선거 당시의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프

로그래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하고 있다. 학생투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체험적인 투표참여와 선거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투표참여가 쉽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본인에게 현재 선거권이 없지만 선거기간 동안 등장하는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장래의 투표 참여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본인과 주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투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인 투표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인식변화와 파급효과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어느 학생이 전하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정부를 운영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일과 같이 무거운 주제를 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생투표 프로그램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여 준다.”는 말은 어린 학생들도 투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뷰에 참가한 어느 교사에 의하면, “학생투표 프로그램은 학생의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학생들의 부모가 투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려 하는 경우,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생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거이슈 등에 관해 가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부모도 투표장에 가서 참여하게 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가 있다”고 하여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의 파급효과를 언급한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설명한 독일, 미국, 캐나다의 선거·정치교육 동향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선거·정치교육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한 선거·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포괄적 범주에서 체계적인 선거·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회과 교육을 통해 선거교육 및 정치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선거연령이 하향된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구체적인 선거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시적, 테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 선거교육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선거·정치교육이 지식 중심이 아닌 참여와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하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소통, 협력,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후보와 정당, 공약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내의 선거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여러 선거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좀더 다양한 참여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현실 정치의 정당, 후보, 공약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논쟁 및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선거 및 정치 문

제를 교실 수업에 가져올 때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교사들을 자기검열의 상황에 빠져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적 균형성”의 의미로 이해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 논의하되 특정 정파나 신념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밖 시민사회의 선거·정치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은 학교 교육에서 담지 못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총론 및 각론 교육과정에서 학교밖 자원의 연계에 대해 명시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선거·정치교육과 학교교육

1. 학교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

1) 현행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선거·정치교육

선거·정치교육은 대상과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교육이다. 더 크게 시민교육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육 대상 반드시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시민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자, 일정 연령이 되면 구체적인 공법상의 시민권도 획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과 같은 공적 시민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생한다.

그래도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주먹구구식의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교육 목표가 상이할 것이고 내용의 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래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사회화기관들이 있지만 학교만큼 명시적인 교육목표와 구체적인 내용 체계에 따라 시민교육을 담당할만한 곳은 없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도 시민교육을 중시한다.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에서는 물론, 도덕과도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교과를 가리지 않는 범교과 주제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정치교육으로 한정지으면 이것은 사회과교육에서 다루는 특정 내용 영역을 의미한다. 논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의 위계를 설정하면, 시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정치교육, 그리고 정치교육의 내용 요소로 선거교육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학교의 교과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개념 위계이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의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현행(201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속의 선거·정치교육

학교급 ⁸⁾	선거 성취기준	정치 성취기준 수	전체 성취기준 수
초등학교 사회 (3~4학년군)	없음	2개	24개
초등학교 사회 (5~6학년군)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5-04]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6사05-05]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력 분립 등)를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한다.	6개	48개
중학교 사회	[9사(일사)03-0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도출한다. [9사(일사)03-03]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체도를 정부	12개	36개 (일반사회)

	<p>형태(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p>[9사(일사)04-03]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조사한다.</p>		
고등학교 통합사회	없음	4개	29개
고등학교 정치와 법	<p>[12정법02-0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한다.</p> <p>[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p> <p>[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p> <p>[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p> <p>[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p> <p>[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p>	12개	18개

선거는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처음 다루어진다.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선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선거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로써 선거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를 결정(대표)하는 다양한 원리(방법)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공직선거 제도를 학습하기 전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의 하나로 선거를 다룬다.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서는 성취기준 하나로 선거를 다룬다. 하나의 성취기준이 중단원에 대응하는 학습량으로 볼 수 있고, 정치 성취기준에 비교해보면 대략 8.3%(12개 중 1개)의 내용 비중을 차지한다. 선거의 원칙,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제와 대표결정 방식으로 심화되는 계열성 원리에 따라 학습 요소가 배치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정치와 법’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는 선거교육의 전부이다. 다시 말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가 무엇인지, 공정 선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정도가 보통의 초·중등교육 이수자가 배운 선거교육이라는 의미이다.

8) 초등학교 사회과는 일반사회·지리·역사 통합적인 성취기준이 있으므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성취기준을 집계하였다. 반면, 중학교는 일반사회와 지리가 명확히 나뉘기 때문에 일반사회만의 성취기준을 집계하였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다시 일반사회·지리·역사·윤리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성취기준을 집계하였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서는 헌법 단원과 국제 단원이 정치·법 통합 단원이라 정치 성취기준에 모두 산입하였다.

2) 역대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정치교육 내용 분석⁹⁾

본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거교육은 정치교육의 내용 요소이므로 여기에서는 선거가 정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정리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교육과정기별로 학교급 별로 정치교육만을 따로 구별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교적 일관된 관점으로 선거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과정 차수별 고등학교급의 선거 내용만 추려서 그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 고등학교 교과서는 <표 16>과 같다.

<표 16> 교육과정 차수별 분석대상 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차수	발행 년도 (검정 년도)	과목명	저자/출판사
교수요목	1949	고등공민 정치문제	유진오
제1차	1956	정치와 사회	유진오
제2차	1964	새 정치와 사회	한태연
제3차	1974	정치·경제	유진오 외
제4차	1988	사회Ⅱ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1993	정치·경제	한국교육개발원
제6차	1996	정치	한국교육개발원
제7차	2003	정치	법문사
2007/2009 개정	2012/2014	법과 정치	천재교육
2015 개정	2019	정치와 법	비상교육

교육과정기별 정치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차수별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정부와 선거 관련 헌법 조항을 표로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교육과정 차수별 정부와 선거 제도

기간	정부	선거 관련 헌법 조항		교육과정 차수
1948 ~ 1952	이승만 정부	헌법 (1호)	[의회]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행정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교수요목기 (1945~)
1952 ~ 1960		헌법 (2호) (3호)	[의회]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행정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1960 ~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	헌법 (4호) (5호)	[의회]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행정부]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교육과정 (1954~)
1963	박정희 정부	헌법	[의회]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	2차 교육과정

9) 본 절의 내용은 김명정·송성민(2021)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1972		(6호) (7호)	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1963~)
1972 ~ 1979		헌법 (8호)	[행정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의회]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1980 ~ 1987	전두환 정부	헌법 (9호)	[행정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의회]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3차 교육과정 (1973~)
				4차 교육과정 (1981~)
1988 ~ 현재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헌법 (10호)	[의회]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5차 교육과정 (1987~)
				6차 교육과정 (1992~) 7차 교육과정 (1997~)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1) 교수요목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적 배경 없이 기술하고 있는 선거의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을 교수요목기에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선거권의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강제 투표를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의무적 성질에 비추어 선거 때에는 아무쪼록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통선거 ... (중략) ... 초기의 각국 의회는 선거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선거권을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에 참가한다는 국민 자치의 이념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 때문에 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에 걸쳐 선거권을 재산, 기타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보통 선거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던 것인데,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르러 차차 열매를 맺게 되어, 현대 대다수의 나라는 보통선거 제도를 채용하게까지 된 것이다(전계서, 72)..

직접선거 원칙에 대해서는 입법위원의 반을 간접으로 선출한 것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옳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평등선거 원칙에 대해서는 단순히 모든 유권자가 한 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는 인구 수를 비등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밀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세력 있는 사람에게 표가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어 선거 원칙의 개념과 취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선거인 명부, 입후보, 선거위원회,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폐단, 선거 공영제의 필요성, 기표 방식, 개표, 당선 과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방 후 민주 공화국을 건국하는 시대적 열망이 교육에 투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70년 전 교과서에서 확인한 선거교육의 높은 내용 비중과 설명의 풍부함은 현행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부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2) 제1차 교육과정기

교수요목기의 특징인 선거교육 강조 경향을 이어받고 있다. <정치와 사회> 교과서에서는 공무원 임권, 공무원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의권(국민창안권), 헌법개정제안권 등 당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정당에 대한 학습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다당제를 군소 정당 난립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여 양당제를 지향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당 분립 제도가 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소당 분립이 심하면 국민의 여론도 복잡하게 갈릴 뿐 아니라, 국회에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기 힘들며, 정당의 분합 이산이 심해지면 국정이 혼란으로 빠지고 만다. …(중략)… 그러므로 정당 제도는 양대 정당 제도가 좋다 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양대 정당 제도의 국가인 것이다. 정치란 것은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취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양대 정당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도 중대한 대외 문제에 관하여서는 양당 협동 정책(Bipartisan policy)을 쓰는 것이다(전게서, 44-47).

선거의 원칙, 선거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선거인 명부, 선거위원회, 선거운동, 기표 방식, 개표, 당선자 확정 등)에 대해 교수요목기와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고, 독특한 점은 당시 양원제 개헌에 맞추어 선거구 관련 내용에서 참의원 선거구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내용의 기준점은 당시 선거제도의 이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선거구 내지 중 선거구 제도를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민의원과 참의원은 선거의 기초를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도 소선거구 제도를 쓴다면, 참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의원도 민의원 의원이나 비슷한 인물이 될 것임에 반하여,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는 대 선거구 또는 중 선거구 제도를 채용한다면, 민의원 의원에는 지방 주민과 밀접한 관계있는 인물이 많이 당선되고, 참의원 의원에는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인물이 많이 당선되어, 민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특색을 달리하는 의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양원제를 채택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전게서, 118-120).

(3) 제2차 교육과정기

이 시기 교과서의 선거교육은 좀 더 학문 체계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전

교육과정이 풍부한 사례와 종종 저자의 가치가 투영된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차 교육과정기부터는 확연히 건조한 문체로 바뀌었다. 그러한 특성 때문인지 전체 선거 내용도 줄어들었다. 예컨대 이전 교육과정에서 한 문단으로 설명하던 보통선거 원칙이 이 시기에는 단순한 문장으로 기술되고 있다.

보통 선거란 재산이나 교양에 관계없이, 요컨대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라면 누구든지 선거할 수 있게 하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전게서, 145-146).

그래도 2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처음으로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3페이지 분량으로 설명되고 있고 특히 비례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 난립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대표 결정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수대표제의 경우 정치학계에서는 이 용어보다는 중대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로 표현하는데, 제2차 교육과정기에 등장한 소수대표제라는 개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다수 선거제에 대립하는 것이 소수 대표제의 경우이다. 소수 대표제는 대선거구와 결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게 하는 경우로서, 얻은 표수에 따라서 당선인을 결정하게 하는 까닭에, 군소 정당도 그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중략)… 각 정당이 얻은 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게 하는 까닭에 군소 정당도 당선자를 내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후진 국가에 있어서는 물론 정치 수준이 높은 선진 국가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는 이 제도를 버리든가, 또는 이 제도에 다른 방법을 서로 섞어서 채용하고 있다(전게서, 148-150).

(4) 제3차 교육과정기

제3차 교육과정기 사회과의 특징이 국가주의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본격화로 규정되는데, 유신헌법 체제 하의 학교 선거교육은 분량의 대폭 축소와 무미건조한 내용 기술, 개념적 지식의 나열을 특징으로 한다. 대통령 간접 선거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술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 간접선거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과는 달리 무미건조한 문체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 회의(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세 가지 권한 가운데에, 첫째, 대통령을 이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과 …(중략)…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지 않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으로 선거한다(전게서, 75-76).

선거제도와 원칙,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축소되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된다 하여 내용이 소략화될 이유는 없으므로, 유신체제 하 국가의 교육관이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만 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부가적인 설명이 뒤따르던 많은 개념들이 사전적 정의에서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선거라 함은 제한 선거에 대하는 말로서,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가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중략)… 평등 선거라 함은 누구나 다 같이 한 표씩 투표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차등 선거에 반대되는 말이다(전게서, 131-132).

비례대표법: 사표를 없애고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는 근본 정신에서 연구 개발된

투표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미리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기준수를 정해두고 표를 이용해 주는 것이 그 특징인데...(전계서, 135).

(5) 제4차 교육과정기

선거교육 내용 축소의 극단을 보여준 시기라 할 수 있다. 개념 정의조차 생략된 단순 나열로 선거 원칙을 다루고 있다.

선거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가 그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선거의 기본 원칙 아래 보다 더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창안해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8: 84).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름만 바뀐 대통령 선거인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간접선거를 직접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거방식의 하나로 대등하게 기술하고 있기까지 하다. 심지어 선거의 원칙을 비례대표제나 직능대표제 같은 대표 결정 방식과 결부시켜 기술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다시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차이가 없다. 이 밖에도 전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나 직능 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전계서, 83-84).

(6) 제5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이 운영된 시기는 87년 헌법 이후이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시기는 제5공화국 시기라 선거교육, 포괄적으로 정치교육의 질적 전환이나 개선은 없고 제4차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줄어든 분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 간접선거의 시행 등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 시기에 도리어 공명선거가 강조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이므로 오늘날에는 선거 공영제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제도로,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선거를 불신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대표 원리가 올바르게 반영된 대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또, 후보자도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여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0: 74).

(7) 제6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은 제10호 헌법 개정(현행 헌법) 이후 첫 번째 교육과정이다. 정치과정과 참여 주체가 정치 교육과정의 핵심 단원으로 등장하였고, 정당과 이익집단 등 선거를 비롯한 시민 참여 방법과 주체들이 고루 다루어지고 있다. 선거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변천을 소개하면서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길었던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면서 과거 선거제도의 공과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로 우리 나라는 여러 차례의 선거를 경험했다. 대통령 선거 제도는 1948년 초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한 이래, 2대 대통령에서 7대 대통령까지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8대 대통령부터 12대 대통령까지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및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그리고 13대부터는 다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국회 의원 선거 제도는 제헌 국회에서부터 8대까지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고, 9대부터 12대까지는 1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으며, 13대 국회부터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비례 대표제는 1963년에 전국구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구 의석을 정당 득표 수 비례로 배분하였으나, 9대, 10대 국회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하였으며, 11대에서부터 14대 국회까지는 정당의 의석 수 비례로 바뀌었고, 1994년에 확정된 선거법에서는 다시 정당의 득표 수 비례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각종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은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149-150).

종합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기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 부실하게 가르쳤던 선거교육이 정상화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8) 제7차 교육과정기

직전 교육과정에 이어 시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선거교육이 더 강조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필요성, 선거의 기능, 우리나라의 다양한 선거 종류, 선거의 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선거 공영제, 선거 문화와 공명선거 등이 내용 요소로 모두 들어왔고, 덧붙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학습자 중심 교육, 사고와 탐구의 강조 등이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 다양한 자료와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으로 인하여 1종 교과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 출판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된 점도 교과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2007/2009 개정 교육과정기

선거교육의 내용 요소는 직전 교육과정기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법과 합쳐진 교과서 구성으로 인하여 내용 분량 자체가 감축되었다. 선거 관련 교과서 분량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금 대폭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7차 교과서에서 14페이지 분량에 달하던 선거교육 내용이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5페이지 분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선거의 기능과 의의, 선거의 원칙,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선거 공영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 요소의 종류 자체는 기존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분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개념과 설명을 최소화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선거교육의 위축은 ‘법과 사회’와 ‘정치’ 두 과목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두 과목 모두 분량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모학문에 기반하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통합이 초래하는 문제점이 극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교과서 전체 쪽수가 제7차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단원들의 분량도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정부는 학습량 감축을 내세우며 교과서 전체 분량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선거교육 축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0)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이전 교육과정기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다루는 대단원 속에 선거는 한 개 중단원을 독립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 경향은 7차 교육과정기 이후로 굳어진 내용 체계이다.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단순 다수제와 절대 다수제로 구분하고, 절대 다수제에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소개되는 등 세계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표 결정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요구가 엄격해지면서 정치 교과서의 진술과 내용이 건조하고 중립적인 성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여전히 선거교육이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에 경도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엄격한 교육 중립성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 학교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의 특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선거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김명정, 2021: 8-10). 첫째, 학교급에 따른 계열성을 중시하는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이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선거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교육의 내용 요소로는 선거의 기초와 의미, 선거권과 참정권, 선거의 기본 원칙, 선거의 유형, 선거구제, 대표자 선출 방식,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 공정 선거 등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대체로 확장 및 심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에서는 선거·정치교육이 내용 요소에서 누락되어 있고, <정치와 법>의 선택률을 고려할 때, 중학교 단계의 선거교육이 유권자가 되기 전 마지막 선거교육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둘째, 지식 중심 교육이다. 선거와 관련된 개념, 이론,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나 태도 측면의 학습 목표가 빈약하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인해 가치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위축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고, 쟁점 중심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선거교육의 지식 경도화를 부추길 수 있다.

셋째, 선거제도 교육이 부실하다. 예비 유권자로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가 학교 교육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교육의 최소한은 현행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경우 선거법 개정이 최근의 일이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조차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념을 다루지 않았다. 현행 선거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내용 학습은 나아가 다른 선거제도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생각해 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학교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의 공직선거제도가 비례성의 미흡, 사표의 과다 발생과 같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정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속 선거·정치교육

학교의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과 교육과정 속 선거·정치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비교과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차조일 외(2020)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와, 우리나라의 모의선거교육 관련 이슈 및 제도를 고찰한 정필운 외(2020)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¹⁰⁾

선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과교육 내용과 시수의 부족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 선거 관련 내용들은 그 비중이 정치교육 내용 체계 속에서 일부 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차조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선거교육만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초·중·고 학교급별로 개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선거교육 6대 영역 및 내용 요소

대영역	내용 요소	하위 요소 및 관련 사례
유권자와 대표자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직접 민주제와 대의제 등),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 대표와 선거, 선거의 의의
	대표자 선정 방식	세습, 추천, 순번, 선거 등의 방식
	선거권 부여와 선거의 4대 원칙	제한 선거와 보통 선거, 선거의 4대 원칙, 선거권 부여 연령
선거제도와 우리나라의 선거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당선자 결정방식	다수제(단순다수제/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비례제,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선거와 정당	민주주의 선거와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정당의 의의와 역할
	정치 층원과 정당 공천	후보자 공천 등
	정당의 공약 개발	공약 개발 매커니즘, 정당 연구소
	정당의 선거 운동	TV 광고, 후보자 유세 활동 지원
	정당의 유권자 교육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선거 운동의 의의	선거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선거 운동과 공약	
	다양한 선거 운동 방식	
	선거관리 주체	선거 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선거와 미디어	의사소통과 미디어	유권자와 정당 및 후보자와의 의사소통, 미디어의 의의와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등
	여론조사의 의의와 기능	
	선거보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투표 및 개표	선거와 투표	선거와 투표의 관계, 투표의 의의, 투표의 기준 등
	다양한 투표 참여 유도 방법	의무투표제 등
	투표 체험하기	
	투표 기간과 시간	
	다양한 투표 방식	

총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된 선거교육 내용 체계는 다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적

10) 본 절의 내용은 차조일 외(2020)의 연구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합한 주제를 추려내고 1~2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학교급별 주제 구성

학교급	대영역	학습 주제
초등학교	유권자와 대표자	대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해요
	선거와 미디어	모의 선거를 준비해요
	투표 및 개표	모의 선거를 실시해요
중학교	유권자와 대표자	유권자와 대표자
	선거제도와 우리나라의 선거	선거제도와 우리나라의 선거
	선거와 정당	선거와 정당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선거와 미디어	선거와 미디어
	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
고등학교	유권자와 대표자	청소년의 참정권
	선거제도와 우리나라의 선거	선거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선거와 정당	정책 선거의 중요성 이해하기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선거와 미디어	가짜 뉴스와 공정성 문제
	투표 및 개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관한 찬반 토론

이렇게 개발된 선거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비교과 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확장한 것이므로 실제 수업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가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차시의 주제들이 선거교육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교육과정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학습량의 적정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과정에 담도록 노력하되, 담지 못한 내용들은 별도의 교수·학습자료로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모의선거교육¹¹⁾

선거교육의 목적이 공직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면, 모의선거는 선거교육의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의선거의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는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와 유사한 방식의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그 이유는 모의선거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의선거를 일종의 여론조사로 간주했으며, 실제 투표 마감 후에 모의선거 결과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저

11) 본 절의 내용은 정필운 외(2020), 김명정(2021)의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조화한 것임을 밝힌다.

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의선거 실시 후 참여 학생 2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모의선거의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준비했던 모의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유사한 모의선거에 대해 선거관위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모의선거교육의 주체가 민간단체냐, 교육청이냐라는 점이다.

교육청과 학교, 즉, 모의선거의 시행 주체에 교육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교육기본법¹³⁾과 공직선거법¹⁴⁾의 교육 중립성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교육이 목적이고, 모의선거 시행 전 과정에서 교사가 공정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중립성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18세 유권자는 선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교육 공간에서 교사에게는 중립성 유지 의무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자의 부조리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 12) “미래에 선거권이 생기면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 ☞ 94.3%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모의투표였지만 실제 선거처럼 진지하게 투표하였다.” ☞ 92%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모의투표 전에 했던 수업이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87.1%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 88.3%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모의선거 과정에서 사회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85.2%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모의선거를 해보니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 선거에도 관심이 생겼다.” ☞ 89.7%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 89%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13)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4)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 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 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학생이 대상이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시민단체에 모의선거를 위탁하는 것 역시 ‘교육청이 관여한 모의선거교육은 어떤 방식이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YMCA 경남협의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모의선거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단체가 교원의 참여 없이 학생 모집을 스스로 하는 등 자체 계획과 경비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학생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두 건만 보아도, 학교에서의 모의선거교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선결 조건인 셈이다. 다행히 학교의 모의선거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다수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유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법률	개정 목적	주요 의견
공직선거법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민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사전신고, 선거일전 60일 이후 투표용지 유사모형 사용 금지,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함. • (개정)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결과 공표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해야 하며, 교육청·교원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후원 포함)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도 관련 조항(§9, §85, §86)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목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목적의 여론조사로 보아 선거여론조사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를 제한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 • (개정)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허용함. • (목적)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선거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음.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개정)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만,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목적)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하향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3. 시사점

학교의 선거·정치교육은 장점이 뚜렷한 만큼 한계 또한 분명하다. 학교의 장점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정치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유권자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가며 선거를 공부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학교는 선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정치 교육과정은 사회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이 응축된 산물이다. 따라서 학교가 제공하는 선거·정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정치 공동체의 주체인 시민에게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선거·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봉착하게 되는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교육과정의 형식적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정치교육의 내용 체계(민주주의의 원리, 시민 참여의 다양한 방법, 그 중 하나로서 대의제를 작동시키는 선거, 정부 형태, 국제 정치 등) 속에 선거교육이 위치해야 하고 그 분량 역시 제한적이다. 그런데 중학교까지 정치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배우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학생의 선택 영역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선거제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때 배우는 선거의 원칙 정도가 지식의 전부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형식적 특성, 제한된 시수와 편제 운영 등에 기인하는 한계로, 지식 중심 교육이라는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교사가 개념과 이론을 풀어서 설명하는 전통적 교수법은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선거교육의 목적이 선거에 대해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와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이 거기에까지 미치는 지는 자신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은 수업 외에 다른 교육적 경험이 부가적으로 제공될 때 기대할 수 있는 데, 교육과정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학교 수업을 통한 부가적 교육 경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선거·정치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제한된 시수와 교육과정 체계를 극복하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선거·정치교육이 중요하다 하여 다른 내용, 과목, 영역의 비중을 줄이기는 어렵다. 다만, 제한된 학습 여건이나 선거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 수요는 꾸준히 많은데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한 시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면 이것은 교육과정 총론 차원에서 시수 배분이나, 교과 성격(필수 또는 선택)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전제 조건으로 풍부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현장 적용은 필수적이다.

선거·정치교육이 실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실제 선거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실제 선거 참여는 오직 18세 이상의 유권자 학생에게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교육방법으로 모의선거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학교가 관여하는 모의 선거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고민과 학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고민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양자 모두 필요한 교육적 고민이다. 우리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정치 참여 경험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전자에 옥죄어 있어서 후자를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모의선거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지침(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V. 중학생용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선거·정치교육의 내용 체계

2021년 7월 10일과 13일에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 체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내용 체계는 2020년 차조일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비해 선거 뿐 아니라 정치에 관한 내용의 비중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 체계의 전반적인 초점과 비중은 선거에 맞추면서도 주제 I 과 주제 II의 일부 내용이 정치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1) 내용체계표 (초안)

<표 21> 내용체계표 (초안)

주제		차시		세부 내용
I	정치와 민주주의	1	우리 생활과 정치	- 일상생활 속의 정치 (학생회 선거, 학급 내 의사결정 등) - 정치의 다양한 의미와 양상 (좁은, 넓은, 제도, 일상 등)
		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의미와 유형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II	시민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과 시민의 역할	-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 기본적인 정치 참여로서의 선거의 의의
		2	청소년의 정치 참여	- 선거에 나타난 청소년 관련 공약 -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활동
III	민주 정치와 선거	1	선거권의 확대	- 선거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 국내외 보통선거권 확대 과정 (계급, 성, 인종, 연령 등)
		2	선거를 통한 정부의 구성	- 정부 형태와 선거의 종류 - 선거를 통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구성
IV	선거와 정당	1	정당과 선거의 관계	- 정당이 선거에서 담당하는 역할 - 우리나라 정당,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2	정당 공약 평가와 개발	- 정당 공약에 대한 평가 - 모의 정당, 모의 공약 개발
V	선거와 미디어	1	미디어와 선거의 관계	- 선거와 여론의 관계 - 미디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사례 (선거 광고, TV 토론 등)
		2	미디어 비평과 제작	- 선거·정치 관련 미디어 비평 - 선거·정치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VI	선거 제도와 선거 관리	1	국내외 선거 제도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
		2	선거 관리와 투·개표	-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구 - 투·개표의 절차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2) 내용체계표 (최종)

연구진이 개발한 내용체계표 초안은 전문가 3인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되었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초안 기준으로 주제 II와 주제 III이 차별성 확대, 주제 VI의 분리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연구진은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 의견을 기초로 수정안을 작성하였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 내용체계표에 따라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었다.

<표 22> 내용체계표 (최종)

주제		차시		세부 내용 및 활동
I	정치와 민주주의	1	우리 생활과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정치 - 정치의 다양한 의미와 양상 (좁은, 넓은, 제도, 일상 등) - 청소년의 생활 속에서 정치의 의미, 사례 찾아보기 (학생회 선거, 학급 내 의사결정 등)
		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 -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II	시민과 정치 참여	3	정치 참여와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서의 선거의 의미 - 국내외 보통선거권 확대 과정 탐구 (계급, 성, 인종, 연령 등)
		4	청소년의 정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정치 참여의 의미, 중요성, 사례 (온라인, 선거권 연령 인하 등) - 청소년으로서 정치 참여 실천하기 (학교 자치, 지역사회 참여 등)
III	선거 제도	5	우리나라 선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와 정부 형태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탐구
		6	다양한 선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 - 선거 제도의 특징 비교하기 - 대안적인 선거 제도 제안하기
IV	선거와 정당	7	정당과 선거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선거에서 담당하는 역할 - 우리나라 정당,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비교
		8	정당 공약 평가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공약에 대한 평가 - 모의 정당, 모의 공약 개발 (청소년 관련 공약 포함)
V	선거와 미디어	9	미디어와 선거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와 여론의 관계 - 미디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사례 (선거 광고, TV 토론 등)
		10	미디어 비평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정치 관련 미디어 비평 - 선거·정치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VI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11	선거 운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운동의 다양한 방법과 양상 -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12	선거 관리와 투·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기구 - 투·개표 절차 - 투표율의 변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

2.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와 예시

1) 지도서 체제

<표 23> 지도서 구성과 분량

구성		내용	쪽수
1. 차시명		- 문장이나 어구 형태(질문 형태도 가능)로 구성하는 방안 고려 (예: 정치는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 삶 깊은 곳에 있는 정치 등)	1
1) 차시 개요		- 차시 소개글 (차시 주제 선정 이유, 중요성, 기대 효과 등) - 이 차시와 관련되는 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 활용 방안 제안 (창체, 자유학년제, 교과 수업 보완 등) - 수업의 팁, 수업 시 유의할 점 - (온라인 수업 시 고려할 점)	
2) 교수학습 과정안		- 수업자가 중학교 상황에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쪽 정도로 좀 더 자세하게 제시 - 수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 예시, 발언 예시, 활동 안내 예시, 특정 활동이나 자료 활용 시 주의 사항, 활동지 일부 축소해서 제시 등	3
3)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생각 열기	- 도입용: 차시와 관련하여 흥미 유발	1
	생각 키우기	- 전개용 (활동 1): 차시 관련 기본 활동	1
	생각 넓히기	- 전개용 (활동 2): 차시 관련 심화 활동	1
	생각 다지기	- 정리용 - 쉽고 재미있는 퀴즈 3개 정도 (선다형, OX, 빈칸 넣기 등) - 간단한 자기 평가	1
	학생용 읽기 자료	- 전개용 또는 자습용 - 텍스트 + 통계치, 도표, 사진, 삽화 등	1
	교사용 참고 자료	- 텍스트, 이미지, 도서, 영화, 사이트 등 제시	1
4) 참고 문헌 (사이트 등)		- 자료 개발 중에 참고한 문헌 자료 목록	0.5
합계 쪽수			10.5

2) 지도서 예시: 1주제 1단원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주제 1. 정치와 민주주의

1차시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차시 소개	<p>1차시 ‘우리 생활과 정치’는 정치가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정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본 차시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이해한 뒤, 자신의 정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둠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학급 토의의 형태로 학급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을 통해 참여적 시민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수업에서 ‘정치의 의미’,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정치 주체’, ‘시민 참여’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활동으로 활용하거나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p> <p>[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수업 안내 및 동기유발 - 정치일까? 아닐까?
	<p>활동 1 <생각 키우기></p>	정치 경험 나누기 게임
	<p>활동 2 <생각 넓히기></p>	학급 의사결정 활동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활동이며,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스스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 [활동 1]을 할 때, 경쟁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른 모둠과의 의견 공유에 초점을 두고, 경청과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수업 전에 미리 모둠을 정하고(4~6명이 1모둠) 자리 배치를 하여 수업을 준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입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할 때에는 멘티미터(Mentimeter)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체 답을 pdf로 다운받아 함께 보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활동 2]를 할 때는 패들렛(Padlet)을 활용하여 토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아래 자신의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우리 생활과 정치
교수·학습 목표	1.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치 활동을 통해 학습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도입	<p>* 생각열기: 정치일까? 아닐까?</p> <p>- 국회 본회의 사진과 국회의원선거 참여 사진을 제시하고, 두 장의 사진을 보고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p> <p>- 3개의 사례 카드를 제시하고,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한다.</p>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진을 보고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치일까요? -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이 중에서 일부만일 수도 있고, 전부 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두 사진은 ‘국가’와 관련한 일을 하는 활동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라면, 사례 카드에 제시된 것은 모든 사회 집단과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카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도 정치임을 설명한다. <p>● 활동지 질문</p> <p>(1) 다음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p> <p>(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p> </div> <p>* 수업안내</p> <p>- [활동 1] 모둠활동으로 정치 경험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게임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학급활동으로 우리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의를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p> <p>* [모둠활동] 정치 경험 나누기 게임 -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p> <p>- 정치 경험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앞의 모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p>	5	PPT 도입 자료

	<p>* [심화활동] 정치 경험 분류해보기 - 모둠별로 논의한 정치 경험을 비슷한 종류(또는 영역)별로 묶어 보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예시)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온라인 등</p>		
<p>활동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지금부터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정치 경험을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의 모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치 경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를 떠올려 보세요. -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것도 가능합니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승리 모둠을 정하지 않고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 모둠당 2개의 경험을 발표한 다음에는 게임을 종료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발표한 정치 경험을 비슷한 종류별로 묶어보는 심화활동을 할 수 있다. -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다양한 경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정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정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활동지 질문 (1) 모둠별로 정치 경험을 논의해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가능합니다. (2) [심화]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 뒤, 비슷한 경험끼리 분류해 봅시다.</p>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학급활동] 우리 생활 속 정치 - 학급 의사결정 활동 - 사모아 토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급 안건을 정하여 의사결정 활동을 한다. - 학급 안건은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만들 수 있다. - 학급 토의 이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모둠의 생각을 정한다. - 모둠별로 대표 토의자가 안쪽 원에 앉고,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 중에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의사결정 주제(예시)> 학급 규칙 정하기, 청소 당번 정하기, 급훈 정하기, 온라인 수업 규칙 정하기 등</p> </div>	<p>20</p>	<p>PPT 활동 자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아 토의(Samoan Circle)란 남태평양 사모아 원주민들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대화법에서 유래한 방식입니다. - 먼저, 모듬별 토의를 통해 모듬의 의견을 정해 주세요. -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들은 대표 토의자의 발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모듬 의견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토의 결과에 대해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만족했나요?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안건으로 토의할 수도 있다. - 사모아 토의 방식을 설명하고, 청중들이 경청을 해야 적절한 때에 대표 토의자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모듬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 활동지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급 안건을 선정합니다. (2) 모듬별 토의를 통해, 모듬의 의견을 정합니다. (3) 모듬별로 대표 토의자를 선정하고, 대표 토의자들은 안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다른 모듬원들은 바깥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4) 대표 토의자들이 학급 안건에 대해 토의합니다. 바깥쪽 원에 앉은 모듬원(참여자)들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학급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가 끝난 후, 토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본다.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차시 활동을 정리한다. 	5	PPT

정치일까? 아닐까?

(1) 다음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사진 1] 국회 본회의



[사진 2] 국회의원선거 참여



[출처] 비상교육 사회① 교과서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 정치, 권력

(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1] 마을회관의 에어컨 교체

□□동 마을회관에서는 20년이 넘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고 싶지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 2] 학생회 부서 통폐합 갈등

OO중학교 학생회는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행사부, 봉사부, 예술부, 복지부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회 회의에서 행사부와 예술부의 활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술부를 없애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되었다. 예술부 부원들은 자신들의 부서를 없앨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학생회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예술부를 없앨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사례 3] 시민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소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민제안을 받은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심사, 토론과 시민투표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태를 색깔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 경험 나누기]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1) 모둠별로 정치 경험을 논의해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경험 1	학급 친구들이	학급에서	학급 회의에 참여했다	지난 주에	학급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경험 2	대통령 후보자가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경험 3					
경험 4					
경험 5					

(2) [심화]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 뒤, 비슷한 경험끼리 분류해 봅시다.

* 분류 예시 :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온라인 등

[우리 생활 속 정치] 학급 의사결정 활동

* 활동 방법

- (1)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급 안건을 선정합니다.
- (2) 모듈별 토의를 통해, 모듈의 의견을 정합니다.
- (3) 모듈별 대표 토의자가 안쪽 원을 만들어 앉고, 뒤쪽으로 모듈원들이 바깥쪽 원을 만들어 둥글게 앉습니다.
- (4) 대표 토의자들이 학급 안건에 대해 토의합니다. 바깥쪽 원에 앉은 모듈원(참여자)들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 학급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Tip. 학급 안건은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학급 안건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규칙(단체 채팅방 사용) 정하기 - 청소 당번 정하기 - 급훈 정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사모아 토의의 형태></p> <p style="text-align: center;">*모듈별 대표토의자(1명) 뒤쪽으로 모듈원들(3~4명)이 둥글게 앉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td>토의자</td><td>토의자</td><td>토의자</td><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td>토의자</td><td></td><td>토의자</td><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td>토의자</td><td>토의자</td><td>토의자</td><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td>참여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출처]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p>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우리 학급이 선정한 안건	우리 학급 단체 채팅방 사용 규칙 정하기
우리 모듈이 협의한 의견	욕을 하지 맙시다.
토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을 하지 않는다. - 동일한 채팅으로 도배하지 않는다. - 사용 규칙을 어길 경우 학급 청소를 한다.

* 토의가 끝난 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 토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2) 토의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요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이 학생회 공약 실천 사업 및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학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중학교는 ‘온라인 학습 가이드’ 및 ‘후배를 위한 QnA’ 영상을 제작하여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B중학교는 전교생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내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C중학교는 급식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교생 투표를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켰다. 학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D중학교는 ‘소중하게 함께할고양’ 이라는 동물 사진 공모전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동물 보호 운동을 벌였으며, E고등학교는 코로나19 극복 뱃지 공모전 및 UCC 공모전을, F고등학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환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0 학생참여예산 실천사례집.

2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00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작은 소녀상’ 세웠다

00고등학교에 최근 작은 소녀상이 세워졌다. 소녀상 건립은 00고 역사동아리를 주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6~10일에는 학생들의 뜻을 묻기 위해 서명활동을 벌였고, 총 475명이 지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소녀상 건립 비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되었다. 교내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세월호 참사 4주기날(4월 16일) 등곳길 교문 앞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모금활동을 벌이고,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세월호 추모 팔

찌를 선물했다. 이외에도 소녀상 모양으로 직접 디자인한 포스트잇을 판매하고, 학교 축제 기간에도 동아리 부스에서 모금을 하는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추진위는 총 6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제205호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출처] 국제신문. 2018. 05. 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80515.22022005820>

퀴즈로 정리하기

1 ▶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표현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의견 대립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 사례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봅시다.

	사례	정치에 해당하나요? (O, X)
1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O
2	국회의원들이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	O
3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	O
4	학급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	O

3 ▶ 학급 회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p>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p>
--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나의 삶 가까이 있는 정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나는 학급 회의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의할 수 있다.			

1 민주학교의 탄생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민주학교의 탄생’은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민주학교의 실천 원칙을 제시한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준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임을 제안한다.

출처: 심성보 외(2021).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 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한다.”



[출처]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학생참여예산제 학교별 운영 절차

1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¹⁾

절차	추진내용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공론화 과정)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2) 제정·개정안 발의 (발의 주제 주관)
	3)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제·개정위원회 주관)
	4) 시간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6) 학교장 결재
3. 학생생활규정 공포·시행	7)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정보 공시
	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및 교육
	9) 적용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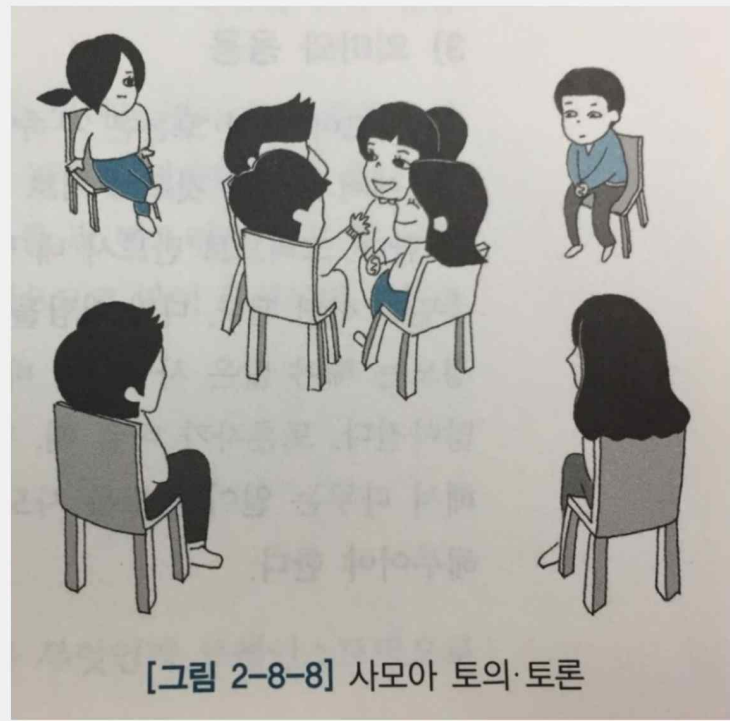
*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 가능(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대표이 참여 및 의견 발표 기회 부여)

1) 교육부(2014),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안전한 교육 공론화 매뉴얼

2 학생참여예산제 학교별 운영 절차(예시)

1단계 사업 공모 (3~4월)	(학생회) 학생참여예산제 계획 수립 및 공모 - 학생참여예산제 연수 참여(교육지원청별 실시) -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계획 수립 (개인, 동아리, 학급, 학생회 공약 등) -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안내 -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계획서 수합 및 정리 - 사업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의 회의 준비
2단계 사업 심사 및 선정 (3월~4월)	(대의원회) 운영 사업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논의 및 심사(제안자의 설명 시간 포함) - 운영 사업 심의 및 의결 - 학교장 결재 완료 - 전체학생에게 선정 사업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등)
3단계 사업 운영 (4월~12월)	(학생회 및 제안자) 학교별 사업 운영 - 제안자(팀)(학급, 개별학생, 동아리, 학생회 등) 운영 주관 - 학생회에서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홍보 강화: 전체 학생 관심·참가 유도 - 교육지원청별 자치활동 컨설팅 전문가 지도 조언 - 추진과정 기록 보존(학생회 사업 지속발전 및 인계)
4단계 평가·환류 (12월~1월)	(학생회, 대의원회) 운영결과 평가 및 환류 -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산 보고 (대의원회에 보고, 전체 학생에게 안내, 운영결과 자료집 홈페이지 탑재 등) ※ 학교별 운영결과 발표는 사후적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전교학생들에게 공지 - 차기 학생회에 인계·인수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교복 입은 시민 학생자치활동(중등 학생용).



[그림 2-8-8] 사모아 토의·토론

사모아 토의(Samoan Circle)란 남태평양 사모아 원주민들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대화법에서 유래한 방식이다. 사모아 원주민들은 원형으로 지어진 장소에 둘러앉아 토론 등 공동체 활동을 한다.

*** 사모아 토의의 절차**

- ① 4~6개의 의자를 활용하여 중앙의 원을 만들고, 모둠별 대표 토의자가 앉는다.
- ② 토의를 진행하다가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이 대표 토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 대표 토의자는 자리를 비켜준다.
- ③ 토의 시간이 종료되면 결과를 정리한다.

*** 사모아 토의의 특징**

- ① 사회자 없이 대표 토의자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토의에 참여한다.
- ② 대표 토의자는 계속 바뀔 수 있다(대표 토의자의 발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모둠 의견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 활용 방법**

- ① 학급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배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이 24명인 경우 6개의 모둠으로 편성하고 안쪽 원에 6명이 앉고 바깥쪽 원에 18명이 앉아 1:3 비율로 토의할 수 있다.
- ② 사모아 토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둠별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참고 자료 목록

■ 도서 및 논문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교복 입은 시민 학생자치활동(중등 학생용).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0 학생참여예산 실천사례집.

심정보 외(2021).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 신문 기사

국제신문(2018. 05. 14.). 부경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작은 소녀상’ 세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80515.22022005820>

3) PPT 예시: 1주제 1차시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1단원 정치와 민주주의



1차시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 문서는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학습 목표

1.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치 활동을 통해 학급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 열기

정치일까? 아닐까?

생각 키우기

[정치 경험 나누기]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생각 넓히기

[우리 생활 속 정치]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생각 열기

정치일까? 아닐까?

정치일까? 아닐까?

생각하기

(1) 다음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사진 1] 국회 본회의



[사진 2] 국회의원선거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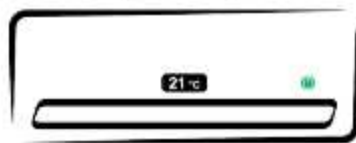


정치일까? 아닐까?

생각하기

(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1] 마을회관의 에어컨 교체



□□동 마을회관에서는 20년이 넘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고 싶지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치일까? 아닐까?

생각열기

(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2] 학생회 부서 통폐합 갈등



00중학교 학생회는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행사부, 봉사부, 예술부, 복지부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회 회의에서 행사부와 예술부의 활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술부를 없애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되었다. 예술부 부원들은 자신들의 부서를 없앨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학생회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예술부를 없앨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정치일까? 아닐까?

생각열기

(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3] 시민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소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민제안을 받은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심사, 토론과 시민투표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태를 색깔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 키우기

[정치 경험 나누기]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생각 키우기

(1) 모둠별로 정치 경험을 논의해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경험 1	(예)	(예)	(예)	(예)	(예)
경험 2	(예)	(예)	(예)	(예)	(예)
경험 3					
경험 4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생각 키우기

(2)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 뒤, 비슷한 경험끼리 분류해 봅시다.

* 분류 예시 :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온라인 등

[우리 생활 속 정치]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넓히기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넓히기

* 활동 방법

- (1)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급 안건을 선정합니다.
- (2) 모둠별 토의를 통해, 모듬의 의견을 정합니다.
- (3) 모듬별로 대표 토의자를 선정하고, 대표 토의자들은 안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다른 모듬원들은 바깥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 (4) 대표 토의자들이 학급 안건에 대해 토의합니다. 바깥쪽 원에 앉은 모듬원(참여자)들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 학급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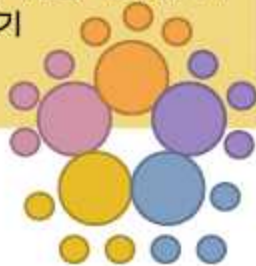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넓히기

Tip. 학급 안건은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급 안건 예시>

- 학급 규칙(단체 채팅방 사용) 정하기
- 청소 당번 정하기
- 급훈 정하기



<사모아 토의의 형태>

모듬별 대표 토의자가 안쪽 원을 만들어 앉고, 뒤쪽으로 모듬원들이 바깥쪽 원을 만들어 동글게 앉습니다.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넓히기

* 학급 의사결정 활동 사례

우리 학급이 선정한 안건	(예)
우리 모듬이 협의한 의견	(예)
토의 결과	(예)

학급 의사결정 활동

생각 넓히기

* 토의가 끝난 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 토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2) 토의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1)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표현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생각 다지기

(2) 사례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봅시다.

사례	정치에 해당하나요? (O, X)
1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_____
2 국회의원들이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	_____
3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	_____
4 학급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	_____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생각 다지기

(3) 학급 회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3. 프로그램의 특징과 활용법

1) 특징

(1) 내용 측면

첫째,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선거 교육이 과도하게 지식 전달에 치중해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골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모든 차시는 2개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면 학급의 규칙 정하기(1단원 1차시)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 뿐 아니라, 가상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선거 결과를 분석하거나(3단원 1차시) 모의 정당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공약을 직접 만들며(4단원 1, 2차시) 실제적인 선거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뮬레이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학생들 간의 대화 및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를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립되는 가치를 분석하고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토의 및 토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학급 규칙을 정하는 활동(1단원 1차시)에서는 사모아 토의 방법을,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와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 활동에서는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2단원 2차시, 5단원 1차시)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에서는 피라미드 토론 방식(6단원 2차시)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협력적 모둠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모둠별로 상의하고 역할을 나누어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손 그림으로 만들어보는 모둠 활동(1단원 2차시),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미니 신문으로 만들어보는 모둠 활동(2단원 1차시),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 하는 모둠 활동(5단원 2차시) 등은 모둠원 간의 의견 공유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거와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명화, 그림책, 영상, 선거 포스터,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도 교과서 외의 다양한 읽기 자료 및 시각 자료를 통해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명화를 통해 이해하거나(1단원 2차시), 이색적인 선거 운동과 관련한 영상을 보고 선거 운동의 중요성을 발표하는(6단원 1차시) 활동 등이 가능하다. 또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1단원 2차시)과 같이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는 선거 및 정치 교육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채 교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학생들이 그 사회 속

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형식(구성) 측면

첫째, 전체 프로그램은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은 2개의 차시로 구성하였다 (총 12차시).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블록타임제로 운영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각 차시별 구성을 살펴보면, 도입(생각 열기) - 활동 1(생각 키우기) - 활동 2(생각 넓히기) - 정리(생각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에서는 해당 차시와 관련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한다. 활동 1과 활동 2는 해당 차시와 관련한 중심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은 토의와 토론, 모둠별 과제, 시뮬레이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1과 활동 2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지만 연관된 활동이며, 활동 1보다 활동 2를 심화된 형태의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정리에서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 퀴즈 및 자기 확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 과정안을 비롯하여 학생 활동지, 학생용 읽기 자료 및 교사용 읽기 자료, PPT 등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게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각 활동의 단계별로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활동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생 활동지 및 PPT에는 예시 답안을 포함하였으며, 영상 자료 등은 QR코드를 만들고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였으며, 학생용 읽기 자료 및 교사용 읽기 자료에는 활동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2) 효과적인 활용법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먼저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사회 교과에서 사회 교과에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 제도 등을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을 하기 보다는 일부 활동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사회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에서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표24>와 같다.

<표 24>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 방안 예시

학습 주제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4-1 [활동 1] 정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 중 정당의 의미, 역할, 기능을 신문 기사 및 헌법 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3-1 [활동 2] 가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해보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선거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하면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 제도를 탐구한다. 정당별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대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성찰한다.
	6-1 [활동 1]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중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등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지방 자치 제도와 시민 참여	2-1 [활동 2]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지방 자치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정치 참여의 의지를 갖는다.

또한 사회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국어과, 미술과, 역사과)와의 융합 수업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국어과와 융합할 경우, 토의 및 토론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의 선거 일기 쓰기 활동 등에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미술과와 융합할 경우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명화의 내용과 의미를 미술 용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한 뒤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주제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정당 로고 및 카드 뉴스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과와 융합할 경우 시민 혁명 및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참정권 확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보고, 20세기 여성의 참정권 확대 운동 및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어과, 미술과, 역사과의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교육부, 2018).

<표 25> 국어과, 미술과, 역사과의 선거·정치교육 관련 성취기준

교과	관련 성취기준
국어과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미술과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3-03]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역사과	[9역04-01]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9역05-02] 20세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2)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연계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회암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교과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21).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교과 연계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제선택 활동으로 권장되는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 2021). 첫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둘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융합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셋째, 수업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제선택 활동은 각 영역별로 17시간 이상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여러 교과를 융합하며 단일한 영역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주제선택 활동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때는 각 교과별로 배당된 시수를 조정하여 편성하고, 교과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인위탁으로 운영하되 코티칭(Co-Teaching)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학교 구성원의 사전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A중학교의 자유학년제는 <표 26>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26> 서울 지역 A중학교의 자유학년제 편성 사례

영역	시수	조정교과(시수)	
		1학기	2학기
진로탐색 활동	17	영어(17)	
주제선택 활동	102	국어(17), 기술가정(17)	국어(17), 사회(17), 수학(17), 과학(17)
예술체육 활동	34		음악(17), 미술(17)
동아리 활동	68	동아리활동(17), 학교스포츠클럽(17)	동아리활동(17), 학교스포츠클럽(17)

<표 26>에서 2학기의 주제선택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5개의 주제선택 활동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각 영역별로 2개씩의 프로그램을 골라 활동한다(<표 27>). 일반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한 명의 교강사가 운영하며, 개인위탁으로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가 코티칭(Co-Teaching)으로 협업한다.

<표 27> 서울 지역 A중학교의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 사례

주제선택1(국어, 사회, 도덕)	주제선택2(수학, 과학)
1. 나만의 스토리텔링	6. 수학과 친구하기
2. 생각이 푹푹! 국어 교실	7. 수학여행
3. 마을을 걷다	8. 실험으로 만나는 생활과학
4. 게임으로 만나는 경제탐구반	9. 과학으로 생각하기
5. 시끌벅적 시사탐구	10. 삶의 양식을 바꾸는 생태환경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표 28>과 같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각 활동별로 2차시를 묶어서 블록타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 학년이 8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학기 동안의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8>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례

시기	1기(8, 9, 10월)			2기(10, 11, 12월)		
	월 5, 6교시	수 6, 7교시	금 5, 6교시	월 5, 6교시	수 6, 7교시	금 5, 6교시
1~4반	주제선택1	주제선택2	예술체육	주제선택1	주제선택2	예술체육
5~8반	주제선택2	예술체육	주제선택1	주제선택2	예술체육	주제선택1

본 프로그램은 6개의 단원을 각 2개의 차시로 구성하여 블록타임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학생 참여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의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으로 운영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앞서 제시한 주제선택 활동의 예시 중에서 주제선택1 영역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국어과, 사회과+미술과, 사회과+국어과+미술과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편성된 교과목들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융합 수업을 장려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 특히, 사회과+국어과, 사회과+미술과, 사회과+국어과+미술과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편성된 교과목들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과와 국어과를 융합하여 구성할 경우 ‘토의와 토론으로 만나는 선거정치교육’을 주제로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활동이 포함된 3단원과 정당 공약 분석 및 공약 만들기 활동이 포함된 4단원의 경우 활동 시간을 충분히 갖고 발표 및 갤러리워크 활동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단원에서도 학생용 참고 자료에 제시한 그림책 토의·토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차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토대로 17차시의 주제선택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표 29>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모둠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차시에는 모둠 세우기 활동을 진행한다. 협력적인 모둠 활동을 위해서는 모둠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모둠 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알려주고,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활동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모둠원의 역할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끄는(회의 진행자), 스피커(발표자), 기록이(활동지 글씨 작성), 그림이(활동지 그림 작성) 등을 기본 역할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차시와 8차시, 12차시는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활동을 확장하거나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하여 진행한다. 먼저 4차시는 1단원에 제시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그림책 토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단원을 가장 먼저 학습하는 만큼 그림책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가위바위보는 민주적인 방법일까?’, ‘법은 언제나 옳을까?’, ‘나의 자유가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고민할 수 있는 토의·토론 질문을 통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보는 것이다. 8차시와 12차시는 본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을 확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상의 국회의원 선거 활동이나 정당 및 정당 공약 만들기과 같은 핵심적 활동을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선거 벽보를 발표하고, 각자의 정당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모둠 활동을 학급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둠원에 대한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를 진행하거나, 학습내용에 대한 퀴즈 또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다.

<표 29>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자유학년제 연계 예시

차시	주제선택 프로그램 활동 계획	운영방식
1	프로그램 소개 및 모둠 세우기 활동	블록타임
2	1단원 1차시 우리 생활과 정치	
3	1단원 2차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4	1단원 추가 차시 [추가 활동] 그림책 토의·토론 - 1단원 읽기자료에 제시된 선거·정치와 관련된 그림책을 함께 읽고, 토의·토론 활동을 함. 읽기자료에 제시된 토의·토론 질문을 활용하며, 모둠활동 또는 짝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블록타임
5	2단원 1차시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블록타임
6	2단원 2차시 청소년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7	3단원 1차시 우리나라 선거제도	
8	3단원 추가 차시 [확장 활동] 가상의 국회의원 선거 3단원 1차시에 제시된 가상의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확장하여 진행함. 충분한 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선거 벽보를 발표하고 선거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함.	블록타임
9	3단원 2차시 다양한 선거 제도	블록타임
10	4단원 1차시 정당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11	4단원 2차시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정당과 선거 공약	
12	4단원 2차시 [확장 활동] 정당 및 정당 공약 만들기 - 4단원 2차시에 제시된 정당 및 정당 공약 만들기 활동을 확장하여 진행함. 충분한 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각자가 만든 정당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을 함.	블록타임
13	5단원 1차시 미디어와 선거의 관계	블록타임
14	5단원 2차시 미디어 비평과 제작	
15	6단원 1차시 선거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6	6단원 2차시 우리 사회에서 투표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블록타임
17	평가 -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 학습내용에 대한 퀴즈 또는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3) 범교과 수업과 연계

범교과 학습 주제는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 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다(교육부, 2017).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루어진다. 교과 수

업에 융합하여 다룰 수도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영역의 ‘창의주제활동’으로 학년별, 학기별로 운영할 수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본 프로그램은 특히 민주 시민 교육을 주제로 범교과 수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및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등을 성찰할 수 있다.

4. 현장 적용 결과

1) 현장 적용 수업 실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실시하였다.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해 시범 수업은 202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현장 적용 수업 일정은 <표 30>과 같다.

<표 30>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현장 적용 일정

단원	일정	소속	수업교사
3단원 1차시	2021. 10. 28.(목)	서울 ○○중학교	심○○
3단원 2차시	2021. 10. 28.(목)	서울 ○○중학교	심○○
2단원 1차시	2021. 11. 11.(목)	경기도 ○○중학교	이○○, 원○○
2단원 2차시	2021. 11. 12.(금)	경기도 ○○중학교	이○○, 원○○
4단원 1차시	2021. 11. 12.(금)	경기도 ○○중학교	이○○, 원○○
6단원 2차시	2021. 11. 15.(월)	경기도 ○○중학교	이○○, 원○○

2) 현장 적용 의견 반영

현장 적용 수업의 관찰 기록지를 토대로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완점을 분석하였으며, 현장 적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재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 적용 의견을 반영한 일부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현장 적용 기록 반영 사항

단원 및 차시	현장 적용 기록	반영 사항
2단원 2차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질문에 18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해당 차시 활동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생각하기 위해 구성됨. 학생들이

	미성숙하고 성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생각됨. 해당 질문이 중학생들에게 적절한지 검토 필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며, 민주적인 토의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임.
3단원 1차시	각 모둠의 정당별 공약을 발표하고 투표에 참여함. 동표가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표 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연장자가 있는 모둠을 당선으로 처리함. 학생들은 동표 시 당선자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얻음.	모의 선거를 할 때, 충분히 동표가 나올 수 있음. 따라서 모의 선거 시 동표가 나왔을 때 당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추가함.
4단원 2차시	개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기까지 의견불합치와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학생들의 성의 있는 참여와 고민의 시간이 의미 있음. 시간을 늘린다면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당 공약 만들기 차시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특징과 활용법'에 차시를 확장하여 공약 만들기 활동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4단원 2차시	공약 평가 기준 세우기와 평가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공약을 살피는 방법으로 대신함.	시간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이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공약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현장 의견을 해당 차시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반영함.

3) 현장 적용 결과 및 시사점

(1)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 강조

현장 적용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본 프로그램의 강점은 모의 선거와 정당 공약 만들기와 같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현장 적용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공약을 발표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모의 선거 활동이 유익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모의 선거 및 정당 공약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선거연수원 개발 보드게임(게임하go 투표하go)을 함께 활동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2) 학교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

현장 적용 결과,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모둠 활동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둠원 간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모둠활동 결과를 학급 전체와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프로그램에 제시된 순서를 조정하거나, 활동을 취사 선택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제시된 활동을 다양한 선택지로 이해하고, 현장의 상황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블록타임제 운영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주제 당 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블록타임(block-time)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블록타임제는 일반적으로 1시간씩 진행하는 수업을 2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블록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수업이다. Dickson et al(2010)에 따르면 블록타임제는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거나 심화된 탐구활동을 할 때 적합하며,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학생 중심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박선미·홍미영, 2012:194에서 재인용). 본 프로그램의 학생 활동 중심의 성격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블록타임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표 2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블록타임제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V. 결론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학교 선거·정치교육이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의 맥락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원칙을 합의하고 공유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학습자의 시민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을 논란이나 갈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논쟁성 재현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쟁수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당대의 쟁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편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짐과 부담을 학교가 다 짊어질 것이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등을 가진 학교 밖 기관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삶의 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학교 선거·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기존에도 일정 부분 논의되고 있고 실행도 되고 있다. 그런데 18세 유권자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학교 선거·정치교육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와 실천, 그리고 성찰의 과정이 소중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설규주, 2020 참고).

첫째, 학교 선거·정치교육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급함이나 조바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그렇듯 선거·정치교육이 성숙해져 가는 데에도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부침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칫 선거·정치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과정으로 실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선거·정치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하는 노력과 함께, 혹은 그러한 노력 이전에, 학교 선거·정치교육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또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인데 참신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배제하게 되는 자원이나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18세 유권자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학교 선거·정치교육은 지나친 ‘엄숙주의’를 탈피하고 좀 더 유쾌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선거, 정치,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울 때는 고귀한 것, 엄숙한 것, 당위적인 것으로 흔히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무 높은 곳,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격식이나 절차, 규정 등으로 선거·정치교육의 주제, 내용, 방법 등의 폭을 너무 좁히지 않도록 때로는 경계를 넘나들며 맥락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미·이선영·조의호·김옥진·한희택(2014). 학생 자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 교사의 협력적 실행연구 1차 수행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과수업연구**, 2(2), 69-88.
- 경기도교육청(2014a).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2014b).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
- 경기도교육청(2014c).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3-4학년**.
- 경기도교육청(2014d).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5-6학년**.
- 경기도교육청(2016).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의회(2017). **민주시민교육 조례**.
- 곽한영(2017).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3), 1-27.
- 광주광역시의회(201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교육부(2015a). **고등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교육부(2015b).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5c).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교육부(2015d).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 교육부(2018). **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 굿네이버스(2019). **참여로 행복한 아이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 굿네이버스.
- 김명정(2021). **이슈 페이퍼: 체험 중심의 선거교육 방안 모색**. 2021년 시·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 정책협의체 협의회 자료집.
- 김명정·송성민(2014).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분석. **정치정보연구**, 17(1), 221-252.
- 김명정·송성민(2021). 우리나라 학교 선거교육의 시기별 내용 비교: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6(2), 57-89.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이영민(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경주·강대현(2018).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쟁점 중심 교육의 의의와 전략. **시민교육연구**, 50(4), 47-76.
- 박가나(2010). 박가나(2001).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홍미영(2012). 블록타임제에 따른 수업 변화: 고등학교 사회과, 과학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0(3), 193-219.
-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1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의회(201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2020). **학생인권조례**.
- 서현진(2015). 선거와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유권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47(1), 121-143.
- 설규주(2018a).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50(3), 153-179.
- 설규주(2018b).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
- 설규주(2020). 18세 유권자 시대의 정치교육의 현실과 방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집: 선거교육과 민주시민교육**, 101-126.
- 설규주·정원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성낙돈(2000). 한국 민주주의 시민교육 평가: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6(1), 185-212.
- 송성민·김재우·김동진·손연지(2020).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의 선거교육 계열성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5(1), 63-94.
- 송수환(2016). 선거법의 현황과 쟁점: 공직선거법상 미래유권자의 선거참여 도입 방안 - 하나의 학생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80, 1-38.
- 신두철(2012). 정치학의 정치교육으로 전환에 관한 담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2), 3-28.
- 이기라(2015). 프랑스 교양교육의 역사와 이념: 인문교양에서 시민교육으로. **한국교육**, 42(4), 5-28.
- 이병환(2012).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이슈 페이퍼 2012 제6호. 한국교육개발원.
- 이쌍철·김미숙·김태준·이호준·김정아·강구섭·설규주·임희진(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혜(2017). 참여 중심 선거교육 방향 탐색.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39-54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2020학년도 학생 자치 활성화 운영 계획(안)**.
- 정구영·김대식(2020). 초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교육사학연구**, 30(1), 59-98.
- 정문성·장대현·설규주·전영은(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 정문성·구정화·설규주·박영석·이동원·김이재(2014). **사회과 교수학습법**. 교육과학사.
- 정원규·설규주·김형철·박인혜·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 정필운·전윤경·이수경(2020). **모의선거교육의 쟁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2. 6). 보도자료: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 결정.
- 허영식(2019).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관한 연구동향과 합의. **선거연구**, 11, 44-51.
- 허영식(2020).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 수업사례.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15, 1-26.
- 홍주석·최근원(2012): 선거교육에 있어 학생회장 선거 경험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의. **선거연구**, 3, 361-378.
- 황여정(2018). 학생자치활동이 중고생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6(2), 669-699.

<부록>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주제		차시		쪽 번호
I	정치와 민주주의	1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79
		2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91
II	시민과 정치 참여	1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102
		2	청소년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114
III	선거 제도	1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	129
		2	다양한 선거 제도	142
IV	선거와 정당	1	정당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153
		2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정당과 선거 공약	165
V	선거와 미디어	1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	177
		2	선거 미디어 비평과 제작	188
VI	선거 운동과 선거 관리	1	선거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00
		2	공정한 선거와 투표 참여의 의미는 무엇일까?	212

주제 1. 정치와 민주주의

1차시	정치와 나의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차시 소개	<p>1차시 ‘우리 생활과 정치’는 정치가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정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차시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이해한 뒤, 자신의 정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둠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학급 토의의 형태로 학급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을 통해 참여적 시민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수업에서 ‘정치의 의미’,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정치 주체’, ‘시민 참여’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활동으로 활용하거나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p> <p>[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수업의 흐름	도입 <생각 열기>	수업 안내 및 동기유발 - 정치일까? 아닐까?
	활동 1 <생각 키우기>	정치 경험 나누기 게임
	활동 2 <생각 넓히기>	학급 의사결정 활동
	정리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활동이며,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스스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 [활동 1]을 할 때, 경쟁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른 모둠과의 의견 공유에 초점을 두고, 경청과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수업 전에 미리 모둠을 정하고(4~6명이 1모둠) 자리 배치를 하여 수업을 준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입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할 때에는 멘티미터(Mentimeter)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체 답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활동 2]를 할 때는 패들렛(Padlet)을 활용하여 토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아래에 자신의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우리 생활과 정치
교수·학습 목표	1.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치 활동을 통해 학급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열기: 정치일까? 아닐까?</p> <p>- 국회 본회의 사진과 국회의원선거 참여 사진을 제시하고, 두 장의 사진을 보고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p> <p>- 3개의 사례 카드를 제시하고,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이 사진을 보고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p> <p>-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치일까요?</p> <p>-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일부만일 수도 있고, 전부 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p> <p>- 위의 두 사진은 '국가'와 관련한 일을 하는 활동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라면, 사례 카드에 제시된 것은 모든 사회 집단과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입니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사례 카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도 정치임을 설명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다음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p> <p>(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p> </div> <p>* 수업안내</p> <p>- [활동 1] 모둠활동으로 정치 경험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게임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학급활동으로 우리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의를 할 것임을 안내한다.</p>	5	PPT 도입 자료
활동 1	<p>* [모둠활동] 정치 경험 나누기 게임 -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p> <p>- 정치 경험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앞의 모</p>	15	PPT 활동 자료 1

	<p>뒤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p> <p>* [심화활동] 정치 경험 분류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논의한 정치 경험을 비슷한 종류(또는 영역)별로 묶어보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예시)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온라인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정치 경험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의 모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치 경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이나 공동체를 떠올려 보세요. -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것도 가능합니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리 모둠을 정하지 않고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 모둠당 2개의 경험을 발표한 다음에는 게임을 종료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발표한 정치 경험을 비슷한 종류별로 묶어보는 심화활동을 할 수 있다. -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에서 보고 들은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다양한 경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정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정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활동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둠별로 정치 경험을 논의해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가능합니다. (2) [심화]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 뒤, 비슷한 경험끼리 분류해 봅시다. </div>		
<p>활동 2</p>	<p>* [학급활동] 우리 생활 속 정치 - 학급 의사결정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아 토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급 안건을 정하여 의사결정 활동을 한다. - 학급 안건은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만들 수 있다. - 학급 토의 이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모둠의 생각을 정한다. - 모둠별로 대표 토의자가 안쪽 원에 앉고,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 	<p>20</p>	<p>PPT 활동 자료 2</p>

	<p>중에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의사결정 주제(예시)> 학급 규칙 정하기, 청소 당번 정하기, 급훈 정하기, 온라인 수업 규칙 정하기 등</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아 토의(Samoan Circle)란 남태평양 사모아 원주민들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대화법에서 유래한 방식입니다. - 먼저, 모둠별 토의를 통해 모듬의 의견을 정해 주세요. -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들은 대표 토의자의 발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모듬 의견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토의 결과에 대해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만족했나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안건으로 토의할 수도 있다. - 사모아 토의 방식을 설명하고, 청중들이 경청을 해야 적절한 때에 대표 토의자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모듬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급 안건을 선정합니다. (2) 모듬별 토의를 통해, 모듬의 의견을 정합니다. (3) 모듬별로 대표 토의자를 선정하고, 대표 토의자들은 안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다른 모듬원들은 바깥쪽 원에 둘러앉습니다. (4) 대표 토의자들이 학급 안건에 대해 토의합니다. 바깥쪽 원에 앉은 모듬원(참여자)들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학급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div>		
정리	<p>* 활동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가 끝난 후, 토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본다. <p>*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차시 활동을 정리한다. 	5	PPT

정치일까? 아닐까?

(1) 다음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사진 1] 국회 본회의



[사진 2] 국회의원선거 참여



[출처]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 정치, 권력

(2) 다음 사례 카드 중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례 1] 마을회관의 에어컨 교체

□□동 마을회관에서는 20년이 넘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고 싶지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 2] 학생회 부서 통폐합 갈등

OO중학교 학생회는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행사부, 봉사부, 예술부, 복지부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회 회의에서 행사부와 예술부의 활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술부를 없애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되었다. 예술부 부원들은 자신들의 부서를 없앨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학생회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예술부를 없앨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사례 3] 시민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소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민제안을 받은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심사, 토론과 시민투표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태를 색깔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

이유

사례 1, 사례 2, 사례 3

[정치 경험 나누기] 이런 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

(1) 모둠별로 정치 경험을 논의해 봅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경험 1	학급 친구들이	학급에서	학급 회의에 참여했다	지난 주에	학급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경험 2	대통령 후보자가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경험 3					
경험 4					
경험 5					

(2) [심화]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 뒤, 비슷한 경험끼리 분류해 봅시다.

* 분류 예시 :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온라인 등

[우리 생활 속 정치] 학급 의사결정 활동

* 활동 방법

- (1)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급 안건을 선정합니다.
- (2) 모듈별 토의를 통해, 모듈의 의견을 정합니다.
- (3) 모듈별 대표 토의자가 안쪽 원을 만들어 앉고, 뒤쪽으로 모듈원들이 바깥쪽 원을 만들어 등글게 앉습니다.
- (4) 대표 토의자들이 학급 안건에 대해 토의합니다. 바깥쪽 원에 앉은 모듈원(참여자)들은 대표 토의자와 자리를 바꾸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 학급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Tip. 학급 안건은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p><학급 안건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규칙(단체 채팅방 사용) 정하기 - 청소 당번 정하기 - 급훈 정하기 	<p><사모아 토의의 형태></p> <p>*모듈별 대표토의자(1명) 뒤쪽으로 모듈원들(3~4명)이 등글게 앉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 <td>토의자</td> <td>토의자</td> <td>토의자</td> <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 <td>토의자</td> <td></td> <td>토의자</td> <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 <td>토의자</td> <td>토의자</td> <td>토의자</td> <td>참여자</td> </tr> <tr>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d>참여자</td> </tr> </table> <p>[출처]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p>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토의자	토의자	토의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우리 학급이 선정한 안건	우리 학급 단체 채팅방 사용 규칙 정하기
우리 모듈이 협의한 의견	욕을 하지 맙시다.
토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을 하지 않는다. - 동일한 채팅으로 도배하지 않는다. - 사용 규칙을 어길 경우 학급 청소를 한다.

* 토의가 끝난 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 토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2) 토의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요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이 학생회 공약 실천 사업 및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학교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자치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중학교는 ‘온라인 학습 가이드’ 및 ‘후배를 위한 QnA’ 영상을 제작하여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B중학교는 전교생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내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C중학교는 급식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교생 투표를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켰다. 학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D중학교는 ‘소중하게 함께할고양’이라는 동물 사진 공모전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동물 보호 운동을 벌였으며, E고등학교는 코로나19 극복 뱃지 공모전 및 UCC 공모전을, F고등학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환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0 학생참여예산 실천사례집.

2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00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작은 소녀상’ 세웠다



00고등학교에 최근 작은 소녀상이 세워졌다. 소녀상 건립은 00고 역사동아리를 주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6~10일에는 학생들의 뜻을 묻기 위해 서명활동을 벌였고, 총 475명이 지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소녀상 건립 비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되었다. 교내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세월호 참사 4주기날(4월 16일) 등곳길 교문 앞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모금활동을 벌이고,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세월호 추모 팔찌를 선물했다.

이외에도 소녀상 모양으로 직접 디자인한 포스트잇을 판매하고, 학교 축제 기간에도 동아리 부스에서 모금을 하는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추진위는 총 6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제 205호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출처] 국제신문(2018.05.14.). “부경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작은 소녀상’ 세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80515.22022005820>


퀴즈로 정리하기

1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표현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의견 대립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례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봅시다.

	사례	정치에 해당하나요? (O, X)
1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O
2	국회의원들이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	O
3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	O
4	학급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	O

3  학급 회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나의 삶 가까이에 있는 정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나는 학급 회의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의할 수 있다.			

1 민주학교의 탄생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민주학교의 탄생’은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민주학교의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임을 제안한다.

출처: 심성보 외(2021).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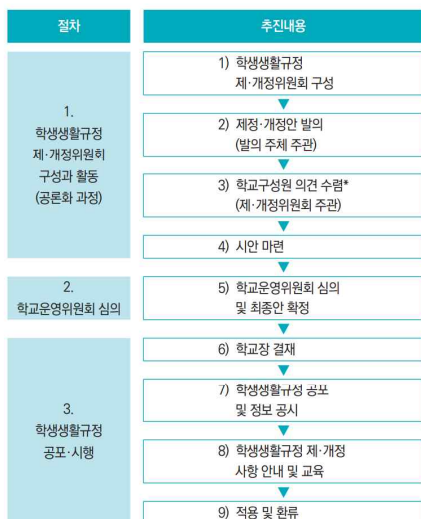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 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한다.”

[출처]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학생참여예산제 학교별 운영 절차

1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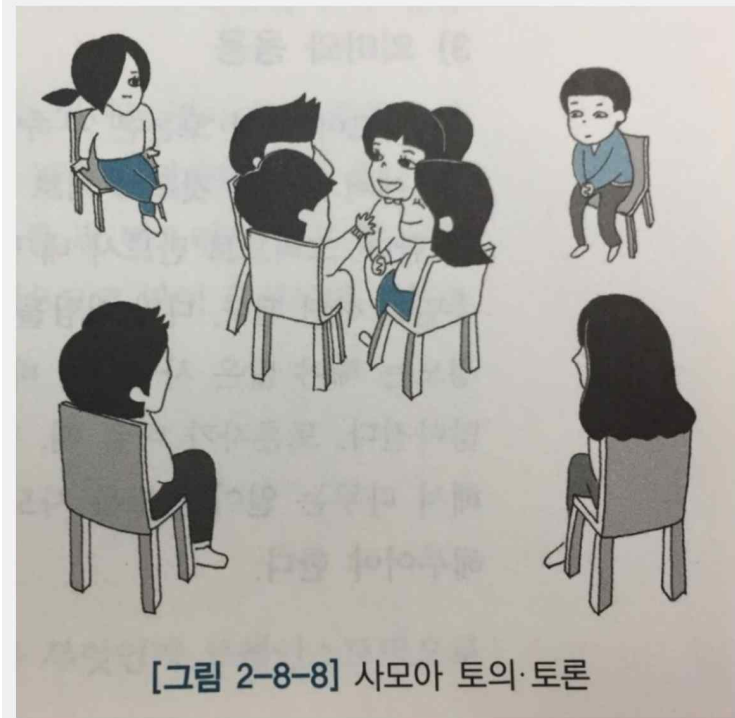
※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 가능(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대표의 참여 및 의견 발표 기회 부여)

1) 교육부(2014).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편안한 교육 학교 공론화 매뉴얼

2 학생참여예산제 학교별 운영 절차(예시)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교복 입은 시민 학생자치활동(중등 학생용).



사모아 토의(Samoan Circle)란 남태평양 사모아 원주민들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대화법에서 유래한 방식이다. 사모아 원주민들은 원형으로 지어진 장소에 둘러앉아 토론 등 공동체 활동을 한다.

* 사모아 토의의 절차

- ① 4~6개의 의자를 활용하여 중앙의 원을 만들고, 모듈별 대표 토의자가 앉는다.
- ② 토의를 진행하다가 바깥쪽 원에 앉은 청중이 대표 토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 대표 토의자는 자리를 비켜준다.
- ③ 토의 시간이 종료되면 결과를 정리한다.

* 사모아 토의의 특징

- ① 사회자 없이 대표 토의자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토의에 참여한다.
- ② 대표 토의자는 계속 바뀔 수 있다(대표 토의자의 발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모듈 의견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 활용 방법

- ① 학급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배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이 24명인 경우 6개의 모듈로 편성하고 안쪽 원에 6명이 앉고 바깥쪽 원에 18명이 앉아 1:3 비율로 토의할 수 있다.
- ② 사모아 토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듈별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 도서 및 논문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교복 입은 시민 학생자치활동(중등 학생용).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0 학생참여예산 실천사례집.

심정보 외(2021).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

정문성(2017). 토의 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파커 J. 파머(2012). 비동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 신문 기사

국제신문(2018.05.14.). “부경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작은 소녀상’ 세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80515.22022005820>

주제 1. 정치와 민주주의

2차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차시 소개	<p>2차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왔음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본 차시에서는 명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간의 유사점을 찾아보며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본다. 또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해본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수업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3-0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도출한다.</p> <p>[9역04-01]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p> <p>[9미03-03]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명화로 보는 민주주의
	<p>활동 1 <생각 키우기></p>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p>활동 2 <생각 넓히기></p>	‘민주주의를 위한 손’ 만들기 활동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료(명화, 영상, 뉴스)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우리나라와 미얀마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한다. - 모둠활동 및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온라인 수업 시 실시간 채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활동 1]의 모둠 활동은 모둠별 구글 공유 문서를 만들어 활용하며, [활동 2]는 구글 공유 문서 또는 패들렛(Padlet)을 활용한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교수·학습 목표	1.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명확로 보는 민주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크루아, 1830)’,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필리프 폰 폴츠, 1852)’, ‘제4계급(주세페 펠리차 다 볼페도, 1901)’을 제시하고, 명확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명확을 배열해 본다. -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을 명확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그림의 제목을 발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은 무엇일까요? -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사람이 시민이었을까요? -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 만약 각 명확에 다른 이름을 지어 본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함께 읽으며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모습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확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명확을 배열해 봅시다. (2) 오늘날의 민주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div> <p>* 수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고, 둘 사이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해보는 ‘민주주의를 향한 손 만들기’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5	PPT 도입 자료

<p>활동 1</p>	<p>[모둠활동] 영상으로 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1]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 모둠별로 영상 속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정하고,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 [영상 2] 미얀마 민주화 운동 - 왜 우리나라를 미얀마의 롤모델이라고 하는지, 미얀마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선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 왜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 왜 한국을 미얀마의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요? -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한국의 정치가 미얀마의 정치보다 더 발전했다는 것보다, 두 국가 사이의 유사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영상 1]은 재생속도를 1.3~1.5배로 조정하여 시청하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 활동지 질문 (1) [영상 1]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골라 조사해 봅시다. (2) 우리나라를 미얀마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를 [영상 2]에서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를 [영상 1]을 바탕으로 분석해봅시다. (3) 다음 기사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 정리해 보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봅시다.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점검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의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쓰고, 각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발표한다. * [모둠활동] 민주주의를 위한 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원 중 한명의 손을 그리고, 손바닥에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민 	<p>15</p>	<p>PPT 활동 자료 2</p>

	<p>주주의의 의미를 적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 위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적는다.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중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기본 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 ~의 원리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손가락 위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적어 봅시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함께 표를 채우면서 민주 정치의 네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 모둠원 토의를 할 때는 모든 모둠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스트잇에 각자 3가지 의견을 적은 뒤,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면서 모둠의 의견을 정하는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기법을 활용한다. <p>● 활동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지에 모둠원 중 한 명의 손을 올려놓은 뒤 따라서 그림니다. (2) 손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적어 봅시다. (3) 모둠원들은 포스트잇에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3가지 적습니다. (4) 모둠원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모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면서 모둠의 의견을 정합니다. (5) 손가락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문제)를 적어 봅시다. </div>		
정리	<p>* 활동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를 위한 손' 결과물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p>*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정리한다. 	10	PPT

명화로 보는 민주주의

* 다음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명화입니다.

순서	명화	설명
2	 <p>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1830)</p>	<p>프랑스에서 시민들이 국왕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일으킨 7월 혁명을 기념하는 그림이다. 자유의 여신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의미를 가진 삼색기를 들고 있다.</p> <p>7월 혁명의 결과 ‘시민국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어 자유주의적인 입헌왕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2월 혁명을 통해 공화정이 성립되고 보통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다.</p>
1	 <p>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 (필리프 폰 폴츠, 1852)</p>	<p>그리스 아테네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며,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웃 국가들에게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정치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p>
3	 <p>제4계급(주세페 펠리차 다 볼페도, 1901)</p>	<p>종교(제1계급), 귀족(제2계급), 부르주아(제3계급)에 억압당해왔던 제4계급인 노동자의 각성을 그린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이다.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은 자신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하였고,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p>

[출처]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월간 독립기념관 - 노동자, 역사의 주인공의 되다(프랑스 2월 혁명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22/post-228.html>
 세계일보(2015.05.15.). “그림에 담긴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읽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515003047?OutUrl=naver>



(1) 명화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대로 명화를 배열해 봅시다.

(2) 오늘날의 민주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의 제목	침묵하는 당신
제목에 대한 설명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입에 지퍼를 채운 사람의 얼굴로 표현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 다음 영상을 보고, 활동해봅시다.

[영상 1]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5분 10초)	[영상 2] 미얀마 민주화 운동(2분 56초)
	

[출처] KTV국민방송 ‘광복72주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fil2DWOSLlc>
 YTN뉴스 ‘한국은 미얀마의 롤모델...임시정부 인정해주길’ <https://www.youtube.com/watch?v=5LiO2sNo5XM>
 (1) [영상 1]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골라 조사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고른 사건	4·19 혁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시민들이 독재에 저항한 민주주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독재에 저항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시위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지만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2) 우리나라를 미얀마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를 [영상 2]에서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를 [영상 1]을 바탕으로 분석해봅시다.

롤모델이라고 하는 이유	미얀마가 겪고 있는 독재 정치와 비슷한 독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군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유사한 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노력했다.

(3) 다음 기사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 정리해 보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봅시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7백여 명의 시민들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미얀마인들을 향한 응원과 지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민주화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글과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일부 고교생들은 국제 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영문 탄원서 등을 작성해 UN과 국제인권기구 앰네스티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은 ‘WE WANT DEMOCRACY IN MYANMAR’라는 글자를 쓰고,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출처] KBS뉴스(2021.03.18.). “우리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344&ref=A>
 KBS뉴스(2021.05.05.). “미얀마 민주화운동 학생 교육 실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8984&ref=A>

내가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	--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 민주주의를 위한 손 만들기

(1)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쓰고, 각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둠별 토의 과정을 거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 봅시다.

입헌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 국민자치

설명	기본 원리	우리나라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	2	3	4	5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1	2	3	4	5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입헌주의	1	2	3	4	5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국민자치	1	2	3	4	5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여 상호 견제한다	권력분립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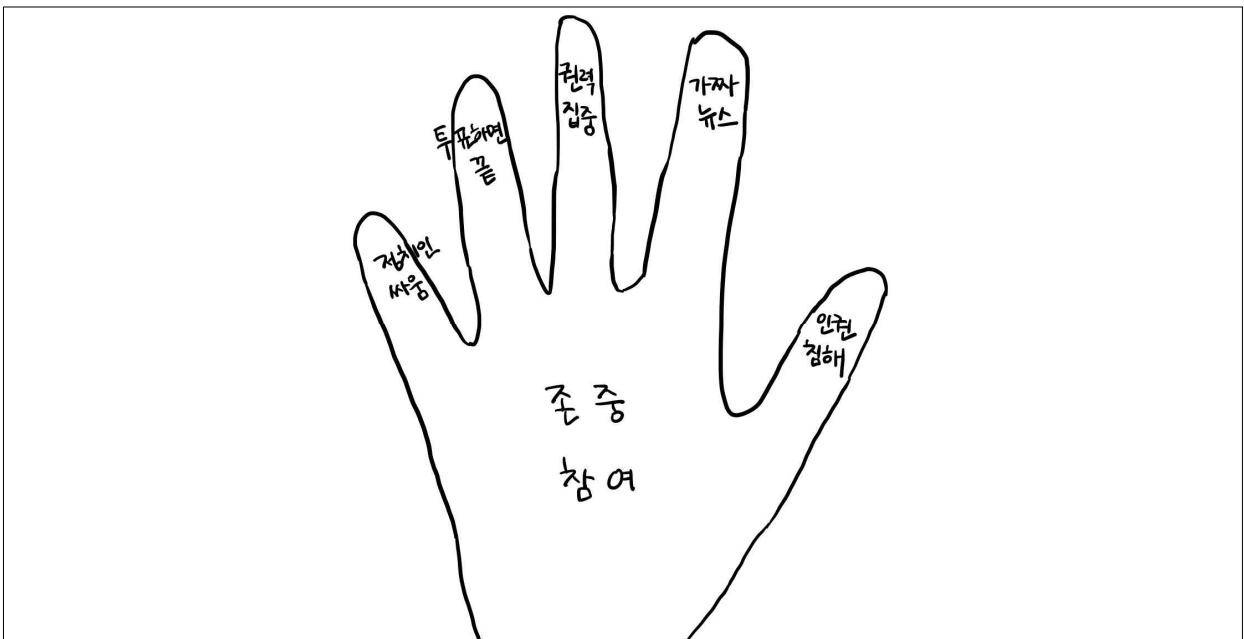
*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기본 원리	권력분립
이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2) 민주주의를 위한 손 만들기

- (1) 활동지에 모둠원 중 한 명의 손을 올려놓은 뒤 따라서 그립니다.
- (2) 손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적어 봅시다.
- (3) 모둠원들은 포스트잇에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3가지 적습니다.
- (4) 모둠원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모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정합합니다.
- (5) 손가락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문제)를 적어 봅시다.

Tip. 우리나라에서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1 ▶ 법과 규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우화(지금은 없는 이야기-가위바위)



● 토의/토론 질문 : 가위바위보는 민주적인 방법일까?

뭘든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 전 마을의 위험한 일을 맡았다가 손을 다쳐 주먹을 펼 수 없게 되었어요. 가위바위보에 질 수 밖에 없었던 그는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게 되었고, 가장 나쁜 집과 안 좋은 음식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마을 대표와 주민들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대표가 제안했어요. “이 규칙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지. 우리 모두를 이기면 자네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거야.”

[출처] 최규석(2011). 지금은 없는 이야기. 사계절출판사.

2 ▶ 자유와 독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림책(수탉과 독재자)



● 토의/토론 질문 : 법은 언제나 옳을까?
나의 자유가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라파스는 모든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약속한 페페를 시장으로 뽑았어요. 페페 시장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말아 주세요’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점점 변하더니... 이제 그만! 무조건 조용히! 라파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출처] 카르멘 애그라 디디(2018). 수탉과 독재자. 길벗어린이.

퀴즈로 정리하기

1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O, X)

2 그림의 제목을 붙여 봅시다.



그림의 원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4계급

그림에 나만의 제목을 붙여 봅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유 :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와 밝은 곳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3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적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의 원리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1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와 페리클레스의 연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였으며,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하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단, 성인 남성들만 시민에 해당되었고,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을 위해 페리클레스가 남긴 연설로,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소수만이 통치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인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을 때는 법으로 해결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공직자를 뽑을 때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각자 가진 신망과 능력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공직을 수행합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법에 따라 일합니다. 개인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검열하지 않습니다. (중략) 아테네는 그리스의 모범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바쳐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출처]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2 근대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전

근대 시민 혁명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사상,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는 사회 계약설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대표적인 시민 혁명으로는 국왕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의 부당한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미국 독립 혁명, 시민들이 소수 특권 계층에 대항하여 일으킨 프랑스 혁명 등이 있다. 다음은 각 시민 혁명과 관련한 문서이다.

영국의 권리 장전(1689)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미국 독립 선언(1776)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거기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은 인간이 가진 불가침의 권리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출처]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중학교 역사① 교과서. 비상교육

■ 도서 및 논문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중학교 역사① 교과서. 비상교육.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최규석(2011). 지금은 없는 이야기. 사계절출판사.

카르멘 애그라 디디(2018). 수탉과 독재자. 길벗어린이.

■ 신문 기사

KBS뉴스(2021.03.18.). “우리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344&ref=A>

KBS뉴스(2021.05.05.). “미얀마 민주화운동 학생 교육 실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8984&ref=A>

세계일보(2015.05.15.). “그림에 담긴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읽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515003047?OutUrl=naver>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 학교민주주의 지수

<http://goedemo.hrcglobal.com/Home/Index>

월간 독립기념관 - 노동자, 역사의 주인공의 되다(프랑스 2월 혁명)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22/post-228.html>

KTV국민방송 ‘광복72주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fil2DWOSLIc>

YTN뉴스 ‘한국은 미얀마의 롤모델...임시정부 인정해주길’

<https://www.youtube.com/watch?v=5LiO2sNo5XM>

주제 2. 시민과 정치 참여

1차시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차시 소개	<p>현대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본 수업은 참정권 투쟁의 역사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었음을 이해하고, 선거를 비롯하여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파악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학생들이 참정권 확대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고, 참정권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이나 중학교 역사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단원 수업에서 선거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이나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역05-02] 20세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한다.</p>	
수업의 흐름	도입 <생각 열기>	한 표의 가치
	활동 1 <생각 키우기>	참정권은 어떻게 확대되어 왔을까?
	활동 2 <생각 넓히기>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정리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정권의 확대와 관련된 인물이나 지역을 탐구하는 활동을 할 때, 모둠별로 원하는 인물 또는 지역을 자유롭게 고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수업을 운영하되, 되도록 제시된 인물과 지역이 수업 시간에 고루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참정권의 확대 과정을 다루는 활동을 할 때 인터넷 검색을 위해 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이 활동을 위한 검색 용도로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한다. - 온라인 수업 시 구글 잼보드(Google Jamboard)나 패들렛(Padlet)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미니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과 적절한 정치 참여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교수·학습 목표	1. 여성 참정권 운동을 비롯한 참정권의 확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한 표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이해한다. - <숫자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를 토대로 선거에는 큰 비용이 투여됨을 인식함과 동시에, 큰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 민주 사회에서 선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지방선거에서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를 읽고, 투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 '○○은/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 ○에 들어갈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 ○은/는 무엇일까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숫자로 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개별 숫자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선거에 투여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2) 다음 빈칸에 각각 들어갈 숫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3) 다음 기사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봅시다. (4) 위 기사와 <숫자로 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div> <p>* 수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살펴보는 모둠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선거 이외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5	PPT 도입 자료
활동 1	<p>* [모둠활동] 참정권은 어떻게 확대되어왔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을 통해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이 선거 	25	PPT 활동 자료 1 신문 제작 활동용 별지

	<p>권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와 참정권의 확대에 보통 선거권이 확립된 계기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모여 모듬원 한 명당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인물이나 지역을 하나씩 맡는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자 맡은 인물 또는 지역과 관련된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찾아본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들을 토대로 각자 간단한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듬별로 미니 신문을 구성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은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선거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노동자, 여성,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기사는 일반적인 기사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인물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활동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으므로 신문의 형식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해당 인물 또는 지역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기사를 작성하게 하여 시간 내에 활동을 끝맺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미니 신문 제작 활동용 별지를 개별 제공하여 활동지 또는 별도의 백지 위에 각 모듬 구성원이 작성한 기사를 콜라주 형식으로 모아서 신문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수업 종료 후 다른 모듬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듬별 미니 신문을 교실 벽 또는 게시판에 부착한다. ● 활동지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때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이 참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얻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3) 다음은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인물이나 지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키워드 하나씩을 맡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인물 또는 지역과 관련된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찾아봅시다. (4)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듬별로 미니 신문을 구성해봅시다. </div>		PC 또는 스마트폰
활동 2	<p>* [학급활동]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10	PPT 활동 자료 2

	<p>있음을 인식하고, 활동지에 이미지로 제시된 투표, 집회 참여, 언론을 통한 참여뿐만 아니라 SNS, 청원, 서명 운동 참여, 공직선거 출마,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 활동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이야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의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적어보고 발표한다.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사례에서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에 적절한 정치 참여 방법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한다. - 조언한 내용을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내용의 조언을 했는지 경청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투표에 참여하는 것 말고도 민주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한 정치 참여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사례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의 한 사례로 제시한 것이므로, 시의적절한 다른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 활동지 질문 (1) 사진에 나타난 활동이 각각 어떤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는지 써봅시다. (2) 그 밖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왜 중요할까요? (4) 다음 사례를 읽고,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정치 참여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div>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기 - 선거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주권자로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활동을 정리한다. -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 	5	PPT

한 표의 가치

(1)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거

(2) 다음 빈칸에 각각 들어갈 숫자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 숫자로 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4,102)억 원	(9,300)원	(4,660)만 원	(55)만여 명	나무 (23)만 그루	지구 지름의 (2)배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간 비용	유권자 1명당 투표 비용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	투표, 개표 등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일한 사람들	투표용지와 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	투표용지 8,700만 장을 한 줄로 이었을 때의 길이
<보기>					
2	23	55	4,102	4,660	9,300

(3) 다음 기사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 봅시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 선거 결과가 나왔다. □□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김○○ 후보가 1,108표, 곽○○ 후보가 1,107표를 얻어 한 표 차이를 보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지난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후보가 반대로 한 표 차이로 당선된 드라마 같은 결과도 벌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곽○○ 후보가 재도전 끝에 기초의원이 됐다. 지난 선거에선 한 표 차이로 떨어졌지만, 재도전한 선거에선 한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곽○○ 후보는 1,459표를 획득하며 2위 후보가 획득한 1,458표보다 한 표를 더 많이 득표해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선거에서 당시 강○○ 후보가 27,202표, 이○○ 후보가 27,200표를 얻어 단 2표 차이로 강○○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모든 시민의 한 표는 뜻깊고 소중하다!

(4) 위 기사와 <숫자로 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선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한두 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야겠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숫자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2&bcIdx=6738>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표의 소중함! - 적은 표차로 결과가 달라진 선거’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7&bcIdx=9063>
- [출처] 중도일보(2021.10.08.). “[데이터 in 충청] 역대 지방선거 ‘한표 차 승부’ 충청에서만 4번”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1008010001351>

참정권은 어떻게 확대되어 왔을까?

*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이 권리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모든 이들이 선거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영국에서는 1867년 선거법부터 노동자의 투표권을 인정하였고, 프랑스에서는 1848년 이후 모든 성인 남성의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870년에 흑인 남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은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19세기 이후 여성들은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참여가 늘어난 여성들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영국에서는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 중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후 1928년에는 모든 성인 여성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영향을 끼쳤고, 점차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1) 한때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이 참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평등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이에 따라 참정권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얻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인권 의식이 성장했고, 참정권을 얻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3) 다음은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인물이나 지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키워드 하나씩을 맡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인물 또는 지역과 관련된 참정권 확대의 역사를 찾아봅시다.

<보기>		
셀마	로자 파크스	수전 앤서니
울랭프 드 구즈	에밀리 데이비슨	에멀린 팡크허스트

내가 맡은 인물 또는 지역	셀마
해당 인물 또는 지역과 관련된 선거권 확대의 역사	흑인 투표권에 대한 방해가 극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흑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미국 앨라배마주의 작은 도시 셀마에서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흑인 참정권을 위한 평화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미국 전역이 흑인 참정권 문제에 주목하게 했다.

(4)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미니 신문을 구성해봅시다.

< 우리 모두의 미니 신문 >

미국 속보 1965년

특중!!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87Km의 흑인 참정권 보장 시위

1965년 미국 몽고메리 서쪽 셀마에서 인권 시위 도중 한 흑인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사살 당하고 말았다. 이에 인권운동가들은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흑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도중 백인 경찰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했으나 3차례의 행진을 통해 87Km 몽고메리까지 진입하였고 마침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흑인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데일리 1913년

충격!!
경마장에 뛰어든
에밀리 데이비슨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1913년 영국 런던에서 전통적인 경마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한 여성이 트랙에 뛰어 들었다. 그녀가 바로 에밀리 데이비슨. 그녀는 4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출처]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①. 천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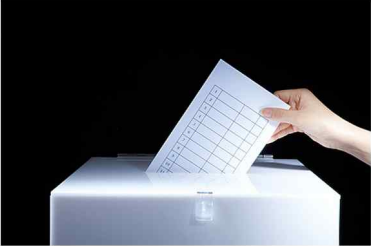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통선거권의 의미와 역사'

<https://www.nec.go.kr/site/sn/ex/bbs/View.do?cbIdx=1178&bcIdx=17433>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참여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진에 나타난 활동이 각각 어떤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는지 써봅시다.

	
<p>투표에 참여한다.</p>	<p>집회에 참여한다.</p>

(2) 그 밖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 공무 담임권을 행사하여 공직 선거에 후보로 직접 출마한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집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p>
--

(3)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왜 중요할까요?

<p>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p>

(4) 다음 사례를 읽고,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정치 참여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p>2021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p>	
<p>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 블로그나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에 이 사안과 관련된 게시글과 댓글을 남겨보세요.</p>	<p>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회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 저지 릴레이 시위를 해보세요.</p>

[출처]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Post.do?contents_id=9dae1846-810f-484d-bcca-32939306f255&head_div=s2015w

1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과 차티스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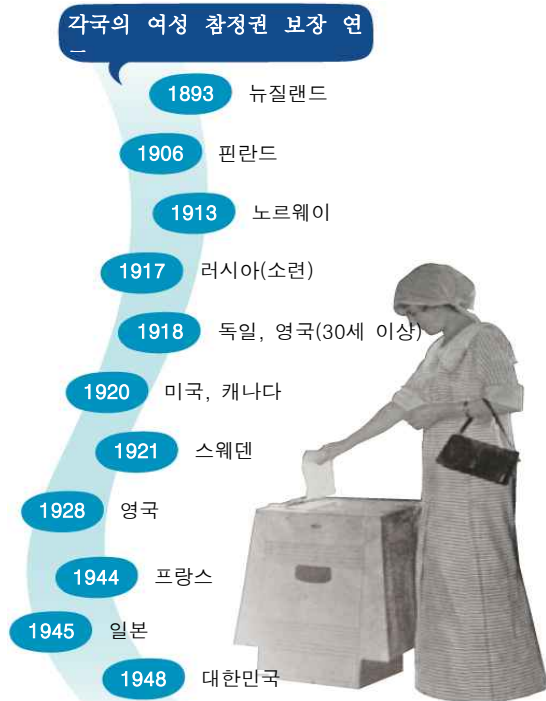
영국의 초기 선거에는 귀족, 토지를 가진 부자 등 매우 제한된 상류층만이 투표권을 가졌다.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시산업 자본가와 중산층이 새롭게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제1차 선거법 개정 때 노동자들은 부르주아를 지지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자 운동을 전개했다. 대략 1838년부터 1850년대 초까지 전개된 노동자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영국에서 '차티스트(Charterist)'로 불렸다. 차티스트 운동은 ①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선거권 부여 ② 임기 1년의 의회 운영 ③ 무기명 비밀투표제 ④ 선거구 조정 ⑤ 피선거권 자격제 폐지 ⑥ 하원의원 유급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차티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서명을 받아 1839년과 1842년, 1848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1860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선거권 참여 운동이 다시 전개되었다. 1867년 귀족과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먼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자유당이 더욱 개혁적인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도시의 노동자들과 소시민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 결과 유권자 수가 130만 명에서 25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출처] 머니투데이(2017.06.13.). "2017 영국 총선과 그림으로 보는 영국 선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61317037850807>

2 에멀린 팡크허스트와 수전 앤서니의 여성 참정권 운동

영국의 여성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 인물로 에멀린 팡크허스트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매년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자, 서명이나 청원 같은 합법적 방법 대신 건물 훼손, 전철 파손, 방화 등 과격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여성들에게 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여성 참정권에 반대했던 남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의회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도 순탄치 않았다. 수전 앤서니는 18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여성 참정권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투표가 인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판을 받고 벌금까지 내야 했다. 그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투쟁하다가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마침내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허용됨으로써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
 [출처]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①. 천재교육.

퀴즈로 정리하기

1 투표와 관련하여 다음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선거에서 당시 강○○ 후보가 27,202표, 이○○ 후보가 27,200표를 얻어 단 2표 차이로 강○○ 후보가 당선되었다.

☞ 모든 사람의 한 표의 가치는 소중하다.

2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봅시다.

19세기 이후 여성 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속해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참여가 늘어난 여성 들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영국에서는 모든 성인 여성 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영국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영향을 끼쳐 점차 여성 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3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두 개 이상 써봅시다.

시민들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에 가입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이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 흑인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셀마>

<셀마>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던 흑인이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셀마는 미국 앨라배마 주의 작은 도시이다.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로 1964년에 인종에 따른 투표권 제한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었지만, 남부 주들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흑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셀마에서는 흑인 투표권에 대한 방해가 극심해져 가고 마틴 루터 킹은 존슨 대통령을 찾아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1965년, 마틴 루터 킹은 투표권 운동의 도화선이 될 셀마에서부터 앨라배마의 주도(州都)인 몽고메리까지 역사를 바꾼 위대한 평화 행진을 함으로써 미국 전역이 흑인 참정권 문제에 주목하게 했다.



2 역사를 바꾼 여인들의 용기 있는 선택, 영화 <서프러제트>

<서프러제트>는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던 시절, 세탁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영국 여성이 참정권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서프러제트'는 참정권 운동을 펼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20세기 초 영국, 세탁공장 노동자인 '모드 와즈'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신의 삶을 의심해본 적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성 투표권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투쟁하는 '서프러제트' 무리를 목격한 그 날도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인권 유린의 세대에 분노하게 되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3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영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1971년 스위스의 보수적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스위스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그린 영화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이다. 1971년에야 비로소 스위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부 '노라'와 스위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와 주체적인 삶을 얻기 위해 하나둘 용기를 내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다.



■ 도서 및 논문

김덕수 외(2020). **중학교 역사①**. 천재교육.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 신문 기사

머니투데이(2017.06.13.). “2017 영국 총선과 그림으로 보는 영국 선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61317037850807>

중도일보(2021.10.08.). “[데이터 in 충청] 역대 지방선거 '한표 차 승부' 충청에서만 4번”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1008010001351>

■ 홈페이지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Post.do?contents_id=9dae1846-810f-484d-bcca-32939306f255&head_div=s2015w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통선거권의 의미와 역사’

<https://www.nec.go.kr/site/sn/ex/bbs/View.do?cbIdx=1178&bcIdx=174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숫자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2&bcIdx=67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표의 소중함! - 적은 표차로 결과가 달라진 선거’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7&bcIdx=9063>

주제 2. 시민과 정치 참여

2차시	청소년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차시 소개	<p>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의 주권자이자, 미래의 민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그런데도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기성세대의 인식이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주제로 하여 교육감 선거권 부여를 통한 청소년 선거권의 확대에 대해 논의해보고, 참정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참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권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수업 중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정치 생활에서의 시민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구하거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에서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경로인 선거의 기능이나 시민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학급회장 선거 시기를 전후로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에 자치 활동의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치교육이나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의 주제 선택 활동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p>[9사(일사)04-03]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조사한다.</p> <p>[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p>활동 1 <생각 키우기></p>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도 될까?
	<p>활동 2 <생각 넓히기></p>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숫자에만 연연하기보다는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주권자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숙고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지역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대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두면 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수업 시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토론 활동은 모둠별로 구글(Google) 공유 문서 또는 패들렛(Padlet)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청소년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교수·학습 목표	1. 선거권 연령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p> <p>-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가 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법률 관계상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p> <p>- 뉴스에 등장한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후 반응을 보면서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정권 행사에 대해 대체로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야기해본다.</p> <p>- 현재 18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지, 혹은 더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변 친구들과 공유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여러분은 아직 중학생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활동지에 나열된 내용들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일까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임을 알리기 위한 동기유발 목적의 자료이므로 학생들이 해당 내용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다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p> <p>(2)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8세 유권자가 처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스 영상에 등장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후 반응은 어떠한 모습인가요?</p> <p>(3) 나이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p> </div> <p>* 수업 안내</p> <p>- [활동 1]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논쟁 협동학습(Pro-con) 토론을 진행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안내한다.</p>	5	PPT 도입 자료

<p>활동 1</p>	<p>* [모둠활동]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도 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활동을 위해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한 모둠을 다시 두 명씩 미니 모둠으로 나눈다. - 교육감 선거권 연령 관련 기사를 읽고,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생각해본다. -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한 모둠 내 두 미니 모둠이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나누어 맡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팀의 반론을 정리한다. - 두 미니 모둠이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바꾸어 맡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팀의 반론을 정리한다. - 한 모둠의 두 미니 모둠이 함께 만나 각 팀이 작성한 내용을 공유 하면서 모둠 전체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다. -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18세가 되었어요. 최근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요. 16세가 되면 학생들도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구성은 교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되,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한 모둠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Johnson과 Johnson이 제안한 논쟁 수업 모형인 찬반 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은 모둠 내에 서로 반대되는 두 미니 모둠이 자신의 관점에 기초한 최초의 결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모두 접하는 찬반 대립 토론을 통해 모둠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수업 방법이다. 이 모형의 이름이 pro-con인 것은 미니 모둠이 찬성(pro)와 반대(con)의 역할을 통해 논쟁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출처] 정문성(2017). 토의·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 일반적인 찬반 논쟁 협동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re> graph LR A[모둠 및 미니 모둠 구성] --> B[미니 모둠 내 토론하기] B --> C[입장 바꿔 토론하기] C --> D[모둠 의견 모으기] D --> E[발표하기]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 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한 모둠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꿔보며 서로 다른 논조를 고루 탐구하면서 특정 가치관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토론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춘다기보다는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 </div>	<p>20</p>	<p>PPT 활동 자료 1</p>
-------------	--	-----------	------------------------

	<p>육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p> <p>(2)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역시 18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p> <p>(3) 찬성/반대 중 우리 미니 모둠에게 주어진 역할에 표시한 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미니 모둠의 반론을 정리해 봅시다.</p> <p>(4) 이번에는 상대 미니 모둠과 입장을 바꾸어 봅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미니 모둠의 반론을 정리해 봅시다.</p> <p>(5) 이제 상대 미니 모둠과 만나 각 미니 모둠이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봅시다.</p>		
<p>활동 2</p>	<p>* [모둠활동]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p> <p>-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전 차시에서 배운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떠올리면서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한다.</p> <p>- 평소에 관심이 있던 지역 사회의 문제를 떠올려 보고,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p> <p>- 앞서 언급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를 글로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주민으로서 의견을 제안한다.</p>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아직 여러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p> <p>- 이전 시간에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요. 그때 살펴본 내용 대부분이 청소년으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p> <p>-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봤나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이 예전보다 더욱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지자체 누리집에 들어가서 해당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시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15</p>	<p>PPT 활동 자료 2 PC 또는 스마트폰</p>

	<p>-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수업 시간 내에 직접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수업 시간에는 활동지 내용만 작성한 후 방과 후에 각 가정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제안해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p> <p>(2)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p> <p>(3) 평소에 관심이 있던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적어봅시다.</p> <p>(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주민으로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찾아봅시다.</p> <p>(5)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의견을 제안해봅시다.</p>		
정리	<p>* 정리하기</p> <p>- 활동을 정리하면서 주권자이자 미래의 민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 역시 성인과 다른없는 주권자로서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다짐한다.</p> <p>-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p>	5	PPT

○○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1) 다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19)세가 되면...	부모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요.
(18)세가 되면...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군대에 지원할 수 있어요.
	자동차운전면허 1·2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어요.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6).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2)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8세 유권자가 처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스 영상에 등장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후 반응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출처] EBS 뉴스 '2020.04.15.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역사적 첫 투표'

<https://youtu.be/vmSGhtlzH4Q>

첫 투표라서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한 모습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한 모습이다.

(3) 나이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도 될까?

*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교육감은 ◇◇◇ 국회의원이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한 상황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교육정책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권은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감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민주시민이며, 교육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주체"라며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부정적으로, 14.5%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대한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42.1%),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이 바람직'(20.6%) 등을 꼽았다.

[출처] 연합뉴스(2021.07.20.). 광주·전남교육감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낮춰야"

(1)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8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를 유지해야 한다. / 보다 높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2)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역시 18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8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를 유지해야 한다. / 보다 높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3) 찬성/반대 중 우리 미니 모둠에게 주어진 역할에 표시한 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미니 모둠의 반론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미니 모둠의 의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 / 반대)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인 만큼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사적으로도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예상되는 반론	학교와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되어 혼란을 낳을 것이다.

(4) 이번에는 상대 미니 모둠과 입장을 바꾸어 봅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근거와 예상되는 상대 미니 모둠의 반론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미니 모둠의 의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 / 반대)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	학생들은 정치적 선동에 휩쓸릴 여지가 있다. 학생 대부분이 학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상되는 반론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한 방법이 된다.

(5) 이제 상대 미니 모둠과 만나 각 미니 모둠이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봅시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		
예상되는 반론		
우리 모둠의 주장과 그 주장을 선택한 이유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 /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선거권이 없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글을 읽고, 우리나라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의 방안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 의회 혹은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3~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온라인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청소년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법 활동을 한다. 청소년 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일반 청소년이나 청소년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어떤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제안이 청소년 의원 20명 이상과 일반 청소년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가 되어 청소년 의회 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청소년 의회의 '제안하기' 코너에 올라왔던 안건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욕 처벌법 개정', '자전거에 전조등(헤드라이트) 필수 장착' 등이 있다. 청소년 의회는 단순히 청소년들끼리 토론이나 선거, 입법 활동을 경험해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의회에서 만든 법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입법 청원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일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안에 반영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년의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출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s://youthassembly.or.kr/>

(1)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역시 성인과 다른없는 주권자이자, 미래의 민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밝힌다.
서명 운동이나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18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3) 평소에 관심이 있던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적어봅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4)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주민으로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소통/참여' 탭을 눌렀더니 '제안' 메뉴가 있었다. 누구나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5)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의견을 제안해봅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해 이로 인한 위험을 막고,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청소년 정치 참여의 역사

기록상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8년 11월 독립협회가 해산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만 명의 군중이 종로에 모였다. 이때 소학교에 다니던 11살 장용남이 시위대를 향해 연설하여 장내를 들끓게 했다. 공권력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장용남과 태억석을 퇴학 처분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최초의 사례로 남았다. 각 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이에 교사들도 동참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 나선 일은 계속되었다. 1919년 3·1 운동, 1926년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표시한 동맹휴업을 시작으로 6·10 만세운동, 1929-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 그 중심에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6.25 전쟁을 지나 청소년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야 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4.19혁명이 있다.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 시위는 전국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고, 청소년들은 국가적 위기와 투쟁의 선두에 있었다.

[출처] 아름다운재단 ‘[Z세대의 공익활동③] 청소년 사회참여의 역사’ <https://beautifulfund.org/49891/>

2 프랑스와 독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프랑스에서는 1994년부터 매년 전국 지역구에서 뽑힌 어린이 의원 500여 명이 모여 법률안을 만들고 그중 가장 시의적절하고 현실성이 높은 최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성인으로 구성된 ‘진짜’ 지역구 의원들은 어린이 의원들이 선정한 최우수 법안을 공식 법률로 만들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기초로 실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린이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학용품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1985년 처음으로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의회는 공식 기구이다. 청소년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4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청소년 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각 시의 청소년 의회 의원 정수는 보통 10~40명 정도이고 대도시는 60명이 넘기도 한다. 독일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한다.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는 청소년의 놀이 공간, 청소년 시설 개선, 공공 장소의 안전, 대중교통, 아르바이트 등이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

3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참가신청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투표 게시판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퀴즈로 정리하기

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18세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골라봅시다.

- ㄱ.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 ㄴ. 유권자로서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써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3 다음 중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골라봅시다.

- ㄱ.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 ㄴ.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 ㄷ.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밝힌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1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 현황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16세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동티모르 등		17세
OECD 회원국	오스트리아	16세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33개국	18세

2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 변천사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로 시작됐다가,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20세)'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한 공직선거법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선거권 연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비롯한 약 5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3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종류와 피선거권 연령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으로 정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 종류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40세 이상
국회의원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9).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 도서 및 논문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정문성(2017). 토의·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6).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9).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신문 기사

연합뉴스(2021.07.20.). 광주·전남교육감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낮춰야".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7/16/A7Y264VAHNF35JFVHERWF4AFOY/>

■ 홈페이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s://youthassembly.or.kr/>

아름다운재단 '[Z세대의 공익활동③] 청소년 사회참여의 역사'

<https://beautifulfund.org/4989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EBS 뉴스 '2020.04.15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역사적 첫 투표'

<https://youtu.be/vmSGhtlzH4Q>

주제 3. 선거 제도

1차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	
차시 소개	<p>본 차시는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하고,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 포스터를 살펴보고 선거 제도의 종류를 탐구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가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직접 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의민주제 하에서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선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수업에서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를 주제로, 또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주제로 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3-03]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p>[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선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p>활동 1 <생각 키우기></p>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p>활동 2 <생각 넓히기></p>	가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해보기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 민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인 선거의 종류를 파악하고, 선거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곧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선거 제도를 국가의 운영 제도라는 큰 맥락 하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2]를 할 때, 정당명을 정하고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국회의원선거의 실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가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 모둠을 사전에 정하고(4~5명이 1모둠) 자리 배치를 하여 수업을 준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입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할 때에는 멘티미터(Mentimeter)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체 답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활동 2]를 할 때는 학생들이 작성한 선거 포스터와 투표용지를 패들렛(Padlet)에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고,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
교수·학습 목표	1.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 간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열기: 선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 선거, 재보궐 선거 등의 다양한 선거 홍보 포스터를 살펴본다. -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종류를 찾아보고, 각각의 선거를 통해 누구를 선출하며, 선거의 주기는 얼마인지를 조사한다.</p>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이 포스터는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나요? -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에서 같지만,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장, 도봉구청장, 서울시의회의원, 도봉구의회의원,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 선거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지방선거 포스터를 보고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의 발언 예시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을 학생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과 연관지어 보충한다. - 선거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하나의 선거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거로 여러 명의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을 설명한다.</p> <p>● 활동지 질문 (1) 다음 선거 홍보 포스터를 보고, 선거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선거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p>	5	PPT 도입 자료

	<p>* 수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정부 형태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행정부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을지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가상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모둠/학급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p>활동 1</p>	<p>* [활동 1]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정부 형태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 만약 가상의 어떤 국가가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면,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만약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면 무엇이 가장 크게 변할까요? - ‘과반’이란 절반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석 수가 300석이라면, 과반수는 몇 석일까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반수’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예. 300석 중 151석 이상일 때 과반수). -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A중학교와 B중학교가 합쳐서 한 명의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는 비유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이 경우에 의견 충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정부 형태에 동그라미 친 후, 각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2) 만약 어떤 나라가 [그림 2]와 같은 정부 형태라면, 각각의 선거 결과에 따른 내각(행정부) 구성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활동 2] 가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에서 비례대표 선거를 체험한다. 	<p>20</p>	<p>PPT 활동 자료 2</p>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은 가상의 정당 이름과 메인 슬로건, 서브 슬로건을 만들고, 비례대표 명부를 4번까지 만든 후 선거벽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세요. - 슬로건이란 선거 운동에서 정치인 또는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정당 및 비례대표 명부를 정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당명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사과당, 포도당, 바나나당 등). - 선거벽보(포스터) 및 투표용지는 사이버선거역사관의 선거체험관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만들도록 한다. 또는 온라인 투표(밴드기능)를 할 수 있다. - 소규모 학급인 경우에는 1~2명이 1개의 모듬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국회의원 의석 수는 모듬의 개수, 학급 인원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6명으로 모듬을 구성합니다. (2) 각 모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포스터(선거벽보)를 만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선거 기호(번호)와 정당 이름을 정합니다. - 사이버선거역사관-선거체험관을 활용하여 포스터(선거벽보)를 제작합니다. - 비례대표 명부를 4번까지 만듭니다. * 정당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 파일(JPG 파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는 정당의 메인 슬로건 / 서브 슬로건을 정합니다. * 슬로건이란? 선거 운동에서 정치인 또는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3) 포스터(선거벽보)를 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단,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4) 개표 결과, 각 정당이 몇 표를 받았는지 공개합니다. (5)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합니다. <p>*투표용지 및 선거벽보(포스터) 제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선거체험관을 활용합니다. (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p>		
정리	<p>* 활동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결과를 정리한 뒤, 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p>*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차시 활동을 정리한다. 	5	PPT

선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1) 다음 선거 홍보 포스터를 보고, 선거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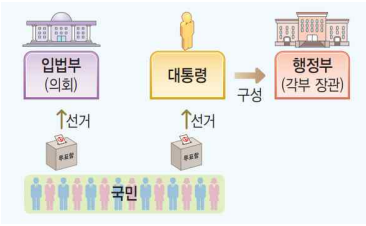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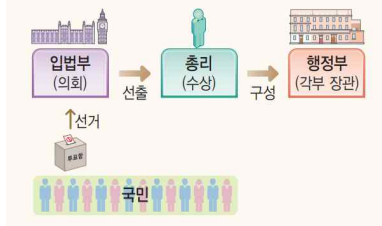
	포스터 ①	포스터 ②	포스터 ③	포스터 ④
어떤 선거인가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누구를 뽑나요?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가능하다.
언제 실시한 선거인가요?	2020년 4월 15일	2017년 5월 9일	2018년 6월 13일	2021년 4월 7일
몇 년에 한번씩 실시하나요?	4년	5년	4년	빈 자리가 생겼을 때

(2) 선거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대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 다음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 1]	[그림 2]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뽑는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을 뽑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행정부)를 구성한다.</p>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1)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정부 형태에 동그라미 친 후, 각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 1]	[그림 2]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뽑는다. ●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는 국민들의 선거로 뽑지 않는다. ●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출처]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2) 만약 어떤 나라가 [그림 2]와 같은 정부 형태라면, 각각의 선거 결과에 따른 내각(행정부) 구성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의회 의원 선거 결과(A 상황)					의회 의원 선거 결과(B 상황)				
총 300석					총 300석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120	100	50	20	10	170	60	30	30	10

*과반수 정당이 있나요?

A 상황	No	→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당인 (가)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B 상황	Yes	→ 과반수를 확보한 (가)당의 대표가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가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해 보기

●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하나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석수-6석) : 각 지역구(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석수-4석):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해 봅시다.

* 활동 방법

(1) 4~6명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2) 각 모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포스터(선거벽보)를 만듭니다.

- 정당의 선거 기호(번호)와 정당 이름을 정합니다.
- 오른쪽의 QR코드에 접속하여 포스터(선거벽보)를 제작합니다.
- * 정당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 파일(JPG 파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는 정당의 메인 슬로건 / 서브 슬로건을 정합니다.



* 슬로건이란? 선거 운동에서 정치인 또는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3) 포스터(선거벽보)를 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합니다.(단,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4) 개표 결과, 각 정당이 몇 표를 받았는지 공개합니다.

(5)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합니다.

*투표용지 및 선거벽보(포스터) 제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선거체험관을 활용합니다.(<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우리 모듬의 선거벽보(포스터)	우리 모듬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명부순위</th> <th style="width: 50%;">후보</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td><td></td></tr> </tbody> </table>	명부순위	후보	1		2		3		4	
명부순위	후보											
1												
2												
3												
4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명	득표수	의석수	당선인									

1 선거 후보자의 기호(번호)는 어떻게 매길까?

기호	정당 및 후보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1	A당 허난설현	50
2	B당 이순신	30
3	C당 유관순	10
4	세계당 홍길동	0
5	함께당 임격정	0
6	무소속 김순희	0
7	무소속 이영수	0

선거벽보나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기호(숫자)가 붙어 있다. 기호가 1번이나 2번이면, 다른 기호를 가진 후보보다 더 유리하게 보이기도 한다. 선거 기호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것일까?

선거 기호는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매긴다. 즉,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기호 1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고,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당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는다. 무소속 후보는 그 다음에 추첨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2 만약 선거 결과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선거 결과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중에서 가장 적은 나이 차이는 불과 1살이었다.

동일한 득표수에서 연장자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뿐이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출처] 한겨레(2018.06.13.). “한 표의 소중함... 1표 차이 13번·동점도 7번이나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8865.html>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누가 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5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석을 배분받을 것이다.

정당명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20%	10%
의석수	20석	15석	10석	5석

그렇다면, A당의 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누가 되는 것일까? 국회의원선거를 하기 전,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배분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석수보다 더 많은 숫자로 후보자 명부를 결정하고, 순번을 매긴다. A당이 받게 되는 의석 수가 20석이라면, A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중에서 20번째 후보자까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선거 제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의 의석 배분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2020년에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4 지방 선거는 왜 투표용지가 많을까?

지방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지방 자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하지만 지방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대통령선거는 투표용지가 1장,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용지가 2장인 데 비해 지방 선거는 투표용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지방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선출한다.

구분	주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	서울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지역구)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서울시교육감
기초	도봉구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의원(지역구)	도봉구의회 의원(비례대표)	

국가 기관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뉘듯이, 지방 자치에서도 입법부(지방의회)와 행정부(지방자치단체장)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과 ‘기초(시, 군, 구)’로 나뉜다. 자신의 주소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광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초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실시하듯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할 때에도 지역구과 비례대표를 각각 뽑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교육감을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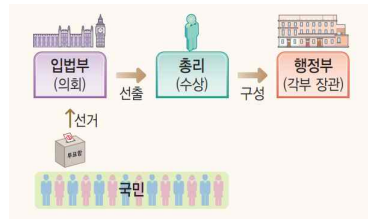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퀴즈로 정리하기

1 OX 퀴즈를 풀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년마다 실시한다. (O, X)

2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요?



의원내각제

3 금고의 비밀 번호는 무엇일까요?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금고의 비밀 번호가 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명의 유권자가 []표를 행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년입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선거 기호 []번을 배정받습니다.

2

5

1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선거 제도와 정부 형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 의원 선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 핀란드의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핀란드에서는 선거 기간이 되면 곳곳에 많은 벽보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훨씬 다양한 정당들의 후보들이 한 선거구에서 뽑힐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핀란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으며, 모두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019년에 실시한 핀란드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13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의회 의석 수는 200석이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 정당이 절대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협상, 타협, 조율을 통해 공통의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1회 북유럽의 완전 비례대표제

https://youtu.be/f4Kgvn_lvsE

2 의원 내각제란?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며,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총리를 교체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일원적이지 않고 유연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다. 행정부의 존립이 의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통제가 용이하다.

하지만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의회 다수파가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프랑스 3공화국 시대에는 70년 동안 무려 104회나 내각이 교체됐다.

이처럼 의원내각제는 총리와 장관들이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되며, 의회와 내각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권당의 의원수가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당과 세력을 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 이야기로 보는 의원내각제 편 >

참정내각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인석 정당이나 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해요.



참정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회협조를 통해 정책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어요.

대통령 중심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관계를 강조해 삼권분립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다수당의 힘은... 소수정당 탄압

그렇지만 의원내각제는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원포가 우려되고 소수 정당이 난립할 경우 국가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참정총리는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했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sn/ex/bbs/View.do?cbIdx=1175&bcIdx=9064&relCbIdx=1097>

■ 도서 및 논문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 신문 기사

한겨레(2018.06.13.). “한 표의 소중함… 1표 차이 13번·동점도 7번이나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8865.html>

■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7219>

<https://www.nec.go.kr/site/sn/ex/bbs/View.do?cbIdx=1175&bcIdx=9064&relCbIdx=10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1회 북유럽의 완전 비례대표제

https://youtu.be/f4Kgvn_lvsE

주제 3. 선거 제도

2차시	다양한 선거 제도	
차시 소개	<p>2차시 ‘다양한 선거 제도’는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를 찾아보고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해외의 선거 제도를 비교하면서, 미래의 선거 일기를 써 보는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선거 제도를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차시는 먼저 우리나라에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해외의 독특한 선거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를 비교하면서 선거 제도의 차이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짚어본다. 또한, 유권자로서 자신의 첫 선거가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미래의 선거 일기를 쓰면서 대안적인 미래의 선거 제도를 제안해본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수업에서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를 주제로, 또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주제로 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p>[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p>활동 1 <생각 키우기></p> <p>활동 2 <생각 넓히기></p> <p>정리 <생각 다지기></p>	<p>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p> <p>우리나라와 대통령선거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비교하기</p> <p>대안적 선거 제도 제안하기 - 미래의 선거 일기 쓰기</p> <p>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p>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과 [활동 1]을 다룰 때 학생용 읽기 자료에 제시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와 프랑스 대통령선거를 비교할 때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선거 제도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2]를 할 때,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대안적인 선거 제도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번 시간에 알게 된 해외의 다양한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등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수업 시 실시간 채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활동 2]의 미래의 선거 일기 쓰기 활동은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이어 쓰기 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혹은 패들렛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뒤 유사한 것끼리 묶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다양한 선거 제도
교수·학습 목표	1.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3. 대안적인 선거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독특한 선거 제도의 사례를 함께 읽고, 사례에 해당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 만약 우리나라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고, 발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사례를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에 위임투표제/의무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발표해볼까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함께 읽으며 해외의 선거 제도의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 학생들이 위임투표제/의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가진 의견은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한쪽 의견만을 이야기할 경우, 다른 쪽의 의견도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사례에 해당하는 선거 제도의 명칭을 아래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2) 해외에서 위와 같은 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만약 우리나라에도 위 사례에 나타난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div> <p>* 수업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제도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제도를 비교해보고, 만약 우리나라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상해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유권자로서 자신의 첫 공직선거가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대안적인 미래의 선거 제도를 제안해보는 '미래의 선거 일기 쓰기'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10	PPT 도입 자료

<p>활동 1</p>	<p>* [개별활동]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비교하기 -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프랑스 결선투표제 방법을 살펴본다. -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제도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제도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만약 우리나라가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상해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방식과 프랑스 대통령선거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 프랑스는 왜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일까요? - 만약 우리나라가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결선투표제가 ‘더 좋은’ 투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규칙과 방식이 달라질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결선투표제와 사표(死票; 선거 때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한다.</p> <p>● 활동지 질문 (1) 프랑스에서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만약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봅시다.</p>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개별활동] 대안적 선거 제도 제안하기 - 미래의 선거 일기 - 선거 일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가 언제인지 찾아 본다. - 자신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미래의 선거 일기를 작성한다. - [자료 1~3]을 참고하여, 선거 방법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의 선거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일기를 작성한다.</p>	<p>15</p>	<p>PPT 활동 자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의 일정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는 언제인가요?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부터 투표권이 있고, 선거일 당일이 생일인 경우에도 투표권이 있음을 안내한다. - 만약 선거 일정 중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가 없는 경우, 임기를 고려하여 계산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는 [자료 3]의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상상을 돕는다. ● 활동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언제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될까요? 다음의 선거일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공직선거가 무엇인지 찾아 봅시다. (2) 내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하며 미래의 선거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선거 일기 쓰기'를 발표한다.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정리한다. 	5	PPT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

* 다음은 해외의 독특한 선거 제도의 사례입니다.

	<p>[사례 1] 의무투표제 : 투표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면 어떨까?</p> <p>호주에서는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정권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멕시코,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p>
	<p>[사례 2] 위임투표제 : 다른 사람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p> <p>네덜란드는 1인 3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서명을 하면 가족과 친구 등 최대 2명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투표율은 70~80%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p>
	<p>[사례 3] 전자투표제 :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p> <p>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국가다. 에스토니아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휴대전화와 PC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p>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각 사례에 해당하는 제도의 명칭을 아래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위임투표제 의무투표제 전자투표제

(2) 해외에서 위와 같은 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3) 만약 우리나라에도 위 사례에 나타난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나의 의견	이유
위임투표제	찬성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위임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돈을 주거나 협박해서 투표권을 강제로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투표제	찬성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	찬성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투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비교하기

* 다음은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선거 결과입니다.

선거일	1997.12.18.(수)			
투표율	80.7%(투표자 26,042,633명)			
임기기간	5년(1998년 2월 ~ 2003년 2월)			
투표결과				
				
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	권영길 국민승리21	허경영 공화당
득표율 38.74%	득표율 40.27%	득표율 19.20%	득표율 1.19%	득표율 0.15%
	당선			

[출처] 사이버선거역사관 선거전시관 - 대통령선거사 (<http://museum.nec.go.kr/museum201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shtml)

* 다음은 프랑스 대통령선거 제도와 1981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는데, 단지 1등이 아니라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후보라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1차 선거에서 50%를 넘는 지지를 받은 사람이 나오면 선거가 종료되지만, 만약 아무도 과반이 되지 못한다면 1차 선거에서 1위와 2위를 한 후보가 2차 선거(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여기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선거에는 많은 후보가 출마합니다. 1차 선거에서 2위 안에 들면 결선 투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

후보	정당	1차 투표 득표율		2차 투표 득표율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민주연합	28.32%	결선 진출	48.24%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25.85%	결선 진출	51.76%	당선
자크 시라크	공화국연합	18.00%			
조르주 마르쉐	프랑스 공산당	15.35%			

(1) 프랑스에서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신중하게 투표하기 위해서

(2) 만약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50%를 넘는 득표율을 보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2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2위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대안적 선거 제도 제안하기 - 미래의 선거 일기

(1) 나는 언제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될까요? 다음의 선거일정을 살펴보고, 다음 표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공직선거에 표시해 봅시다.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일	선거의 종류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
2026년 6월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7년 3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

(2) 다음 자료를 읽고, 내가 참여하게 될 공직선거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하며 미래의 선거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자료 1] 영국의 국민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국민들이 자유로운 것은 선거를 하는 동안 뿐이며, 대표자가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최고 권력자로 만든 후, 임기 동안 대표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매우 놀랍다.

[출처] 한겨레(2007.03.25.). “새학기 학급 회장을 뽑는다는 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98632.html>

[자료 2]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수보다 5배 이상 많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표율(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의 비율)이 높으며, 선거구당 당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기가 많은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다수당에 유리하다.

[자료 3]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과 같은 공직선거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터치스크린 투표방식(투표소에 터치스크린 투표 장비를 설치해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여 진행)을 이용한 전자 투표를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다. 투표와 개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성과 해킹의 위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에 국제 해킹 단체에서 미국 투표 집계기를 해킹하기도 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2020.04.16.). “언택트가 불고 온 바람 ‘전자투표’, 대선·총선에도 쓸 수 있을까?”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94304>

활동 TIP

- (1) [자료 1], [자료 2]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작성합니다.
- (2) [자료 3]에 나타난 전자 투표가 도입되었을지, 도입되었다면 어떤 방식인지, 투표율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며 작성합니다.
- (3) 이번 시간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오늘은	년	월	일	날씨
.....				
.....				
.....				

1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투표 방식이 있다고?

선호투표제는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가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투표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의 후보 이름 옆에 지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투표한다.

먼저 투표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해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그리고 개표할 때는 1순위 선호를 기준으로 우선 집계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순위 선호도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한 사람을 탈락시킨다. 그 다음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해당 투표지에 쓰여 있는 2순위 후보자에게 각각 나눠주고 그것을 1순위 표로 환산하여 다시 집계한다.

두 번째 집계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또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번의 투표로 결선 투표를 한 것과 유사하게 과반 득표한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후보들의 지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쉽지 않고,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2차 투표의 지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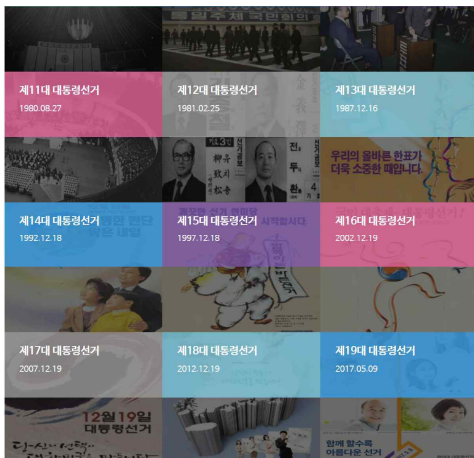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에 접속하면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추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선거전시관	대한민국 선거사
특별전시관	새일꾼 1948-2020(VR 체험)
선거체험관	선거벽보, 투표용지 만들기 / 투표소 모의체험
선거교실	선거란 무엇인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 대한민국 선거사 - 대통령선거사



* 투표소 모의체험

퀴즈로 정리하기

1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O, X)

2 빈칸에 들어갈 제도를 적어 봅시다.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를 넘는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과반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를 하게 된다.

3 ‘미래의 선거 일기’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선거 제도 중 가장 인상 깊은 제도는 무엇이었나요?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해외의 다양한 선거 제도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나는 대안적인 선거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미국 선거 제도와 영화 ‘스윙보트’

● 미국의 선거 제도 -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제

미국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전체 유권자가 일반 투표(popular vote)로 대통령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약 5주 후에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를 하게 된다.

미국의 선거인단 538명은 미국의 상원의원 수(100명), 미국의 하원의원 수(435명), 그리고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3명)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더한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100명)	미국 하원의원(435명)	미국 수도 워싱턴 D.C.(3명)
전체 주(50개) * 2명	주별 인구 비례로 할당	

선거인단은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를 통해 각 주별 선거인단이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된 결과 대로 투표하게 된다. 즉, 실제로는 일반 투표를 통해 이미 대통령선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고, 선거인단 투표는 형식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승자독식제(the winner takes it all)’라는 점이다. 미국의 일반 투표 결과는 각 주별로 집계하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A당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선거인단 55명을 A당 후보가 모두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득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것이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46.1%)가 힐러리 클린턴(48.2%)보다 전국적으로 더 낮은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다.

[출처]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 만약 나의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면? 영화 스윙보트(2008)

* 제목 ‘스윙보트’는 ‘부동(浮動)층’, 즉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의미한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 텍시코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낚시와 맥주를 즐기며 빈둥거리는 아버지 버드와 똑똑한 12살 딸 폴리가 살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폴리는 아버지가 선거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선거일, 선거 시스템의 착오로 인해 버드의 표가 무효가 되면서 버드에게만 10일 안에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화당 소속 현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률을 이룬 가운데, 뉴멕시코주의 결과가 전체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 상황에서 버드에게 주어진 한표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전세계의 언론과 양측 대선캠프가 버드에게 관심을 집중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은 버드의 의견에 따라 공약을 수정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취향에 의해 국가의 지도자가 좌우되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투표에 무관심했던 버드는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의 무게감을 깨닫게 된다.

[출처] 네이버 영화 - 스윙보트(2008)



■ 도서 및 논문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설규주(2018).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 신문 기사

한겨레(2007.03.25.). “새학기 학급 회장을 뽑는다는 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98632.html>

디지털데일리(2020.04.16.). “언택트가 불고 온 바람 ‘전자투표’, 대선·총선에도 쓸 수 있을까?”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94304>

■ 홈페이지

네이버 영화 - 스윙보트(2008)

네이버 - 역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주제 4. 선거와 정당

1차시	정당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차시 소개	<p>정당은 정치 참여의 주요 주체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본 수업은 정당의 의의와 기능, 정당의 선거 공약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본 차시에서는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에서 정당이 지니는 의의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 다음 차시에서 수행할 모의 정당 및 선거 공약 만들기 활동에 앞서 공약 평가 기준에 따라 기존 정당의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을 평가해보는 활동을 통해 선거, 정당과 공약이 학생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의 유권자로서 선거와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중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정치 주체 중 하나인 ‘정당’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두 장이라고?
	<p>활동 1 <생각 키우기></p>	정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
	<p>활동 2 <생각 넓히기></p>	정당별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 평가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당제, 복수정당제 등의 정당 관련 개념은 정당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나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상회하는 개념이므로 개별 용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을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사가 교실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돕되, 교사의 의견이나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구글 잼보드(Google Jamboard) 또는 패들렛(Padlet)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체 공약과 학생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이 뽑은 최고의 공약을 즉시 확인하게끔 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정당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교수·학습 목표	1. 정치 참여의 주체인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공약 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별 공약을 평가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두 장이라고? -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예시(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제시하고,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은 현대 대의정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역구 의원은 정당과 관계없고, 비례대표 의원만이 정당과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이 미리 당선 순위를 표시한 후보자 명부를 공표하고,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명부의 우선순위대로 당선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 학생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무당’이 무소속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p> <p>● 활동지 질문 (1) 우리 동네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이름을 적어봅시다. (2)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4)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5) 다음을 읽고, 두 학자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p> </div> <p>- 비례대표 투표는 지역구 투표와 달리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는 각 정당의 이념과 각 정당</p>	5	PPT 도입 자료

	<p>이 제시하는 공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p> <p>* 수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정당의 의미와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을 평가해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p>활동 1</p>	<p>* [학급활동] 정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정당들에 표시한 후, 가장 인상 깊은 정당 이름과 그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제시문을 통해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워 정치적 총원 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파악한다. - 제시된 헌법 조문 일부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일당제와 복수정당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당 제도를 파악하고, 일당제의 문제점과 복수정당제 보장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우리가 아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소속 정당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해 정책에 반영시키며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가장 인상 깊은 정당 이름과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활동을 할 때, 특정 정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당 기호에서 1, 2번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경우,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3번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첫 번째 칸을 차지했음을 설명한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유난히 긴 이유를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수록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활동지 질문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1) 왼쪽 사진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정당에 모두 √ 표시해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정당 이름과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p> <p>(2)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p> <p>(3)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문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p> <p>(4) 일당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p> <p>(5)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p>활동 2</p>	<p>* [개별활동] 정당별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여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에서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사로잡고자 함을 이해한다. - 선거 공약 평가를 위한 SMART 지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공약 평가 기준을 세워본다. - 각자 세운 기준을 참고하여 정당별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을 살펴본다. <p>* [학급활동] 우리 학급이 뽑은 최고의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게시된 공약 리스트 중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공약에 별점 스티커를 부착한다. -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부착된 공약을 ‘우리 학급이 뽑은 최고의 공약’으로 선정하고, 해당 공약이 최고의 공약으로 선정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좋은 공약의 기준을 다시 세워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선거 공약을 평가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우리 학급이 뽑은 최고의 공약’ 활동을 위해 칠판에 부착할 공약 투표용지와 별점 스티커를 미리 준비한다. - 공약을 정당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정당을 평가할 때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공약을 평가하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어떤 공약이 같은 정당에서 제안된 것인지를 공개할 수 있다. ● 활동지 질문 (1) 다음의 선거 공약 평가 지표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공약 평가 기준을 세워봅시다. (2) 나의 공약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의 정당별 공약 중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고 짧은 한 줄평을 남겨봅시다. (3) 칠판에 부착된 공약 리스트 중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약에 </div>	<p>20</p>	<p>PPT 활동 자료 2 별점 스티커 칠판 게시용 공약 리스트 공약 투표용지</p>

	<p>별점 스티커를 붙이고, 해당 공약이 최고의 공약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p> <p>[자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정당별 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320 392 1098 898"> <tr> <td data-bbox="320 392 445 517">미래한국당</td> <td data-bbox="445 392 1098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정책 중단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td> </tr> <tr> <td data-bbox="320 517 445 602">더불어시민당</td> <td data-bbox="445 517 1098 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용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td> </tr> <tr> <td data-bbox="320 602 445 728">정의당</td> <td data-bbox="445 602 1098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 개선(초·중·고 한 반 20명 실현) - 석면 등 학교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td> </tr> <tr> <td data-bbox="320 728 445 898">국민의당</td> <td data-bbox="445 728 1098 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모집의 70%대 수시 비중을 30% 수준으로 하향 - AI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AI인재 양성 특수목적이고 신설 추진) </td> </tr> </table>	미래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정책 중단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더불어시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용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 개선(초·중·고 한 반 20명 실현) - 석면 등 학교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모집의 70%대 수시 비중을 30% 수준으로 하향 - AI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AI인재 양성 특수목적이고 신설 추진) 		
미래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정책 중단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더불어시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용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 개선(초·중·고 한 반 20명 실현) - 석면 등 학교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모집의 70%대 수시 비중을 30% 수준으로 하향 - AI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AI인재 양성 특수목적이고 신설 추진) 										
정리	<p>*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정리하면서 선거, 정당, 공약의 관계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 공약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 	5	PPT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두 장이라고?

*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20>

(1) 우리 동네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이름을 적어봅시다.

(2)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인물(후보자)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3)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소속 정당을 비롯해 후보자의 경력, 학력, 전문성,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핀다.

(4)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 주요 정책, 선거 공약 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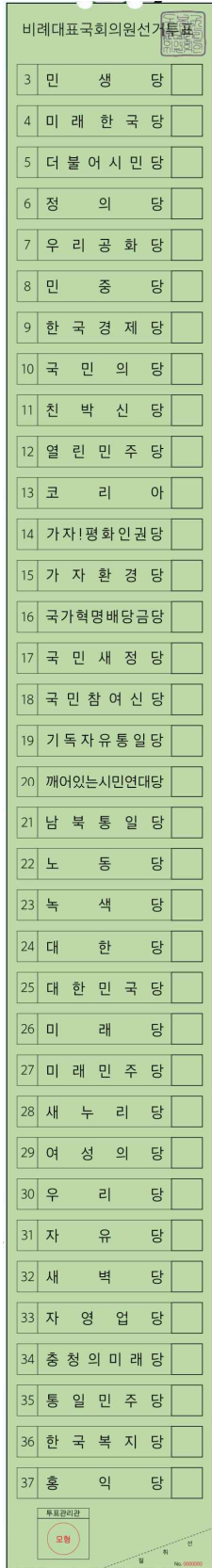
(5) 다음을 읽고, 두 학자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정치이다.”
 - 피터 메이어(정치학자)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며, 정당을 빼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 샬츠슈나이더(정치학자)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정당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

정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



(1) 왼쪽 사진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정당에 모두 √ 표시해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정당 이름과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2) (가), (나)를 통해 각각 알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 ○○당과 □□당이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예비후보들이 공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당내 경쟁에 돌입했다. 각 당의 공천 관리 위원회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총선 부동산 공약이 모두 공개되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공약들을 발표했다.

(가)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여 시민을 대변할 대표로 선출되도록 뒷받침한다.
 (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공약을 제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3)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문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 는 보장된다.

정당은 정치적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다.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로 구분된다.

일당제란?	복수정당제란?
하나의 정당만 활동하거나 하나의 지배적인 정당이 있어 다른 정당들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대표적인 일당제 국가 중국(공산당)	대표적인 복수정당제 국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4) 일당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정당만이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독재 정치를 할 우려가 있다.

(5)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반영할 수 있다.

정당별 청소년·교육 분야 공약 평가

(1) 다음의 선거 공약 평가 지표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공약 평가 기준을 세워봅시다.

구체성 (Specific)	-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수치나 비율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달성가능성 (Achievable)	- 현행 법이나 제도와 부합하는가?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가? - 현재의 여건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적절성 (Relevant)	- 지역의 주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 공약들 간에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가? - 투입된 비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시간적 계획성 (Timed)	- 임기 내에 착수 및 완료할 수 있는가? - 연차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선거 공약 평가를 위한 SMART 지표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나의 공약 평가 기준을 토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공약 중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고 짧은 한줄평을 남겨봅시다.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학자금 대출 이용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개선(초·중·고 학급당 20명 실현)	
석면 등 학생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대학입시 모집의 수시 비중을 70%대에서 30% 수준으로 하향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정책 중단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AI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3) 첩판에 부착된 공약 리스트 중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고, 해당 공약이 최고의 공약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1 세계의 이색 정당 - 유럽의 해적당(Pirate Party)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해적당은 오픈소스(무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와 프리 소프트웨어(원저작자가 금전적인 권리를 보유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고, 창작물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적당은 저작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고, 비영리 저작물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적당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정당의 명칭은 불법복제판을 뜻하는 ‘해적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정당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해 ‘해적당’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2 세계의 이색 정당 - 일본의 감세일본당(減稅日本)

2011년 일본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민당의 후보를 누르고 지역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정당의 이름은 ‘감세일본당’. 당명에서 알 수 있듯 이 정당은 ‘감세(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라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 세계의 이색 정당 - 이스라엘의 은퇴자당(Gimla'ey Yisrael)

히브리어로 ‘기말림당’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은퇴자당은 은퇴한 노인들이 설립한 정당으로, 2006년 총선에서 큰 이슈를 끌었습니다. 창당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총선에서 총 120석 중 7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은퇴자당은 연금 확대와 같은 은퇴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젊은 층에게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4 세계의 이색 정당 - 독일의 녹색당(Green Party)

녹색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지구촌의 의지는 정당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독일의 녹색당은 1979년 3월 독일 헤센주에서 환경보호단체, 인권옹호단체 등 약 250여 개의 단체가 모여 조직 기반을 구축한 후, 1980년 하나의 정당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녹색당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독일의 녹색당은 가장 전통 있는 정당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스토리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키워드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퀴즈로 정리하기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봅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정당 정치이다.”

- 피터 메이어(정치학자)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며, 정당 을 빼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 샤프스슈나이더(정치학자)

2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O, X)

3 다음과 같은 정당 제도를 보장하는 이유를 써봅시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여러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정치 참여의 주체인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공약 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별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 - 정당의 구성과 성립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 - 정당의 창당 절차



3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 - 입당과 탈당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 신청을 해야 한다. 입당 신청은 ①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 제출,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용, ③당헌·당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 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다.

탈당을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탈당 신고 역시 입당 신고와 마찬가지로 ①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 신고서 제출,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용, ③당헌·당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야별정보>정당정보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119>

■ 도서 및 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스토리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키워드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신문 기사

■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야별정보>정당정보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119>

주제 4. 선거와 정당

2차시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정당과 선거 공약	
차시 소개	<p>정당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되는 본 차시는 현실의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약’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 만들기 활동과 선거 공약 제안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차시에서는 관심 정책 분야와 관련된 기존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탐색한 후, 선거에 출마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정당을 만들고 사회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선거 공약을 선거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공약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의의와 역할을 이해함과 동시에 정치와 선거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를 주제로 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미01-02]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p> <p>[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관심 정책 분야 탐구하기
	<p>활동 1 <생각 키우기></p>	우리가 꿈꾸는 정당
	<p>활동 2 <생각 넓히기></p>	우리가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선거 공약을 제안할까?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활동 시, 모든 모둠원이 고루 참여하고 서로 존중받으면서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선거 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때, 정당의 목적과 이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최대한 구체화하도록 지도한다. - 선거 공약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할 때,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선거의 정당별 공보물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정당을 소개하고 공약을 발표할 때, 여러 모둠이 발표를 진행하므로 발표 순서를 미리 알리고 발표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 모둠 학습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면서 정치적 관심사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 공약 포스터 제작 활동을 공약 카드뉴스 제작 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우리 손으로 만드는 정당과 선거 공약
교수·학습 목표	1. 정당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모의 정당을 만들 수 있다. 2. 모의 정당의 당원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관심 정책 분야 탐구하기 - 모둠별로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선택하게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colspan="3">정책 분야</th> </tr> </thead> <tbody> <tr> <td>환경</td> <td>청년·여성</td> <td>일자리·노동</td> </tr> <tr> <td>문화</td> <td>복지·평등</td> <td>기타</td> </tr> </tbody> </table> <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5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찾아보고, 각 모둠이 선택한 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공약을 찾아 정리한다.</p>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모둠별 토의를 통해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하나 골라봅시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 반드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약을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수업 당시의 최근 선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정책 분야 탐구 시, 강사가 교실을 순회하면서 가급적 여러 모둠의 선택이 특정 정책 분야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정책 분야가 고루 선택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활동 전 먼저 모둠을 구성한 후 각 모둠에서 정책 분야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고르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면 최대한 설명해주되, 개별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정당별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p> <p>● 활동지 질문 (1) 우리 모둠은 다음 중 어떤 정책 분야에 가장 관심이 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해 2020년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찾아보고, 우리 모둠이 선택한 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공약을 찾아 정리해봅시다.</p>	정책 분야			환경	청년·여성	일자리·노동	문화	복지·평등	기타	10	PPT 도입 자료
정책 분야												
환경	청년·여성	일자리·노동										
문화	복지·평등	기타										

	<p>* 수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정당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모의 정당을 만드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모의 정당의 당원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 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p>활동 1</p>	<p>* [모둠활동] 우리가 꿈꾸는 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부에서 탐구한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정당의 공약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찾아본다. - 각 모둠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정당의 이름과 슬로건, 로고 등을 정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살펴본 각 정당의 공약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다고 느꼈나요? -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 분야는 무엇이고, 그 분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당의 공약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작성할 때, 근거 없이 비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강사가 교실을 순회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둠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활동을 독려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앞서 탐구한 각 정당의 공약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찾아봅시다. (2)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우리 모둠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div>	<p>10</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모둠활동] 우리가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선거 공약을 제안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의 관심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해결이 시급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찾아본다. - 각 모둠이 하나의 정당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선거 공약을 제안한다. - 각 정당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가정 하에 정당의 이름과 각 정당이 제안할 선거 공약이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선거 공약 포스터를 제작한다. 	<p>20</p>	<p>PPT 활동 자료 2</p>

	<p>* [학급활동] 모듬활동 발표</p> <p>- 모듬별로 제작한 선거 공약 포스터를 토대로 각 모듬이 만든 정당 을 소개하고, 선거 공약을 발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선거 공약 포스터를 발표할 때, 다른 모듬의 발표를 경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갤러리 워크(미술관이나 박물관 에서 안내자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물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각 모듬별로 도슨트와 관람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도슨트는 모 듬이 제작한 산출물을 다른 모듬의 관람자들에게 설명하고, 관 람자들은 다른 모듬의 산출물 전시를 감상하면서 도슨트의 설 명을 듣는 활동) 방식을 활용하여 모듬별 선거 공약 포스터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p> <p>● 활동지 질문</p> <p>(1) 기존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 공약을 제안해 봅시다.</p> <p>(2)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당이 제안한 공약이 잘 드러나도록 선거 공약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p> </div> <p>* [학급활동] 모의 정당 선거</p> <p>- 모듬별 선거 공약 포스터를 토대로 내가 유권자라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을 뽑아보도록 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해 최고의 공약을 제시 한 정당을 선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각 모듬의 발표를 잘 들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싶나요? 각자 선거에서 뽑고 싶은 최고의 정당을 선정해 봅시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모의 선거 시 흥미 위주의 단순 인기 투표에 그치지 않고 1차 시에서 만든 공약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당과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활동지 질문</p> <p>(3) 각 모듬이 만든 정당의 선거 공약 포스터를 살펴보고, 다음 기준들을 참고하여 최고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을 뽑아봅시다.</p> </div>		
정리	<p>* 정리하기</p> <p>- 활동을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과 좋은 공약의 기준이 무 엇인지 생각해본다.</p>	5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 방금 최고의 정당을 뽑을 때, ○○ 정당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 			

관심 정책 분야 탐구하기

*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선거 공약을 직접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만들기에 앞서 각 모듬의 관심 정책 분야를 탐구해 봅시다.

(1) 우리 모듬은 다음 중 어떤 정책 분야에 가장 관심이 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	청년·여성	일자리·노동
문화	복지·평등	기타

환경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다. 환경은 우리의 삶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http://policy.nec.go.kr/>)에 접속해 2020년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찾아보고, 우리 모듬이 선택한 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공약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당	환경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음
◇◇◇◇◇당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 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당	10년 대전환 프로젝트(재생에너지 발전, 전기 자동차, 그린 리모델링 등)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당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당	환경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

우리가 꿈꾸는 정당

* 앞서 탐구한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을 분석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1) 앞서 탐구한 각 정당의 공약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찾아봅시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행동이 모여서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엇보이지 않는다.

(2)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정당 이름	우리가그린당
정당 이름의 의미	환경을 상징하는 색깔인 녹색(Green)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녹색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와 우리가 그리는(꿈꾸는) 정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정당 슬로건	WE, GREEN 우리가 그린당
정당의 주요 지지층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녹색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정당 로고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0 auto; width: 100px;"> WE, GREEN 우리가 그린당 </div>

우리가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선거 공약을 제안할까?

* 우리 모두의 관심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해결이 시급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공약을 제안해 봅시다.

(1) 기존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 공약을 제안해 봅시다.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제안하는 공약	재활용 인센티브제
구체적인 공약 내용	<p>1. 소비자 : 일반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활용하기 어려운 병뚜껑이나 아이스팩 등을 일정량 이상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p> <p>2. 기업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용기 대신 재활용이 쉬운 단일 성분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나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등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p>
기대 효과	재활용률이 높아져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당이 제안한 공약이 잘 드러나도록 선거 공약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선거 공약 포스터에 들어갈 요소들>

정당 이름, 정당 로고, 정당 슬로건, 제안하는 공약,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축약한 홍보 문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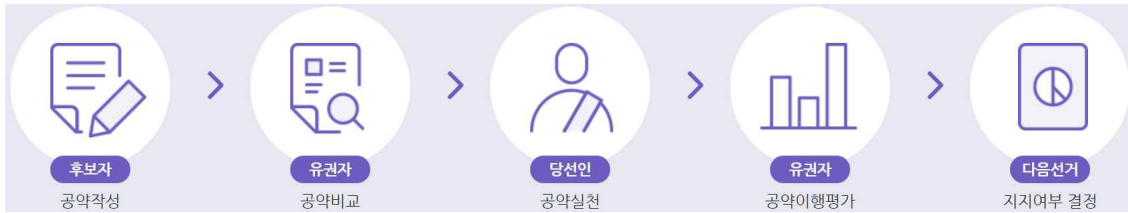
(3) 각 모둠이 만든 정당의 선거 공약 포스터를 살펴보고, 다음 기준들을 참고하여 최고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을 뽑아봅시다.

- 공약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인가?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탈리아어 마니페스토(manifesto)로 변형되어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전파되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 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운동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2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자는 법률 개정 의견을 내놓자, 교육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법 개정에는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사실상 고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정당 가입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선관위는 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게 하고, 학교 내 모의 투표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선관위가 이 같은 개정 의견을 내놓은 건 정당 활동의 문턱을 낮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검토 후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과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정당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 일찍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교원단체는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일부 선진국의 사례만 들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각종 정치 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조선에듀(2021.05.2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가입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는데...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7/2021052701022.html

퀴즈로 정리하기

1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봅시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로,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봅시다.

공약이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모든 입후보자의 의견이나 능력 또는 경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보통의 경우 입후보자의 **공약**에 의해 그 입후보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선거 공약 포스터를 만들 때 포함할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써봅시다.

정당 이름, 정당 로고, 정당 슬로건, 제안하는 공약 등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정당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정당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관심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 중소벤처, 재정경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자원,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성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교육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노동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복지, 보건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 미래통합당

보건복지, 안전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재정경제, 산업자원, 노동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재정경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교육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재정경제	자유시장 내집 마련
통일외교, 국방	짜 다 알아엿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국민안전, 여성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청년복지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보건복지, 노동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원손잡이 권익향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 도서 및 논문

■ 신문 기사

조선에듀(2021.05.2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가입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는데...”.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7/2021052701022.html

■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manifesto.or.kr>

주제 5. 선거와 미디어

1차시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	
차시 소개	<p>본 차시는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소셜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선거 후보자들의 TV 토론회, 소셜 미디어 활동이 여론 형성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찬반 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을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근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유권자로서 소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문화의 이해’ 단원 수업에서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및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 간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및 미디어를 주제로 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p> <p>[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와 여론의 관계는?
	<p>활동 1 <생각 키우기></p>	미디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p>활동 2 <생각 넓히기></p>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 검색어, TV 토론,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등 우리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알아보고, 미디어와 선거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 [활동 2]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모두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쟁 요소를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 모둠을 사전에 정하고(4~6명이 1모둠) 자리 배치를 하여 수업을 준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입 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할 때 멘티미터(Mentimeter)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체 답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활동 2]에서는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하여 모둠원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
교수·학습 목표	1.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와 여론의 관계는? - 포털 사이트에서 선거 기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찬성 또는 반대)과 그 이유를 발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포털 사이트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급상승 검색어’를 왜 제공하지 않을까요? -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완전히 폐지한 포털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여론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여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 여론이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통된 의견을 말합니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검색어 서비스의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포털 사이트와 같은 매체는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여론을 왜곡하는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조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털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발표해 봅시다. </div> <p>* 수업안내 - [활동 1] 선거 후보자의 TV 토론회와 소셜 미디어 활동이 여론 형</p>	5	PPT 도입 자료

	<p>성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가?’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근거를 수집하여 토론해 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활동 1</p>	<p>* [활동 1] 미디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p> <p>-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후보와 케네디 후보의 사례를 읽고, TV 토론회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수직선 위에 표시한다.</p> <p>-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고,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미디어의 종류 및 영향력 순위를 정한다.</p> <p>- (선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보를 서로 다른 미디어 2개를 활용하여 검색해 보고, 내용상 차이점을 찾아 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회를 본 적이 있나요? - 만약 TV토론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까요? - TV토론회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까요? 영향력의 정도를 -10과 +10 사이에서 표시해 봅시다. - 만약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면,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 많이 얻을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수직선으로 나타내도록 지도한 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본다. -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보를 찾을 때, 서로 다른 미디어 2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미디어를 방문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p>● 활동지 질문</p> <p>(1)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후보와 케네디 후보의 사례를 읽고, TV 토론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수직선 위에 표시해 봅시다.</p> <p>(2)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와 영향력 순위는 무엇인가요? 2)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디어 2개를 고른 뒤,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활동 2]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확대에 기여하는가? - 본인 계정의 유튜브 첫 화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본다. - 4~6명으로 모둠을 구성한 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 찬성과 반대 중 한 입장을 택하여 토론한 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한번 더 토론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의 유튜브 첫 화면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걸까요? - 자료를 읽은 뒤, 모둠원을 두 개의 소모둠으로 나누어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합니다. 예상되는 반론과 내가 할 수 있는 재반론도 함께 작성합니다. - 5분간 토론을 진행한 뒤,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5분간 토론을 진행합니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의 근거를 모두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쟁적인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 활동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수용하는 자세와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떠올려볼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지 질문</p> <p>(1) 본인 계정의 유튜브 첫 화면이 무엇인지 찾아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p> <p>(2) [찬반토론]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p> </div>	<p>20</p>	<p>PPT 활동 자료 2</p>
<p>정리</p>	<p>* 활동 정리 -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표해본다.</p> <p>* 정리 - 퀴즈를 통해 차시 활동을 정리한다.</p>	<p>5</p>	<p>PPT</p>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와 여론의 관계는?

[자료 1] 네이버 “총선 기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중단”

네이버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020년 4월 2일부터 선거 당일 15일 오후 6시까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용자 개인별로 검색어 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해왔지만,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 이름에 대한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료 2] ‘실검 시대가 저물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 이후는?

네이버가 2005년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줬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PC나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었던 만큼, 입소문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신뢰성 논란이 따라붙은 건 특정 입장을 반영하도록 여론을 왜곡하는 ‘실검 조작’ 논란이 빚어지면서부터였다.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정치 여론전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출처] KBS NEWS(2020.02.19.). “네이버 ”총선 기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중단“... 카카오는 내일부터 폐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4628&ref=A>

[출처] 서울경제(2021.02.05.). “‘실검 시대가 저물었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폐지 이후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W5R9QY>

(1) 포털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발표해 봅시다.

(생각해 볼 질문: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여론을 반영할까요, 형성할까요?)

의견	찬성	반대
이유	실검 순위 조작을 통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후보와 케네디 후보의 사례를 읽고, TV 토론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수직선 위에 표시해 봅시다.



	케네디 후보(왼쪽)	닉슨 후보(오른쪽)
토론 전	약세	압승 전망
토론 후	건강, 당당	불안, 초조

1960년 미국에서 3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닉슨 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상원의원 케네디 간의 TV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이 토론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첫 TV토론이었고, 이전까지는 라디오를 통한 연설만 있었다. 당시 지지율 1위 후보는 닉슨으로, 라디오 연설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TV토론에서 정치 신인에 가까웠던 케네디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정장이 스튜디오 배경과 잘 어울렸고, 유창한 언변과 느긋한 표정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닉슨은 토론 동안 땀을 흘리고 불안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토론은 선거전의 분수령으로 작용해 11월 대선 결과 초접전 끝에 케네디가 당선됐다.

[출처] JTBC 뉴스룸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https://youtu.be/WK_bgKLJp9M
 SBS뉴스(2017.04.19.). "토론 이후 '출렁'... TV 토론, 표심에 얼마나 영향 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55&aid=0000523301>

→

0	+1	+2	+3	+4	+5	+6	+7	+8	+9	+10
이유										

(2)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와 영향력 순위는 무엇인가요?

종류	구체적인 미디어	영향력 순위	이유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네이버	1	가장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2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뉴스나 영상을 볼 수 있어서
텔레비전	TV 토론회	4	
신문		5	
라디오		6	
주변 사람들	가족	3	
기타			

2)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디어 2개를 고른 뒤, 고른 미디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미디어	1순위 ()	2순위 ()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보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

* 소셜 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이어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활동을 돕는다. 실시간으로 개인 간 대화를 주고받는 인스턴트 메신저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도 넓은 의미의 소셜 미디어로 볼 수 있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청소년과 미디어.

(1) 본인 계정의 유튜브 첫 화면이 무엇인지 찾아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 [찬반토론]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가?

*토론 방법

1. 4~6명이 한 모둠을 구성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찬성과 반대 근거를 조사한다.
2.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작성한다.
3. 토론을 진행한 뒤,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한다.

[자료 1]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해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민들이 반정부시위로 독재자들을 대거 퇴출시킨 재스민 혁명(아랍의 봄)은 소셜 미디어를 토대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부의 부패 및 인권 탄압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권력기관의 언론 및 정보 통제에 맞서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최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시민들도 미얀마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SaveMyanmar #Voiceoutfordemocracy 등의 해쉬태그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자료 2] 소셜 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소셜 미디어는 가짜 뉴스의 주된 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 한 사례로, 2015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와 같은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미 대선 당시 가짜 뉴스의 페이스북을 통한 공유, 반응, 댓글 건수가 주요 언론사의 공유, 반응, 댓글 건수보다 더 많았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자신이 동의하는 정보에만 노출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듣지 않으려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가 두드러져 정치적인 극단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

나의 입장	(기여한다, 기여하지 않는다)
근거	
예상되는 반론	
재반론	

1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



미디어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다. 영국의 버킹엄 교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를 텔레비전/영화/비디오, 음악/라디오, 사진/광고, 스마트폰/컴퓨터게임, 인터넷/소셜미디어, 책/신문/잡지 등으로 분류했다.

미디어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활용된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포스터는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선거 포스터이다. 유명 그래피티 디자이너인 셰퍼드 페어리가 디자인한 포스터의 이름은 ‘희망(HOPE)’이다. 빨강, 파랑, 베이지, 회청색이라는 네 가지 색깔만을 이용해 오바마의 얼굴을 표현하고, 하단에는 'HOPE'란 문구만 새겼다. 이 디자인은 흑백 혼혈인 오바마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표현했으며, 모든 인종을 통합한 듯한 포스터는 오바마의 공식 포스터로 쓰였으며,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

[출처] 조선멤버스 ‘오바마 포스터, 힐러리 글씨체... | 후보자에 대한 관심 높였어요’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8.html

2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는 배고픈 아귀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퍼뜨린 소문에서 시작한다.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뽕뽕 뭉쳐 헤엄치던 물고기 떼 사이에서 의심이 늘어나고, 빨간 물고기들은 물고기 떼에서 쫓겨나게 된다. 아귀는 빨간 물고기를 잡아먹고, 계속해서 소문을 낸다.

이 그림책에서의 ‘소문’은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다. 그 소문이 맞을까, 그 뉴스가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세일 것이다.

[출처] 박정섭(2016).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

퀴즈로 정리하기

1 O, X 퀴즈를 풀어 봅시다.

선거 후보자들의 TV 토론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X)

2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봅시다.

소셜 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이어진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로,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활동을 돕는다.

3 다음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선거, 민주주의

선거를 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를 믿지 않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비판적인 뉴스 읽기를 돕는 뉴스 분석법(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틀)

확인사항	질문
분석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직업, 역할 등)인가요? 이 뉴스의 발행기관(언론사 등)은 어디인가요? 생산자는 왜 이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뉴스가치)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뉴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가요? 이 뉴스에는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뉴스는 6하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나요?
	의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나요?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 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나요? 있다면 왜,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요?
평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자는 믿음직한가요? (작성자 이름, 소속 등 명시) 취재원은 믿음직한가요? (취재원 명시, 취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 인용된 자료가 믿음직한가요? (검증된 자료 등) 취재 과정은 믿음직한가요? (직접 취재, 사실관계 확인) 작성자(언론사)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나요?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있나요?
	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했나요?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사건의 배경, 원인, 대안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한 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했나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나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나요?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나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틀)’을 활용하여 비판적 뉴스 읽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중 ‘정치’면의 기사를 선정한 뒤 분석법(틀)에 따라 기사를 분석하는 모둠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기사를 선정할 때는 특정 주제(예. 국회의원 선거, 특정 선거 후보자)에 해당하는 기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사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

■ 도서 및 논문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매뉴얼.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고등학교 청소년과 미디어(인정교과서).

박정섭(2016). 감기 걸린 물고기. 사계절.

■ 신문 기사

KBS NEWS(2020.02.19.). “네이버 ”총선 기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중단“... 카카오는 내일부터 폐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4628&ref=A>

서울경제(2021.02.05.). “실검 시대가 저물었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폐지 이후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EW5R9QY>

SBS뉴스(2017.04.19.). “토론 이후 ‘출렁’... TV 토론, 표심에 얼마나 영향 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55&aid=0000523301>

■ 홈페이지

JTBC 뉴스룸 - ‘텔레비전에 네가 나왔으면...’

https://youtu.be/WK_bgKLJp9M

조선멤버스 ‘오바마 포스터, 힐러리 글씨체... 후보자에 대한 관심 높였어요’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8.html

주제 5. 선거와 미디어

2차시	선거 미디어 비평과 제작	
차시 소개	<p>2차시 ‘미디어 비평과 제작’은 ‘뉴스 제목 다시 쓰기’와 ‘팩트체크하기’ 활동을 통해 미디어 비평을 하고, 팩트체크 기준에 따라 팩트체크를 해 보면서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미디어를 읽는 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동일한 주제로 서로 다른 뉴스 제목으로 보도한 사례를 통해 미디어에는 창작자의 시각이나 관점이 개입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뉴스 제목을 자신의 시선으로 다시 작성해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팩트체크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팩트체크 결과 및 팩트체크 기준을 탐구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모둠별로 팩트체크를 한 뒤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문화의 이해’ 단원 수업에서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및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 간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및 미디어를 주제로 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p> <p>[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다른 관점, 다른 시각
	<p>활동 1 <생각 키우기></p>	팩트체크, 어떻게 하면 될까?
	<p>활동 2 <생각 넓히기></p>	팩트체크, 우리가 한다면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과 [활동 2]를 다룰 때 학생용 읽기 자료에 제시된 팩트체크 관련 용어 및 가짜 뉴스 판별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 실제로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팩트체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례를 탐구하고 팩트체크 기준을 파악해보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 시 실시간 채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활동 2]의 ‘팩트체크, 우리가 한다면’ 활동은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으로 진행하며, 미리캔버스 또는 망고보드 등의 카드뉴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미디어 비평과 제작
교수·학습 목표	1.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다. 2.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다른 관점, 다른 시각</p> <p>- 2020년 4·15 총선에서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진 것을 다룬 뉴스 2편을 보고, 뉴스의 제목과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본다.</p> <p>- 만약 자신이 해당 주제로 뉴스를 제작한다면 어떤 제목과 내용으로 제작할지 생각해보고, 발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뉴스 두 편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봅시다.</p> <p>- 뉴스의 제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p> <p>- 만약 여러분이 18세 선거권을 주제로 뉴스를 제작한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나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영상을 보며, 제목 뿐 아니라 내용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p> <p>- 뉴스의 제목과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디어에는 창작자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미디어 수용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뉴스의 제목과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p> <p>(2) 만약 여러분이 동일한 주제로 뉴스를 만든다고 할 때, 뉴스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p> </div> <p>* 수업안내</p> <p>- [활동 1]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하여, 선거와 관련한 팩트체크 사례 및 팩트체크 기준을 탐구해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팩트체크할 주제를 정한 뒤, 모둠별로 팩트체크한 결과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10	PPT 도입 자료

<p>활동 1</p>	<p>[활동 1] 팩트체크, 어떻게 하면 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문장이 팩트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방법>을 참고하여 팩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또는 자료가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 QR코드를 활용하여 팩트체크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팩트체크를 위해 어떤 방법 또는 자료를 활용했는지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는 문장은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 팩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할까요?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와 관련한 정보에서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시간이 부족할 경우, 팩트체크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활동지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문장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문장은 팩트일까요? (2)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문장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QR코드를 활용하여 팩트체크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팩트체크를 위해 어떤 방법 또는 자료를 활용했는지 찾아 봅시다. </div>	<p>10</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활동 2] 팩트체크, 우리가 한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살펴본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모듈별로 팩트체크 활동을 해 본다. - 팩트체크 결과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한다. 카드뉴스에는 주제와 선정 이유, 검증대상, 검증내용, 검증결과,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 카드뉴스 작성은 미리캔버스 또는 망고보드와 같은 카드뉴스 제작 사이트를 활용한다. 	<p>20</p>	<p>PPT 활동 자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선거와 관련한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 앞서 살펴본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잘 기억하고, 주제를 선정해 봅시다. - 팩트체크의 결과물을 카드뉴스로 제작해봅시다. ●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부족할 경우, 팩트체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고, 실제 자료를 찾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제시된 주제는 서울대SNU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 활동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듬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2) 팩트체크한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봅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발표한다.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를 통해 정리한다. 	5	PPT

다른 관점, 다른 시각

* 다음은 2020년 4·15 총선 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진 것을 다룬 뉴스입니다.



[출처] YTN 뉴스 ‘첫 투표 마친 18살 새내기 유권자...“설렘·책임감 느껴요’

<https://youtu.be/sNcJMEZX11Y>

MBN 뉴스 “만 18세’ 유권자 52만명 표심은? ... 선거 교육 ‘부실’

<https://youtu.be/-TI-PRbj6E>

(1) 뉴스의 제목과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1번 뉴스	2번 뉴스
강조하는 내용	18세 유권자의 설렘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투표율 저조나 영혼 없는 투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적절한 선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제작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제작자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2) 만약 여러분이 동일한 주제로 뉴스를 만든다고 할 때, 뉴스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봅시다.

내가 붙이고 싶은 제목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 투표에 참여해요
뉴스에 들어갈 내용	학생들이 공부만큼이나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내용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내용
인터뷰할 사람	투표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유	청소년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어떻게 하면 될까?

(1) 다음 문장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문장은 팩트일까요?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나의 생각	팩트가 아니다
그 이유	다른 나라도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줄 것 같다

(2)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문장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1.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나요?	이름만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나요?
2. 저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저자의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과거 온라인에 어떤 글을 게시했나요?
3.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나요?	과거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을 현재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지는 않았나요?
4.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았나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루었나요?
5.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나요?	정보가 나에게서 불안, 공포, 분노 등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해당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한다.

다른 나라의 선거권 연령을 확인하고, 그 나라의 고등학생은 몇 살까지인지를 믿을 만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우리나라가 선거권을 주는 기준이 ‘고등학생’인지, ‘연령’인지를 확인한다.

(3) QR코드를 활용하여 팩트체크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팩트체크를 위해 어떤 방법 또는 자료를 활용했는지 찾아 봅시다.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만 19세 기준을 고수했던 건 대한민국뿐이었다. 만 20세 기준이었던 일본도 2015년에 18세로 하향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세계 232개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기준이 206개국(8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1세(11개국), 16세(6개국), 17세와 20세(각각 4개국) 순이었다.

[출처]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https://factcheck.snu.ac.kr/>)

팩트체크, 우리가 한다면

(1)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참고하여,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두가 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주제
1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2	정치인의 TV 예능 출연은 법에 위배된다.
3	여론 조사 때 지지 정당을 밝혔더니 전화를 끊어서 여론을 조작한다.
4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00명이 전과자다.
5	

(2) 팩트체크한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봅시다.

*카드뉴스 제작 계획서에는 카드뉴스에 들어갈 문구를 작성합니다.

*카드뉴스 제작은 미리캔버스(www.miricanvas.com), 망고보드(www.mangoboard.net)를 활용합니다.

카드뉴스 제작 계획서	
1쪽 주제 및 선정 이유	주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선정 이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확한 용도가 궁금하고 선거 결과 조작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쪽 검증대상	뉴스 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 용도를 알아봅니다.
3쪽 검증내용 및 결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일련번호가 숫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QR코드를 판독한 결과, 해당 선거구의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며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쪽 팩트체크의 중요성	정확한 근거 없이 음모론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불안이나 분노를 일부러 이끌어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1 팩트체크와 관련한 용어

- * 탈진실(脫眞實; Post-Truth) : 2016년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로,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을 합친 단어로 ‘정보 전염병’이라는 의미이다.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을 뜻한다.
- * 가짜 뉴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 형태로 포장하여 퍼뜨리는 것이다. 미확인 루머, 유언비어, 정치적 목적의 거짓 선동이 대표적이다.
- * 오보: 조작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풀 팩트(Full Fact)’의 가짜 뉴스 판별법

1. 제목 비판적으로 읽기
 - 가짜 뉴스나 부실한 뉴스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하기보다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눈길을 끄는 데 주력한다.
2. 인터넷 주소(URL) 자세히 살펴보기
 - 가짜 뉴스는 비정상적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출처가 처음 들어 본 언론사라면 홈페이지를 찾아 그동안 보도한 뉴스를 확인한다.
3. 뉴스의 출처(취재원) 확인하기
 - 취재원의 실명이나 직위를 확인하고, 취재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4. 문법적 오류 확인하기(맞춤법, 어색한 문장 등)
 - 맞춤법이나 어색한 표현, 감정적 표현이 많다면 가짜 뉴스를 의심해 본다.
5. 사진 면밀하게 살펴보기
 - 조작된 사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
6. 기사의 발행일 확인하기
 - 기사 등록과 수정 시간이 사건 발생일보다 이르면 가짜뉴스일 수 있다.
7. 주장의 근거 확인하기
 - 제시된 통계와 그래프의 출처를 직접 검색하여 확인해본다.
8. 관련한 다른 기사 찾아보기
 - 수많은 언론사들이 동시에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안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낮다.
9. 유머 또는 패러디와 구분하기
 - 기사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유머나 패러디인지 구분해야 한다.
10. 의도적인 가짜 뉴스인지 의심하기
 - 자신이 기대하던 정보를 만났다면 더욱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진위를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청소년과 미디어.


3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의 팩트체크기준


기준	설명
검증 대상 선정의 명확성/적절성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한 것인가요?
사실 검증의 사회적 가치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까요?
검증 방법의 우수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고 적절하게 분석되었나요? 조사한 자료들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나요?
결론 도달의 논리성/타당성	증거가 결론을 잘 뒷받침하나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인가요?

[출처]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https://factcheck.snu.ac.kr/>)


퀴즈로 정리하기

1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팩트체크를 할 때는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O, X)

2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봅시다.

가짜 뉴스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 형태로 포장하여 퍼뜨리는 것이다.

3  가짜 뉴스 구별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 봅시다.

친구야, 혹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면 동일한 내용이 신문 기사나 웹 사이트에도 있는지 찾아보면 어떨까?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선거 및 정치와 관련된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1 MZ세대의 탈이념적 표심

MZ세대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최근 이들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MZ쇼크’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소비자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MZ세대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MZ세대의 영향력은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들에게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보다, ‘나의 이슈’에 정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과 불공정, 일자리 문제 등과 같이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히 공정성 회복과 일자리 확충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중앙일보(2021.04.10.). “디지털 네이티브, 진영보다 개인의 취향-위라벨 중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2032>

아시아투데이(2021.04.11.).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탈이념적 MZ세대’ 표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1010006066>

2 영화 ‘소셜 딜레마(The Social Dilemma)’

소셜 딜레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여, 소셜 미디어가 중독을 강화시키고 사람과 정부를 이용하며,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소셜 딜레마 홈페이지(<https://www.thesocialdilemma.com/>)에서는 3가지 딜레마를 제시하는데, 정신 건강 딜레마, 민주주의 딜레마, 차별 딜레마이다. 관련된 보너스 클립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the
democracy
dilemma_**



THE # OF COUNTRIES WITH POLITICAL DISINFORMATION CAMPAIGNS ON SOCIAL MEDIA DOUBLED IN THE PAST 2 YEARS.

NEW YORK TIMES

Social media advertising gives anyone the opportunity to reach huge numbers of people with phenomenal ease, giving bad actors the tools to sow unrest and fuel political divisions.

**/the
discrimination
dilemma_**



64% OF THE PEOPLE WHO JOINED EXTREMIST GROUPS ON FACEBOOK DID SO BECAUSE THE ALGORITHMS STEERED THEM THERE.

INTERNAL FACEBOOK REPORT, 2018

Algorithms promote content that sparks outrage, hate, and amplifies biases within the data that we feed them.



[출처] 영화 소셜 딜레마(<https://www.thesocialdilemma.com/>)

■ 도서 및 논문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청소년과 미디어(인정교과서)**.

■ 신문 기사

중앙일보(2021.04.10.). “디지털 네이티브, 진영보다 개인의 취향·위라벨 중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2032>

아시아투데이(2021.04.11.)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탈이념적 MZ세대’ 표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11010006066>

■ 홈페이지

YTN 뉴스 ‘첫 투표 마친 18살 새내기 유권자...“설렘·책임감 느껴요’

<https://youtu.be/sNcJMEZX11Y>

MBN 뉴스 ‘만 18세’ 유권자 52만명 표심은? ... 선거 교육 ‘부실’

<https://youtu.be/-TI-PRbj6E>

영화 소셜 딜레마

<https://www.thesocialdilemma.com>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https://factcheck.snu.ac.kr>

주제 6. 선거운동과 선거 관리

1차시	선거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차시 소개	<p>‘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본 차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운동의 의의,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 등의 학습 요소를 포괄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혹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의 사례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정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 선거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미래의 유권자로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수업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춰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수업의 흐름	<p>도입 <생각 열기></p>	선거운동, 어디까지 경험해봤니?
	<p>활동 1 <생각 키우기></p>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은?
	<p>활동 2 <생각 넓히기></p>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p>정리 <생각 다지기></p>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은 아직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 유권자로서 참여한 경험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에 대해 다룰 때는 학교에서의 학생회장 선거, 학급회장 선거 등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본 선거와 연관 지어 지도한다. -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선거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거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다양한 의견에 대해 숙의하는 공론장을 갖기 위함임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선거운동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뉴스 기사나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선거운동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선거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수·학습 목표	1. 선거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선거운동, 어디까지 경험해봤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와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 학생회장 선거나 학급회장 선거를 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선거 유세를 펼쳤던 후보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지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유세 기간에 경험해본 선거운동을 떠올려 본다. -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색 선거운동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고,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는 참여해보지 못했지만 학급 회장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해봤을 거예요.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본 친구도 있고, 투표에 참여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거 유세를 잘해서 기억에 남는 후보자가 있다면 이야기해볼까요? -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데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색 선거운동 영상 시청 시, 단순히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벌인 각양각색의 선거운동이 일반적인 형태의 선거운동은 아닐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학생회장 선거나 학급회장 선거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가장 인상 깊은 선거 유세를 펼친 후보자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오른쪽 그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본 적이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모두 표시해보고, 이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운동 방법과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골라봅시다. (3) 영상에 등장한 이색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4) 영상에서처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iv>	10	PPT 도입 자료

	<p>* 수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2]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을 안내한다. 		
<p>활동 1</p>	<p>* [학급활동]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이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 유포 및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 퀴즈를 풀면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거나 겪게 될 때의 대처법을 명확히 파악한다. -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까지도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유권자 중에서도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2) 퀴즈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시다. (3)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div>	<p>15</p>	<p>PPT 활동 자료 1</p>
<p>활동 2</p>	<p>* [모둠활동]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종류를 파악한다. - 모둠별로 모여 함께 의논하여 활동 자료에 제시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p>15</p>	<p>PPT 활동 자료 2</p>

	<p>- 유권자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1)에 제시된 그림 속 사례처럼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한다.</p> <p>- (2)에 제시된 그림 속 여섯 가지 방법 모두 유권자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파악한다.</p> <p>- 선거 질서를 방해하여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약을 둘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3 학생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는데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실, 기숙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연속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p> <p>- 특히나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생각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짓 사실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 <p>-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이 선거에서도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선거운동이라는 주제가 아직 유권자가 아닌 중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모둠활동으로 구성하였으나 반드시 모둠별로 모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교실 수업 상황에 따라 개별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p> <p>-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을 단순히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에 제약을 두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을 통해 유추해봅시다.</p> <p>(2) 다음 중 유권자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p> <p>(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칙들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div>		
정리	<p>* 정리하기</p> <p>- 활동을 정리하면서 선거운동의 의의를 확인한다.</p> <p>-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p>	5	PPT

선거운동, 어디까지 경험해봤니?

(1) 학교 학생회장 선거나 학급회장 선거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가장 인상 깊은 선거 유세를 펼친 후보자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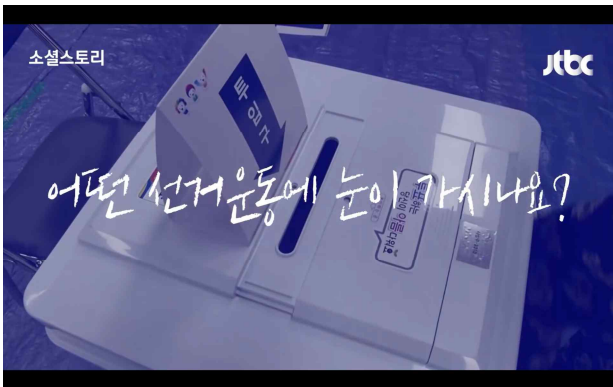
학급회장 선거 때 친구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소품을 가져와 사용했던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2) 오른쪽 그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본 적이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모두 표시해보고, 이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운동 방법과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골라봅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1).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펼쳐진 이색 선거운동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출처] JTBC News 유튜브 채널 '[소셜스토리] 선거운동, 어디까지 해봤니?'
https://youtu.be/d_zrqzKUwEg

(3) 영상에 등장한 이색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유권자에게 큰절, 산속에서 유세, 후보자가 직접 홍보송 부르기, 판소리 유세, SNS 라이브, 각종 캐릭터 복장, 영화 패러디 포스터 등

(4) 영상에서처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이다.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은?

(1)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선거운동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O, X)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생활을 자유롭게 비방해도 된다. (O, X)

(2) 퀴즈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돈이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다. / 없다.)
평소 친분이 있던 후보자로부터 돈이나 식사 대접을	(받아도 된다. / 받으면 안 된다.)
후보자로부터 돈이나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 받지 않는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금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많게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후보자는 물론 그의 가족,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누구에게든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거나 겪게 될 때 이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알렸던 유권자에게 포상금 36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최고액은 무려 5억 원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물론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된다.

(3)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당 (O, X)	후보자 (O, X)	후보자 가족 (O, X)	선거사무원 (O, X)	유권자 (O, X)
----------------	-----------------	--------------------	-------------------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1).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해볼 수도 있고,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까지 22일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까지 13일간) 중에만 할 수 있다.

(1)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림을 통해 유추해봅시다.

<p>상대 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p>	<p>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p>	<p>특정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p>
<p>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실, 기숙사, 친구 집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연속해서 방문하는 행위</p>	<p>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 모자, 상징물 등을 착용하는 행위</p>	<p>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p>

(2) 다음 중 유권자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O, X)</p> <p>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p>	<p>(O, X)</p> <p>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여 전달한다.</p>
<p>(O, X)</p> <p>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p>	<p>(O, X)</p> <p>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p>
<p>(O, X)</p> <p>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투표나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p>	<p>(O, X)</p> <p>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p>

(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칙들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운동의 지나친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1).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1 ▶ 코로나 시대의 선거운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웠던 선거운동을 바꿨다. 한 4차선 도로에서 ○○당 ○○○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길가에 띄엄띄엄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선거운동원 간격을 2m씩 띄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었다.

2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현란한 몸짓과 귀를 자극하는 로고송으로 유권자 이목을 끌었던 선거운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후보 진영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고려해 조용한 선거운동 방침을 정했다. 선거 로고송 제작도 지난 선거에 비해 줄었고 틀더라도 소리를 대폭 낮추거나 제작한 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운동 필수품인 유세차를 대여하지 않는 후보도 부쩍 늘었다. 유세차를 빌리더라도 홍보영상을 틀거나 유세 때만 활용하고 마이크·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선거운동원 없이 홀로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도 있다.

○○시에서 코로나19가 소강상태긴 하지만 시민 불안감은 여전해 후보들은 유권자를 만나더라도 조심스럽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악수 등 접촉을 피하고 명함 전달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조용한 선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이모(25) 씨는 "선거 때만 되면 시끄럽고 무한 반복되는 로고송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번엔 코로나 19 때문인지 조용해서 좋은 것 같다"며 "후보들이 정책이나 공약 경쟁에 집중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2020.04.02.). [총선 D-13] '팬터마임 보는 듯'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거운동.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101200051>

2 ▶ Q&A - 선거운동, 이렇게 해도 되나요?

Q.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에 대한 거짓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Q. 후보자의 명함을 제가 배부해도 되나요?

A. 지지하는 후보자를 돕고 싶어도 직접 명함을 나누어줘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배우자,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우리 부모님이 선거에 출마하면 중학생인 제가 명함을 배부하는 건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자녀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참여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올려도 좋습니다. 이러한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스토리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퀴즈로 정리하기

1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써봅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국번없이 (으)로 신고한다.

2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O, X)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O, X)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X)

3 유권자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골라봅시다.

- ㄱ.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 ㄷ.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선거운동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선거운동 사례를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거운동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제7장 일부)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거운동

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23일 전(선거일 전까지 22일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 전(선거일 전까지 13일간)부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법으로 정해두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선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월 정당별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11월 본선이 치러진다. 현 미국 대통령은 예비선거 후보 시절인 선거 1년 5개월 전부터 예비경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2021.03.26). 韓, 선거前 14일만 유세 가능...美·英 등 1년내내 해도 무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2674221>

■ 도서 및 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스토리로 알아보는 선거·정치 이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1).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 신문 기사

연합뉴스(2020.04.02.). “[총선 D-13] '팬터마임 보는 듯'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거운동”.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101200051>

한국경제(2021.03.26.). “韓, 선거前 14일만 유세 가능...美·英 등 1년내내 해도 무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2674221>

■ 홈페이지

JTBC News 유튜브 채널 ‘[소셜스토리] 선거운동, 어디까지 해봤니?’
https://youtu.be/d_zrqzKUwEg

주제 6. 선거운동과 선거 관리

2차시	공정한 선거와 투표 참여의 의의는 무엇일까?								
차시 소개	<p>투표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차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 관해 탐구하고, 투표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로서의 투표 참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정치 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본 차시는 중학교 사회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 중 ‘선거의 의미와 제도’ 또는 ‘시민 참여’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기존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급회장 선거 시기를 전후로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활동) 시간에 민주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학급 자치활동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p>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p>[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p>								
수업의 흐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3 1207 560 1279">도입 <생각 열기></td> <td data-bbox="564 1207 1439 1279">투표, 어디까지 알고 있지?</td> </tr> <tr> <td data-bbox="343 1285 560 1357">활동 1 <생각 키우기></td> <td data-bbox="564 1285 1439 1357">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td> </tr> <tr> <td data-bbox="343 1364 560 1435">활동 2 <생각 넓히기></td> <td data-bbox="564 1364 1439 1435">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td> </tr> <tr> <td data-bbox="343 1442 560 1529">정리 <생각 다지기></td> <td data-bbox="564 1442 1439 1529">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td> </tr> </table>	도입 <생각 열기>	투표, 어디까지 알고 있지?	활동 1 <생각 키우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활동 2 <생각 넓히기>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도입 <생각 열기>	투표, 어디까지 알고 있지?								
활동 1 <생각 키우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활동 2 <생각 넓히기>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 <생각 다지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퀴즈								
수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입법 청원 등 정부에 실제로 정책을 제안해보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 투표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앞서 ‘왜 투표율을 제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 수업 시 투표율 제고 방안 탐색 활동은 패들렛(Padlet)이나 멘티미터(Mentimeter)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한 데 모아볼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명	공정한 선거와 투표 참여가 지니는 의의는 무엇일까?
교수·학습 목표	1.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도입	<p>* 생각 열기 : 투표, 어디까지 알고 있니?</p> <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선거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영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유튜브 채널</p> <p>-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자료 (2편, 선거 이렇게 한다)</p> <p>https://youtu.be/YYpOmoBsQXI (2:37부터 9:56까지)</p> </div> <p>- 1970년대와 2010년대의 OECD 주요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나타낸 자료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여러분은 아직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서 직접 참여해본 적이 없지요. 투표와 개표 절차에 관한 영상들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p> <p>- 다음은 1970년대와 2010년대의 OECD 주요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각각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197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투표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교사용 참고 자료 1 참조)이었음을 지적하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투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을 비롯하여 젊은 유권자층의 정치적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이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흥미로운 점을 적어봅시다.</p> <p>(2)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투표율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p> <p>(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p> </div> <p>* 수업 안내</p>	10	PPT 도입 자료

	<p>- [활동 1]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 관해 탐구할 것임을 안내한다.</p> <p>- [활동 2] 모둠별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p>		
<p>활동 1</p>	<p>* [학급활동]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p> <p>-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발표한다.</p> <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과 관련 영상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설치된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일에 대해 조사한다.</p> <p>-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인 선거 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읽고, 비용 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아본 후, 이를 활용하여 선거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영상 출처] '취재대행소 앵' 유튜브 채널</p> <p>- 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는 그냥 놀까? https://youtu.be/u3JjGzKpEg</p> <p>●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발언 예시</p> <p>- 우리나라 헌법 제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p> <p>- 선거 공영제 중 비용 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보전함으로써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선거 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이외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 비용 총액 중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고 있어요.</p>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p>- 원칙적으로는 직접 자료 검색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되,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나 비용 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강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p> <p>- 선거 공영제에 대해 설명할 때, 비용 공영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무조건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p> <p>● 활동지 질문</p> <p>(1)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p> <p>(2)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p> <p>(3) 위 기관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직선거가 없을</p> </div>	<p>10</p>	<p>PPT 활동 자료 1 PC 또는 스마트폰</p>

	<p>때도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영상을 통해 조사해 봅시다.</p> <p>(4) 밑줄 친 ‘비용 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청년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봅시다.</p>		
<p>활동 2</p>	<p>* [모둠활동]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끼리 모여 도입부의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 생각한 투표율 제고 방안 두 가지를 피라미드 토론 카드에 적는다. - 짝꿍과 만나 한 팀을 이루어 각자의 토론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카드 4장 중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새로운 팀 카드에 적는다. - 같은 모둠 내의 다른 팀과 만나 각 팀의 토론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카드 4장 중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새로운 모둠 카드에 적는다. - 각 모둠이 최종 선택한 해결 방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정부에 제안할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p>● 활동/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당 인원은 4명으로 하되,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한 모둠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라미드 토론의 절차는 교사용 참고 자료를 참조한다. - 피라미드식 토의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피라미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존의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으며, 토론 결과에 따라 여러 해결 방안을 결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팀 카드나 모둠 카드에 적는 것도 가능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p>● 활동지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표율이 낮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2)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고,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내 카드에 적어봅시다. (3) 내 카드와 짝꿍의 카드를 모아 각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팀 카드에 적어봅시다. (4) 다른 팀과 만나 각 팀의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모둠 카드에 적어봅시다. (5) 우리 모둠이 최종 선택한 해결 방안 두 가지 중에 참신하면서 	<p>20</p>	<p>PPT 활동 자료 2 토론 카드 (모둠당 14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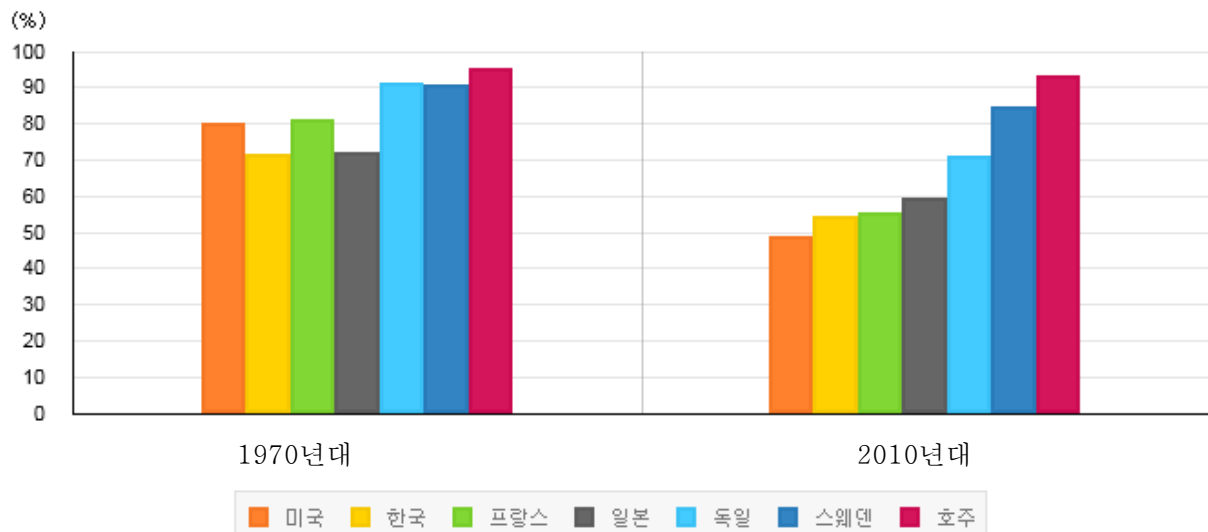
	도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하나 골라 정부에 제안할 정책으로 구체화 해봅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기 - 활동을 정리하면서 주권자로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 퀴즈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한다. 	5	PPT

투표, 어디까지 알고 있니?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영상과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1970년대와 2010년대 OECD 주요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출처 : International IDEA

* 자료: International IDEA, 「<http://www.idea.int/>, Voter Turnout」 2016. 12

(1)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흥미로운 점을 적어봅시다.

개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놀랐다.

(2)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투표율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진 국가들이 많다.

(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졌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딱히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출처] e-나라지표

https://index.go.kr/enara/smart/refer.do?idx_cd=4063&stts_cd=406302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상대 후보를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

(2)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3) 위 기관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직선거가 없을 때도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영상을 통해 조사해 봅시다.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를 비롯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시되는 공공단체 등의 각종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 선거를 실시한다.
- 공동 주택 임원 선거, 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 각종 선거의 진행을 돕는다.
-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앞선 선거에서 범죄가 있었을 경우 그것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확인한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심의한다.
- 정당의 경선과 정치자금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선거방송토론을 관리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4) 밑줄 친 ‘비용 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청년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봅시다.

선거 공영제는 무제한적인 선거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선거 과열과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관리 공영제’와 선거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 공영제’로 나뉜다.

<p>“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에요. 드디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선거에 출마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거 출마를 포기하려고 해요.”</p>	<p>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선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외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 비용 총액 중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비용 공영제가 있어요.</p>
---	--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투표율이 낮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2)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고,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내 카드에 적어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개인 카드 1</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개인 카드 2</p>
---	---

(3) 내 카드와 짝궁의 카드를 모아 각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팀 카드에 적어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팀 카드 1</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팀 카드 2</p>
--	--

(4) 다른 팀과 만나 각 팀의 카드에 적힌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두 가지 골라 모둠 카드에 적어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모둠 카드 1</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모둠 카드 2</p>
---	---

(5) 우리 모둠이 최종 선택한 해결 방안 두 가지 중에 참신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하나 골라 정부에 제안할 정책으로 구체화 해봅시다.

정책 이름	권리도 누리고 문화도 누리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것처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이후 며칠 동안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문화재 무료 관람,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할인 또는 무료 입장,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프로 스포츠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대 효과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투표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1 '의무투표제'란?

투표를 안하면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의무인 나라들도 있다. 바로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무투표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 취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 물론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까지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기권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한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남득시켜야 한다.

2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무려 30개국 정도나 된다.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이다. 1901년 독립 이후 1903년부터 투표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 호주의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배경에는 이런 제도의 시행이 있었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에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시키며, 벌금을 내야만 투표권이 회복된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그리스인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호주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p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7&bcIdx=9068>

퀴즈로 정리하기

1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기표할 때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 대신 개인 도장이나 펜, 볼펜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O, X)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비밀선거 원칙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O, X)

2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봅시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다음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 ㄱ. 선거 범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 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심의한다.
- ㄷ. 공공단체 등의 각종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위탁 선거를 실시한다.

자기 평가

평가 기준	잘함	보통	부족
나는 선거가 정치 참여의 기본적인 방법임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선거공영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역대 선거별 투표율 추이

(1)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2)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3)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선거의 특성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다른 선거의 투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공직 선거의 투표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젊은 층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 증대, 사전투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일반적인 피라미드 토론의 절차

피라미드 토론은 전체 집단의 의견을 모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두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모두 네 명이 의견을 모으고, 다시 여덟 명이 의견을 모으는 등 마치 피라미드처럼 의견을 모아나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출처] 정문성(2017). 토의·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 도서 및 논문

정문성(2017). 토의·토론 수업방법 84. 교육과학사.

■ 신문 기사

■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jv_oOonIe615svanuXx-Pw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해야 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권리...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갈등’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7&bcIdx=9068>

‘취재대행소 뺑’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b-AbqZutk9nTlJLZRcBinw>

e-나라지표

https://index.go.kr/enara/smart/refer.do?idx_cd=4063&stts_cd=406302